Buddhanews.com

현대불교

나쁜 생각이 나쁜 벗이요, 좋은 생각이 좋은 벗입니다. 나쁜 생각을 따르면 걱정이 생기고, 좋은 생각을 따르면 기운이 생깁니다.

–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제828호 2011년 3월 23일 수요일 (음력 2월 19일 · 불기 2555년 · 주간)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도 아름다운동행을 비롯해, 로터스월드, 지구촌공생회, 진각복지재단 등에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김희옥 총장)가 대학 최초로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무기한 모금운동을 3월 16일 교정 등에서 시작했다. 김희옥 총장은 "일본 국민들이 하루빨리 이 참화를 수습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위로의 마음을 보태고 싶다"며,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이웃나라의 어려움을 보살필 줄 아는 진정한 동국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5년 뒤 청년불자 30% ↓

젊은이들 불교 떠난다… 청년불자 needs 파악조차 안된 채 신심만 강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도 치고, 거름도 잘 줘야 한다는 것은 자연의 진리다.

불교계가 불교중흥이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불사가 필수적이다.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 소홀한 경우가 많다.

현재 불교계 상황은 각 분야의 외형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신도간 소통 및 결속력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불자의 급격한 이탈이다.

통계청 연령별 종교인구조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1995년 174만여 명이던 25~34세 불교 인구는 2005년 144만여 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1995년 15~24세 불교인구가 157만 여명밖에 되지 않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005년 15~24세 불교인구는 129만여 명에 불과했다. 때문에 청장년 불교 인구는 2015년 인구조사에서 100만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해야할 점은 1995년 당시 25~34세였던 174만여 청년불자들이 2005년 34~44세 인구에서 146만여 명으로 줄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생활에서 불자네트워크의 미흡, 포교활동의 저하로 불자 인구 자체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간 대립이 극심해지고,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약화로 불심을 가진 젊은 불자들조차도 불자임을 숨기는 현상이 일어난데 기인한다.

> 젊은 불자들 이탈, 왜?
> 취업난에 종교활동 감소
> 불교내부는 인재난 심각

20~30대 불자들의 감소는 1990년대 이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비롯해 전국 사찰의 청년회와 중고등학생회, 어린이 법회 등 계층포교 활동의 급격한 위축에서도 엿볼 수 있다. 2000년 23개 지부, 171개 지회(학교단위 불교동아리)였던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의 경우 현재 20개 지부, 144개 지회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선 불교동아리와 어린이법회 관계자들은 "최근 월례법회 참가자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용석 대불련 간사는 "대불련 지회에서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 최근에는 회원 현황조사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선 지회의 경우 동아리 활동이 지장 받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 불자들의 이탈은 사찰을 문화재로서의 명맥과 기도처로서의 역할만을 남긴 채 생활 속에서 불자들을 이끄는 불교 자체의 생명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젊은 불자들의 부족은 불교계 내부에서 더욱 드러난다. 이는 취업난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종교활동에 매진하지 못하는 데도 기인하지만 임금 수준 등 사회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 신심에만 의지해 불교계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주경 스님은 "불교계에 만연한 주먹구구식 인사관리 행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신심으로 헌신함이 기본이라 해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범 · 노덕현 기자





일본 지진 참사 애도시 **청화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일본인의 뼈



흔들, 흔들, 흔들
지진이 엎질러 놓은 거대한 바닷물에
집도 차도 배도 둥둥 떠 쓸려가는
한낱 작은 나뭇잎이 되다니!

저것들, 한 순간에
물 위에 뜬 작은 나뭇잎이 되게 한,
저 지진이 엎질러 놓은 거대한 바닷물.

그 바닷물에
출렁출렁 엎질러진 사람들
다 쏟아져,
목숨마저 흔적 없는 그 빈 그릇들은 또!

우리의 몸이 아니라
지진이 엎질러 놓은 거대한 바닷물 앞에서는
이제 神도 무엇도 말하지 말고
머리 숙여라
인간의 모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니더라.

허나 아무 것도 아닌 그 곳에
번쩍하고 다시 보이는 것
무어나 부서지는 그 재앙 속에서도
금가지 않는 굳고 굳은 일본인의 뼈,

그것이 있어
아 보기 드문 그런 뼈가 있어
세계의 손이 모여 영차영차
저 널브러진 먹바위들 들어 내주면,

거기 왜
지진도 흔들지 못한
허리 펴고 일어서는
눈빛 형형한 얼굴이 없겠느냐.

"부처님 욕되게 하는 패륜아"라니

맑고향기롭게 前 이사, 덕 현 스님 비난

법정 스님이 만든 '맑고향기롭게'의 갈등은 덕현 스님의 잠적과 3월 2일 이사진의 일괄 사직으로 일단락된 듯 했다. 하지만 최근 맑고향기롭게의 前 이사가 길상사를 떠난 덕현 스님을 정신이상자로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윤청광 前이사는 한 교계신문에 기고한 '법정 스님께 참회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S대가 아니라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열 번 받았더라도 정신분열증, 과대망상증, 피해망상증, 자폐증 등 이상증세가 없는지 정신 상태부터 전문의사 검증을 받은 뒤에 제자가 될 것을 허락하라. 훗날 은사를 욕되게 하고 부처님을 욕되기 하는 패륜아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대 출신의 덕현 스님을 정신이상자로 취급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길상사 신도 도명 보살은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덕현 스님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글을 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작태다. 떠난 분은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2일, 당시 맑고향기롭게 이사진은 사과문을 통해 "최근 이사장 덕현 스님을 둘러싸고 야기된 불행한 사태에 대해 깊이 참회하며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 것에 엎드려 정중히 사과한다"고 했다. 추후 입장표명하겠다던 이사진이 2주일 후 덕현 스님을 성격 이상으로 몰았다.

이상언 기자

"정부와 대화해야"

설정 스님, 종단과 이견

"불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어떤 중생하고도 대화할 소임이 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현 종단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정 스님은 3월 16일 덕숭총림 향적당에서 진행된 장기 기증 관련 인터뷰 중 이같이 밝히며 정부 · 여당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설정 스님은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상대가 누가됐건, 어느 계층이 됐건 불교는 전방위적인 소통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828호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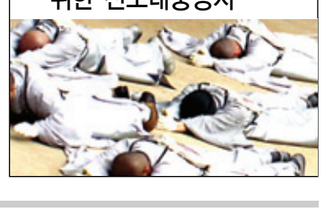
▶5 일본을 도웁시다
불교계 일본 돕기



▶6 나눔
수좌 스님들 장기기증 활발



▶13~15 특집
자성과 쇄신 5대결사를 위한 신도대중공사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사경 및 독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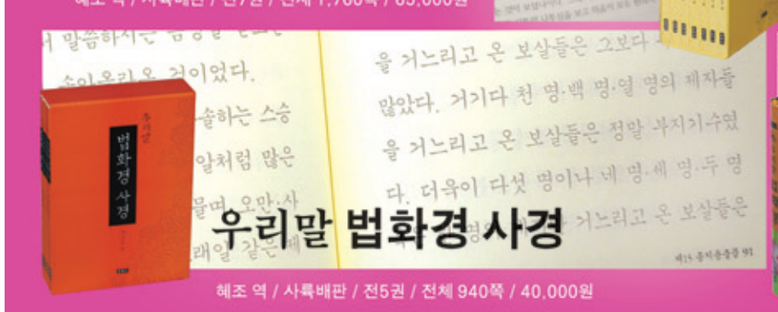
'경전의 왕 법화경'의 유려하고 현대적인 우리말 번역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단순히 경전을 베껴 쓰기만 해도 이 정도이니 하물며 경전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뜻의 본질을 알아 설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의 복덕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혜조 역 / 사륙배판 / 전7권 / 전체 1,760쪽 / 65,000원



혜조 역 / 사륙배판 / 전5권 / 전체 940쪽 / 40,000원



혜조 역 / 국판양장 / 630쪽 / 18,000원



관세음보살보문품
한문 및 우리말 사경
혜조 역 / 사륙배판 / 86쪽 / 4,5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조계종 세계로 비상

용인 화운사에 25일 영어전문교육기관 국제불교학교 개원


국제불교학교 교사로 사용될 화운사 능인선원 건물. 개원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이다.

조계종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설립한 '조계종 국제불교학교'가 3월 25일 오후 2시 용인 화운사에서 개원한다.

용인 화운사(주지 도현)는 개원을 10여 일을 앞둔 16일 국제불교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국제불교학교 학장에 스위스 법계사 주지 무진 스님을, 학감에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을 임명한 바 있다.

국제불교학교는 비구니스님 대상의 2년제 전문 영어 교육기관이다. 국제불교학교를 수료한 스님은 능한 수준이다. 10년 이상의 비구니 스님들로 모두 국제포교의 원력과 신심이 남다르다"고 말했다.

국제불교학교는 "영어로 법회와 법문이 가능한 수준을 만들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전법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설립됐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국제불교학교 학인스님들의 교육비를, 화운사는 생활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국제불교학교에서 학인스님들은 새벽예불과 아침공양을 마치면 오전 영어 수업, 오후 불교교리와 선무도 활동, 저녁 영어일기 쓰기, BBC CNN 등 해외 뉴스 청취 등 종일을 영어 능력 향상에 쏟는다. 온전한 학습을 위해 의사소통은 영어로만 한다. 우리말이 가능한 시간은 오직 '예불' 시간 뿐이다.

국제불교학교는 5학기로 운영된다. 한학기는 10주이다. 1주간 휴식기를 마치면 바로 다음 학기가 시작된다. 5학기째에는 6주간 미국 등 해외 현지 연수를 떠난다.

자우 스님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조화롭게 한국불교를 알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교육도량 거듭날 터"

용인 화운사 주지 도 현 스님



"용인 화운사는 교육도량입니다. 강원이 사라지고 선원만 운영됐지만 국제불교학교를 통해 화운사의 교육도량으로서의 면모가 일신되길 기원합니다."

용인 화운사 주지 도현 스님(사진)은 16일 국제불교학교 개원 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젊은 시절 화운사 강원에서 부처님 법을 깨우쳤던 주지 도현 스님에게는 지명 노스님이 열었던 강원에의 향수가 남아 있던 차, 교육원의 국제불교학교 개원 제의는 줄탁동시와 같은 기연(機緣)이었다.

도현 스님은 망설임 없이 국제불교학교 유치를 결심했다. 넉넉지 않은 절살림이었지만 국제불교학교에서 공부할 후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제불교학교 교사(校舍)로 사용될 능인선원의 리모델링 비용 4억원도 도현 스님의 원력이 있어 가능했다.

도현 스님은 1년 여 전부터 화운사 주지 소임을 살았다. 화운사 주지소임 전까지 스님은 22년을 강원도 홍천 산골에서 수행만 하던 산승이었다.

산에서만 살던 스님은 마을로 내려와서 많은 것을 바꿨다. 화운사의 교육도량 전통과 용인 동백지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서예교실, 요가법회 등을 열었다. 템플스테이 사찰로도 지정됐다. 특히 2010년 4월 시작한 어린이 영어법회 담마스쿨은 인근 주민들의 호응이 크다.

도현 스님은 "교육에 남다른 뜻을 가졌던 지명 노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그 뜻을 살리려 했던 것 뿐"이라며 "국제불교학교의 화운사 개원은 시절인연이 닿았을 뿐으로 노스님들의 교육원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김영국 칼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정신병 소리 듣는 종교

조용기 목사가 "일본 지진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씨는 "정신병자들이 목사질을 하고 자빠졌다"고 비난했다.

종교인들은 이렇게 권력과 부를 가지면 잔인해지고 뻔뻔해지는 모양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도 가톨릭 교회가 부자가 된 뒤 현실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떤가?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살생과 투쟁으로 얼룩진 것이 종교의 역사다. 너무나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종교인들이 각성해야 한다. 자성과 쇄신 결사가 이러한 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장스님의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의 자성과 쇄신 결사는 그들만의 잔치, 정확히 이야기하면 종단 지도부만의 잔치로 이어질 뿐 큰 반향을 일으킬 조짐이 보이지를 않는다. "권력과 외부를 향한 의존을 과감히 없애고, 자성을 바탕으로 한국불교가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근래에 보기 드문 불교자주선언이 왜 중생들의 귀에 와 닿지 않을까?

방장스님 말씀대로 불교가 자성을 외치고 있지만 아무도 자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1600년 전통을 못지킨 조계종이 유사정치집단이 되고 있다"고 각성을 촉구해도 정작 자성을 해야 할 종단의 지도부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횡령', '권력과의 유착', '금권선거', '해외원정도박', '은처승문제', '계파야합', '나눠먹기'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언론에서 거론됐던 불교관련 뉴스의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에 관련된 이들은 종단에서 방귀깨나 뀐다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닭벼슬들 아닌가?

온갖 부정과 비리는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이에 대해 한마디 반성도 없이 묵묵히 수행과 포교, 사회봉사에 자신을 돌볼 틈조차 없는 1만4000명의 스님들에게 "자성과 쇄신"을 하고 "5대 결사"를 하라고 외치니 이 또한 정신병자 소리를 들을 일이 아닌가!

처음 출가를 한 이가 배우는 야운 스님의 '자경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관익대자심익소, 도익고자의익비(官益大者心益小, 道益高者意益卑). 그런데 부자가 된 종교인들은 뜻을 낮추기는 커녕 점점 더 콧등만 높아가서 대중들과 신도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황당한 세태이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해 화합"

조계종 선암사 신임 주지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



조계종과 태고종이 공동으로 순천 선암사 재산관리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을 조계종 순천 선암사 주지로 임명했다. 노덕현 기자

"즉자적 대응보다 실천"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2기 의장 만초 스님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는 3월 14일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의장에 만초 스님(울산 해남사 주지)을 선출했다. 부의장은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 선오 스님(대전 만불선원 주지), 사무총장은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이 선출됐다. 박기범 기자

조계종, 불교수목원 건립한다

환경위원회 회의서… 수덕사 관심 보여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11년 수목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 등 생태환경 전문가들의 잇따른 제안에 따른 것이다.(본지 2월 16일 823호 특별기고)

환경위원회는 이날 불교수목원 설립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병인 교수를, 위원으로 성효 스님과 윤여창 교수를 위촉했다.

준비위원회는 수목원 건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일반 수목원 탐방 및 건립 예상지 조사와 워크샵과 토론회 등을 통해 운영방안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수목원 건립 전 생태교육 및 명상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3월 26일 국공립 수목원을 탐방한다. 이날 탐방에는 이날 탐방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해당 지역 교구본사 주지 스님, 종회의원 스님 등이 대거 참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불교수목원의 최적지로는 수도권 당일 접근성을 갖춘 충남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3월 8일 임명식에서 사찰생태연구소에 기금을 전달한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불교수목원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단

△한문불전: 인해(前 동국대 외래교수)·원법(성균관대 박사) 스님 △초기불교: 각묵(실상사 화엄학림 교수)·일중(석남사 비구니선원) 스님 △대승불교: 현석(해인사승가대 교수)·법상(前 동국대 외래교수)·태경(홍익대 대학원 외래교수) 스님 △선불교: 월호(쌍계사 승가대 교수)·신공(동국대 외래교수)·금강(미황사 주지)·정운(동국대 외래교수)·영석(동국대 외래교수) 스님 △계율·불교윤리: 지관(前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적멸(前 동국대 외래교수)·자현(동국대 외래교수)·벽공(前 봉녕사승가대 교수) 스님 △응용불교: 정각(동국대 겸임교수)·명법(서울대 외래교수)·오인(동국대 겸임교수) 스님.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봉 용화계단 보살계 수계 대법회 행

귀의 삼보하옵고!
본종은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삼사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함을 제방에 고합니다.

삼 사 (三師)

전계대화상 : 종 정 자 봉
교수아사리 : 총무원장 해 월
갈마아사리 : 종회의장 천 웅

◑ 행사일자 : 불기 2555년 4월 10일(일) 11시 (음 3.8)
◑ 장 소 : 총본산 쌍미륵사 용화전 및 경내
(불교TV 방영, 2부행사로 산사음악회가 이어 집니다)
◑ 문 의 : 총무원 ☎ 031)677-9950~1 / 국장 010-2888-8245

전종도님들은 해당 사암별로 문의 및 접수 바랍니다.

(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

임원공고 및 입종안내

종 정 : 자 봉 총무원장 : 해 월

▣ 총 무 원
총무부원장 : 도 일 총무부장 : 대 광
사정원장 : 인 산 교무부장 : 성 운
포교원장 : 각 정 포교부장 : 선 명
교육원장 : 일 공 교육부장 : 혜 각
참선원장 : 소 운 재무부장 : 선 혜
홍보원장 : 해 암 홍보부장 : 법 성
연구원장 : 보 월 연구부장 : 선 경
역경원장 : 관 도 역경부장 : 법 화
참선부원장 : 선 담 사회부장 : 법 산
문화부장 : 법 연
복지부장 : 지 공
호법부장 : 선 우

▣ 지방교구 종무원
서울종무원장 : 지 선
부산종무원장 : 혜 명
대구종무원장 : 강 명
인천종무원장 : 원 각
대전종무원장 : 송 암
울산종무원장 : 석 천
광주전남종무원장 : 성 운
경기북부종무원장 : 성 상
강원종무원장 : 불 통
경남종무원장 : 일 공
충남종무원장 : 경 천
충북종무원장 : 강 월

▣ 중앙종회
중앙종회의장 : 천 웅
중앙종회부의장 : 경 천

입종안내 및 문의
미륵세존을 주불로 십선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도의를 앙양하고 사회복지를 개척함으로써
지상천국 용화세계를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법사,포교사)을 모십니다.

◐ 총 무 원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33-1 전화 031)677-9950~1, 팩스 031)677-9953
◐ 법상종 홈페이지 : www.bsj.or.kr 총무원 이메일 : bsj9950@paran.com

(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심지 해월

신심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인재불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인재를 육성하거나 유입된 인재를 잘 유지하고 재교육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불교계에서는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도 턱없이 부족하고,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도 낮은 상황이다.

#인재를 키워라…

학창 시절 이웃 종교로 개종해서야

현재 불교계에는 동국대, 위덕대, 금강대, 중앙승가대 등 4개 종립대학이 인재양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008년 문광부가 발표한 '한국의 종교별 현황'에 따르면 개신교가 설립한 대학은 49개, 천주교는 12개. 유치원 · 초 · 중 · 고교 및 특수학교 현황을 살펴봐도 개신교는 285개, 천주교 211개, 불교는 133개에 불과하다.

이 조사에서 불교계 교육기관은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에 한 곳 뿐이며 대부분이 서울, 경기, 부산에 편중돼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는 개신교가 21곳, 천주교가 8곳을 운영 중이나 불교는 한 곳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종립교육기관 확충이 개신교의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학창시절이 평생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종립 교육기관 부족은 인재 양성의 걸림돌일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하루의 절반 이상을 활동하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웃 종교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교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스님은 인덕원이 위치하고 있는 은평구에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을 설립,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성준장학재단 등 많은 장학재단들이 설립돼 불교계 우수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은정문화재단의 이사 성효 스님은 "교육불사는 매우 절실한 부분임에도 이웃 종교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다. 해방기에 급격히 늘어난 이웃종교의 학교법인이 현재의 결과를 낳았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 각 세대별 콘텐츠 개발과 직접적인 장학 수혜 등 교육불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를 잡아라…

턱 없이 낮은 임금이 발목 잡아

불교계의 젊은 인재 영입과 육성의 최대 걸림돌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이다. 임금개선을 요구할 경우 신심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특수성도 젊은 인재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단의 활동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불교NGO에는 20~30대 활동가나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감시와 견제가 없는 권력은 더딘 발전을 보이면서 쇠퇴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불교NGO들은 내규에 따른 명확한 임금 규정 체계가 미흡하고 임금 수준이 낮아 젊은 인재영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정도만이 구체화된 임금 체계와 규정을 갖고 있다. 재가연대는 대졸 초임 간사의 경우 월130만원 선에서 급여가 결정된다. 이는 일반적인 불교NGO들의 간사 초임 임금보다 30~40만원 가량 높은 수준이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알려진 아름다운재단과도 비슷한 규모다. 재가연대는 이밖에도 가족수당과 호봉제를 시행하면서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각 사찰의 종무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주요사찰을 제외한 일선 사찰의 이들은 대부분 4대 보험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조계종이 '나눔결사'를 실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불교계에서는 말사 종무원들의 처우 개선 등 내부의 '나눔' 문제도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신심을 바탕으로 불교계에서 오래 활동한 인재들조차 떠나게 만들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다년간 활동을 해도 결혼과 출산을 앞두면 재정적 현실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불교계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은 "근로여건 개선 등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젊은 인재들이 불교계에 오지 않을 것이다. 임금이 아니어도 불교계가 가진 복지, 교육 등의 콘텐츠를 활용해 젊은 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 노덕현 기자

NGO단체, 각 사찰 사람 못구해
적정임금·근로환경부터 정비해야

"불교, 삶의 현장서 모범 보여야"

윤 승 용 소장, 불교의 생활화·대중화 주장



"불교교리 · 간화선만으로 대중에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승속이 협력해 삶의 현장에서 모범을 보이는 간접포교 방식으로 불교의 생활화, 불교 생활공동체를 확산시켜야 한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3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개소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사회의 종교 흐름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윤승용 소장은 시대정신에 맞는 불교적 사회담론과 전문인력 및 대중조직 확보 등을 강조했다.

윤 소장은 "시대정신에 맞는 불교가 돼야 한다. 불교가 지속적으로 근대화를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한반도 평화를 기원합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3월 18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화해와 공존을 위한 평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가한 황금빛(27)씨가 "평화를 기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평화나무'에 매달고 있다. 박기범 기자

특별기고

인재불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존재자)은 어느 것이나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존재가 가능하다. 선하고 의미있는 존재자의 이유만으로 존재가 가능하지는 않다. 불교도 예외가 아니다. 인도불교와 고려불교를 보라. 다르마의 수승함만으로 존재가 가능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존재자의 이유는 현실계에서는 '세력'이며, 이것은 '포교'에 의해서, 포교는 '교육'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에 대하여 만해는 〈조선불교유신론〉(1910)에서 이렇게 갈파하고 있다.

"조선불교의 유린은 세력이 부진한 것이 원인이다. 세력이 부진한 것은 포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종교의 의무이며, 또한 세력이다. 그리고 발전의 원천이기도 하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교화(敎化)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교육적인 방법으로 포교에 연결 짓는 것을 일컫는다.

한국불교의 중흥(세력)은 포교와 교육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략적 귀결은 교육인 것이다.

이렇기에 한국불교 중흥의 조건을 단 하나만 들라면 필시 교육 곧 인재불사를 들 수밖에 없다. 이 교육의 대상에는 불교교단 전체를 의미하는 화합중(和合衆)으로서의 승가(출가자와 재가자)는 물론이고, 일반시민들까지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재가자교육과 관련하여 유아 - 아동 - 청소년 - 대학생 - 청년 등의 차세대교육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오늘날의 우리 불교는 차세대에 대한 교육과 포교가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은 매우 뼈저린 성찰을 요구한다.

법등을 밝히고 있는 이 땅의 사찰에서 불교유치(아)원은 있는 곳도 사라져 가고 있다. 인구 50만의 중형도시에도 불교유치(아)원은 한두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불교학교를 운영하는 도량은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 불교학생회와 불교대학생회와 불교청년회는 또 어떠한가? 주지스님의 자애심과 관심아래 정기법회를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조직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차세대조직은 희유하게 관찰되고 있다. 이 점이 한국불교의 가장 심각한 고민이라고 하겠다.

이 절박한 고민을 풀어갈 인재불사의 전략적 방향으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정확한 통계확보에 기초한 정책수립이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중심으로 차세대조직과 이들에 대한 교육현황을 매년 또는 격년으로 파악하고, 차세대 인재불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교구본사와 말사에 대한 평가에 인재불사 항목을 비중 있게 취급하고, 주지스님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차세대 인재불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중앙에만 의지하지 말고 교구본사별로 인재불사기금을 확충해야 한다. 교구별로 특색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차세대 인재불사 외에도 우리 사회를 리딩해 나가는 불자 전문리더그룹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해 나가는 범종단적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국회의원을 위시한 정책결정체계에 불자가 적어 안타까워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속한다.

우선 현재의 불자 전문리더들을 파악하고, 네트워킹 하는 메카니즘을 만들어 템플스테이 예산 확보 운운을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지 않는 실질적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해나가야 한다.

통계 확보해 장기정책 수립
인재불사도 인사고과 도입
지역교구별 양성 기금 조성



박희택(불교아카데미 원장)

[현대불교신문사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곤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쀼출가의식,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기를 없앤 활인참선
이 생에 깨달아 성불하는 참선
제 5 차 참선대중화 선회
삼매체험 선 수련회 · 단기출가
활인선원 정진대중 하안거 · 동안거 재가자 모집
공부 힘을 얻어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산다.
모든 장애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누린다.
물만 마시고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 퇴치 · 예방가능
면역성 노화억제 해독 아토피 피부미용 생리연장 금연 금주 쾌차
부담을 없앤 단식, 금강단식.
바로 끊고 바로 먹는 뒤탈 없는 참선 단식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청소년 대학생 일반
참선대중화선회 일정 (3일간) : 4월 8일(금) ~ 10일(일)

하안거 동안거 산철결제 일정	수련회 단기출가 일정
하 안 거(음) 4월 15일 - 7월 15일(3개월)	3월 26일 ~ 3월 30일(5일간) ~ 4월 23일(30일간) / 6월 10일 ~ 6월 14일(5일간) ~ 7월 9일(30일간)
가을산철(음) 8월 1일 - 9월 30일(2개월)	4월 8일 ~ 4월 12일(5일간) ~ 5월 7일(30일간) / 7월 8일 ~ 7월 15일(8일간) 7월 22일 ~ 7월 26일(5일간)
동 안 거(음) 10월 15일 - 1월 15일(3개월)	5월 13일 ~ 5월 17일(5일간) ~ 6월 11일(30일간) / 7월 29일 ~ 8월 5일(8일간) 8월 9일 ~ 8월 13일(5일간) ~ 9월 10일(30일간)
봄 산 철(음) 2월 1일 - 3월 30일(2개월)	

참선전문도량 행복제작소 안성맞춤 활 인 선 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 ☎ 1644-5266 / 070-7519-9929
네이버 카페 ▼ 활인선원

일 주 문



영담 스님 겨레의숲 대표 선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3월 17일 북한산림녹화지원민간단체인 '겨레의 숲' 제5차 정기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은해사 합동방생법회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3월 13일 본말사 스님, 신도 2000여 명과 함께 해남 대흥사에서 합동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사 불교기자학교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3월 31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6시부터 12회에 걸쳐 조계사 불교기자학교를 개최한다.



상도선원 2주년 봉헌법회
서울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3월 20일 상도선원 개원 2주년을 맞아 봉헌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장 지만 스님
부산 약수정사 주지 지만 스님은 3월 11일 부산 온천장 더파티뷔페에서 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장에 취임했다.



서울 명락사 36주년 기념법회
서울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은 3월 13일 명락사 3층 법당에서 창립 3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불레협 제6회 찬불율동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6회 찬불율동제를 개최한다. (02)738-7860



동국대 김희옥 총장, '청조 근정훈장' 수상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3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청조 근정훈장'을 서훈받았다.



부산 불교여성개발원 김수현 이사장
김수현 사회복지법인 선양 이사장은 3월 18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신임 부산지원장으로 취임했다.



체육인불자聯, 불자체육인장학금 전달
이기흥 체육인불자연합회장은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유도의 김효준 선수 등 10명에게 불자체육인선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젊은 불교, 청년들 모여라

청년공동체 YOUNG108 김 도 윤 초대회장



"청년 불자들은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가치창조를 통한 사회참여를 해야 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 부속기관인 'Young 108' 초대회장에 2월 26일 창립총회에서 김도윤 씨를 선임했다.

김도윤 회장(사진)은 취임 소감에서 "청년 불자들과 함께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는 이데올로기를 찾고 의식 있는 젊은이로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Young 108은 올해 취임한 불교여성개발원 김애주 원장이 청년 불자 발굴, 지도자 창출 및 양성을 목표로 구성한 청년 공동체다. 20~40세 청년 불자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젊은 불자들 간 생각을 나누고 결속력을 다지게 된다.

회원들은 사회과학, 경영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문화, 예술 등 분야별 인재들이 각계 자문위원으로부터 멘토를 받고, 자문위원들의 강연 및 세미나, 팀원 및 자문위원의 멘토링, 동기간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경쟁력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활동한다. 불자로서 불교철학에 대한 스터디는 물론 명상 수행, 봉사활동 등을 통해 영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로서 되기 위한 수행과 봉사활동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지도자로서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를 양성하게 된다.

김도윤 회장은 Young 108의 이상적인 방향에 대해서 "불심이 깊은 각 분야의 차세대 리더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좁게는 한국불교문화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넓게는 우리 사회가 더불어 나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여 이를 전파, 실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유대교의 탈무드는 종교신념을 초월하여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필독서가 된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불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콘텐츠 개발을 우선 추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회장은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나 이벤트 기획이 아닌, 콘텐츠 생산을 위한 체계를 먼저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최근에는 Young108 네이버 카페에서는 해외입양이나 노숙인 등에 관한 논의의 장도 펼쳐봤다. 하지만 회원 중에는 "이렇게 젊은 불자들이 모인 것만으로도 대단하니,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친목도모를 서둘러야 한다"며 무겁고 딱딱한, 어려운 주제라서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데올로기나 노블레스 오블리주 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에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김도윤 회장은 이럴 때 마다 '20~40대 연령층의 젊은 불자들을 모아, 서로 도반이 되어 진리를 터득하게 하고,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로 발굴 · 육성한다' 는 창립취지를 되새긴다.

"자칫 무겁다고 느낄 수 있는 주제에 관해서도, 만약 자신이나 주변에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 겪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정서적 온도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이가 많다고 해서 불교가 젊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교 자체가 젊어져야 한다. 김 회장은 "젊은 불자들이 없는 것 같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불교를 주제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단지 그들에게 함께 고민할 화두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청년 불자들에게 화두를 제시해야한다. 화두가 젊은 불교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저는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하게 Young 108 회원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한 명의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열정적이고 독창적인 음색이 아름다운 108 하모니를 이루어 우리 사회를,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언 기자

대원외국어고 서반아어과 졸업
고려대 경영대학 졸업, 경영학사 (94학번)
삼성전자(주) 인사그룹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중퇴
삼원실업(주) 전략기획실 실장
발간시집 Cult (1995년), Jukebox (1998년)
ISO/IEC 15504 국제표준 예비심사원
YNC(Young Noblian Club) 회장
고려대 교우회 상임이사

"브리야트불교, 한국불교 교류 절실해요"



"한국불교의 승가교육제도와 불교 미디어 · 언론 및 수행환경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브리야트 불교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 방문했습니다. 한국과 브리야트의 불교교류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브리야트 자치공화국의 에시에프 세르게이 리그젠 라마 (사진 · Eshiyev Sergey Rigzen lama · 38)가 한국불교와 공식 교류를 희망하며 3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조계종의 공식초청을 받지 않고 인사차 총무원을 들른 것이라 조계종 스님들과의 교류는 없었지만, 리그젠 라마의 방문이 향후 러시아 내 자치국들과 한국불교간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브리야트 공화국은 44만 여 인구가 사는 나라로 전체인구의 70%가 티베트 게룩투 종파의 라마불교 불자인 불교국가다.

리그젠 라마는 브리야트 공화국 불교연합(Union of Buddhist of Buryat Republic)의 부회장으로 현재 브리야트에 사찰(Ivolginsky Dachan)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한국불교교단이 체계적인 승가제도와 수행 프로그램, 교육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접하고 한국불교와의 교류가 시급함을 깨닫고 칼미크, 투바 등 주변 자치공화국의 불교계와 협회 결성도 추진하고 있다.

리그젠 라마는 "브리야트에서도 한국기독교 단체들의 몰지각한 선교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부국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브리야트 불교는 샤머니즘과 자연종교적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 브리야트 정부가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영적 수행과는 멀어지고 있다"며 "국력과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영적 수행이 없으면 안된다. 브리야트 불교의 발전과 러시아 불교 등의 부흥을 위해 한국과의 교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브리야트는 남시베리아 바이칼호수 주변에 위치한 곳으로 남쪽으로 샤이안 산맥을 두고 몽골과 접해있다. 주요종교는 라마불교와 샤머니즘이다. 이나은 기자

동국대 경주캠, 일념장학금 전달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는 3월 15일 교내 100주년기념관에서 일념장학회(이사장 이영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일념장학회 장학금은 불교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일념장학회가 조계종 총무원, 통도사, 불광사, 내원정사, 운문사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 ·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이날 22명의 학생에게 총 22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영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했던 경봉 스님의 가르침과 뜻을 받들어 불교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왔다. 장학수혜자 여러분은 학업에 더욱 매진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훌륭한 인재가 되어 국가와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안정불교대학, 제 1회 졸업식 개최



태고종 청련사 안정불교대학이 첫 번째 졸업생 54명을 배출했다.

양주 청련사 안정불교대학(학장 백우)은 3월 14일 청련사 대적광전에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안정불교대학 졸업식 및 2011학년도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 태고종 종회의장 자월 스님 등 전현직 태고종 주요 소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안정불교대학은 청련사를 본교로 2009년 설립돼 대구와 광주에 분교를 두고, 2년 과정의 범음범패반과 경전강의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첫 졸업 ·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35명이 새로이 입학해 기쁨을 더했다.

안정불교대학장 백우 스님은 "옛말에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人不學不知道)고 했다"며 "진정한 도의 이치를 배우고 닦아 인격완성을 통해 불자로서 사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평화 · 남북통일기원 · 국가발전 · 가정만복기원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

승왕청 임명식 및 스리랑카 불치사 부처님 사리 이운 대법회

세계 고승과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석인왕 큰스님께서 증명하시고 전계함으로써 수승한 인연을 맺고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중흥을 위한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 및 [불치사 부처님 사리 이운]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본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에서는 해동신라의 원효 성사가 경찬하신 묘법의 현의와 고려 제관법사가 전하신 법화의 종지를 계승하여 의천대각국사께서 수립하신 천태종을 정통 종문을 계승하여 현재에 이르러 인왕 큰스님을 종정으로 전통적인 계법을 이어받았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여러 종도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석 인 왕 큰스님 / 스리랑카 시암종 종정 아시기리 큰스님 /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큰스님 / 태국 제 카타펀노 큰스님 / 스리랑카 아마라푸라 쇼바 큰스님

▣ 1부 (오전 11시)
– 승왕청 임명식 및 스리랑카 불치사 부처님 사리 이운 대법회
▣ 2부 (오후 13:30시)
– 세계고승원돈국제보살대계

1. 일시 : 불기 2555년 음 3월 7일 (양 4월 9일) 토요일
2. 장소 : 총본산 금강 대약사사
3. 문의 : 총무원 금강대약사사 : TEL 043)731_2261
본산 성남 약사사 : TEL 031)734_3205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 세계불교승왕청
총무원 대약사사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번지
TEL : 043) 731-2261 FAX : 043) 731-6453 회주 : 043) 731-6454
본산약사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 2동 산 7번지
TEL : 031) 734-3205 FAX : 043) 735-3374 회주 : 031) 747-8303

조계종, 민간 최초 구호 시작

조계종 구호팀 선발대… 추가 피해 우려 불구 센다이시 진입, 한일 공동 49재 등 논의

조계종이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구호팀 선발진을 3월 15일 급파했다. 사회국장 묘장 스님을 팀장으로 하는 조계종 긴급 구호활동팀 선발진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조계종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호 활동 파악에 나선다.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폭발 위험과 잇따른 여진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선발진은 18일 오전 센다이시로 진입했다. 센다이시 주민들은 계속 안전한 곳을 찾아 도시를 떠나고 있고, 취재 기자들마저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 3월 15일 –
위험한 상황 불구 일본행 비행기 탑승

조계종 긴급 구호팀 선발진은 팀장을 맡고 있는 사회국장 묘장 스님 이외에 이용권 서호노인복지관 관장, 이운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과장, 권성행 총무원 사회부 주임, 유정석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문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이티 대지진 등 해외긴급재난구호활동 경험이 많고 통역 및 현지 가이드가 가능하다.

조계종 긴급 구호팀 선발진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저녁 6시 50분 비행기로 일본으로 출국한 선발진은 4박 5일간 피해지역인 이바라키현 현장조사를 통해 현지상황을 파악하고, 필요물품과 의료지원, 인력투입 등 효과적인 본진 파견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 3월 16일 – 일본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

16일 오전 선발진은 두 팀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후생성 산하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고, 주일한국대사관 구호단체회의에 참석해 구호활동을 위한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오후에는 이바카리현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 3월 17일 – 위험지역 센다이시로 출발

일본에서도 센다이시는 원전 폭발과 대규모 쓰나미, 폭설, 여진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그만큼 추가 위험도 높지만 선발진은 이런 위험 속에서도 17일 오전 센다이시를 향해 출발했다. 당초 차량 렌트를 통해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여진과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 현지 안내인과 운전기사가 동행을 거부하면서 도쿄에서 기차를 이용해 니카타현으로 이동 후 다시 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센다이시로 진입하기로 했다.



조계종 구호팀 선발진이 발대식에서 일본 희생자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선발진은 최대 피해지역의 현지 조사가 있어야 제대로 된 구호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센다이시 진입을 결정했다.

#3월 18일 –
민간단체 최초로 구호활동 시작

선발진 5명은 18일 오전 최대 피해지역인 센다이시에서의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선발진은 휴대한 모든 식료품과 방한물품을 이재민들에게 모두 전달했다. 오후에는 재난대책본부를 찾아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49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기범 기자

“사람 미워할 순 없다”
정신대 할머니들 자비


사진제공=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 역사 이래 최대의 피해로 꼽히는 이번 대지진에 대해 불교계가 애도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특히 3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마련한 수요 집회에 참석한 나눔의 집 등 정신대 할머니들조차 일본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3월 16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 집회는 평소와 달리 애도의 뜻을 담은 침묵시위로 진행됐다. 이 날 길원옥 할머니는 “죄는 밉지만 사람은 밉지 않다. 일본인들이 힘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등 각 종단과 단체들도 애도논평을 발표했다. 조동섭 · 박기범 기자

“일본을 돕자” 불교계 한마음 · 한 뜻

아름다운 동행 등 모금 나서

조계종 총무원이 3월 11일 긴급 애도문 발표에 이어 자원봉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조계사(주지 토진)는 15일 일본 지진 · 해일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함을 설치하고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조계사는 이날 모금에 앞서 지진 · 해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타종과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모금운동에는 출가 열반절을 맞아 ‘문화결사’를 주제로 열린 신도 대중공사에서 법문한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과 포교부장 계성 스님, 조계사 부주지 도문 스님 등 30여 스님을 시작으로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일본 지진 피해자 돕기 모금운동으로 모인 성금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된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네이버 해피빈과 각 사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고통은 나누면 덜해진다”며 “일본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 301-0029-6115-7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로터스 월드도 일본 대지진 피해 구호를 위한 모금 활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로터스 월드는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한 대진진과 쓰나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일본에 긴급 구호 모금을 통해 구호물자 및 기금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불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02)725-4277 신한은행: 100 021 108016 예금주: 로터스월드


불자들이 조계사에 마련된 모금함에 성금을 넣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혜정)도 대한불교진각종과 연대한 모금 활동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재단측은 성금전액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자 구호를 위한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02)942-0144 농협: 024-01-040251 예금주: 진각복지재단

한편, 동국대(김희옥 총장)는 대학 최초로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김희옥 총장과 학생들은 16일 동국대 교정 등에서 무기한으로 모금을 시작했다.

지관 스님도 18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각 사찰의 지원금 전달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기범 · 노덕현 기자

특별기고–일본 도쿄에서

아톰, 마징가 제트, 건담은 어디갔나요

여진 그치지 않아 여전히 위험 상태
과학기술맹신주의 돌아봐야 할 때

지금 일본의 모든 종교단체들과 TV, 사회단체들 모두가 이 참담한 재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05명의 119구조대를 시작으로 독일, 뉴질랜드, 중국 등 세계의 도처에서 많은 구조단들이 속속 도착하여 구조활동을 전개하려 하고 있고,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하여 한국정부와 수많은 사회단체들도 대대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대해 미운감정을 갖고 있던 나라들도 마음을 바꾸어 모두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재난구호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행정적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오로지 핵발전소 사고의 해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호단들이 본격적인 재난복구활동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파괴된 도시에서 그나마 살아있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인명구호 활동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만 치중할 뿐입니다.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구호활동도 재난복구활동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호기, 1호기에 이어 사용 후 핵연료를 넣는 4호기가 폭발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민을 상대로 하여 전후 최초로 계획정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전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는 신호등도 들어오지 않아 경찰들이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동안 2~3분에 한번씩 다니는 동경의 중요 전철인 야마노테선도 30분에 한번씩 밖에 안다닙니다. 곳곳에 전철 운행이 되지 않아 출근도 통학도 어렵고 산업활동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원자력 발전사고로 인한 방사능피해입니다.

정부의 통제능력을 제발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아직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천황이 재난의 피해자들을 위한 애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핵발전소사고에 대한 설명과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를 대비한 국민들의 대응수칙을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과 세계를 구할 우주소년 아톰, 철인 28호, 마징가제트, 건담은 어디갔나요? 과학기술에 관한한 세계적인 첨단을 달리는 나라가 이렇게 자연재해에 왜 이리 무력할까요? 오늘날 문명 발전의 토대가 된 전력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일본의 50여기 핵발전소는 충분히 관리통제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을 해왔던 원자력산업이었습니다. 스리마일섬 사건과 체르노빌사건으로 숨죽였던 그들이 온난화 위기가 닥치자 과거의 모든 사건사고를 잊으라며 그것을 녹색기술 청정기술로 둔갑시켜 기세를 부리던 것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거짓입니다. 일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과학기술로 자연을 제압할 수 있다는 인간생각은 큰 오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이 거대한 과학기술을 철석같이 신뢰하며 만드는 우리나라의 4대강개발은 오만한 인간의 자연개조의 상징이 될 것임을 언제쯤 깨우칠 수 있을까요

일본은 과학기술은 지금까지 지진이라는 자연적 위기에는 잘 대응해왔습니다. 그러나 쓰나미라는 또 하나의 자연의 힘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핵발전소사고에 대해서는 더욱 더 속수무책입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 16일 밤 10시 45분, 동경의 동쪽 치바현에서 발생한 5.3의 지진으로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흔들리는 것은 원자력발전산업이며 과학기술맹신주의입니다.

하루가 1년 같은 지금이지만 이 재난 속에도 결국 우뚝 일어날 일본국민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세계의 선한 양심들의 노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로 부터 빨리 일본을 떠나라는 전화를 받고 있지만, 이 위기를 박차고 일어나는 세계사적 현장을 대면하며 함께하는 기회를 놓칠수 없지요.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즐겨 사용하는 이 말을 그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일본 국민들이여, 간밧데 구다사이 (かんばってください 끝까지 힘써주십시오) 센다이 갈 준비하며. 3월 16일 밤 11시


유정길 (에코붓다 공동대표)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승하강 장치인 천상열차는 찬덕불교가 신개념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하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하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수좌스님들 장기기증 '활발'



설정 스님 의정 스님

"스님들이 죽어서 육신을 불자들에게 회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 죽을 때 몸과 재산을 모두 회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덕사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어떠한 존재도 내 생명이 아닌 것이 없다. 내 생명처럼 지극하게 모시고 섬기는 실천 방법의 하나가 장기기증이고 생명나눔이다." (선원수좌회 복지위원장 의정 스님)

조계종 수좌스님들이 앞장서서 장기기증 운동에 열띤 홍보와 실천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를 통해 뇌사시 장기, 사후 각막과 시신기증에 동의한바 있는 설정 스님이 최근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의정 스님(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장)은 3월 5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신청서에 서명하고 뇌사시 장기기증과 사후 각막기증을 서약했다.

설정 스님은 아직 스님들의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신 전체를 기증한 스님의 모습은 불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스님은 자신만큼 타인의 생명도 중요하고, 우주 전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며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정 스님은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불자들의 의무이며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장기기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국 생명의 소중함과 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율도 불살생이며 장기 기증 실천이 부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설정 스님에게 일본 대지진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참상이었다. 스님은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일본 대지진에 대해 '겁탁'의 절정이라며 불자들이 국가를 뛰어 넘어 인류애를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기증 활성화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며 스님들의 동참도 더 많은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님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출재가자들 모두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승속 모두 육신에 집착하는 경향이 크다. 버리게 될 몸이 다른 생명에게 도움이 된다면 소중한 일이다."

설정 스님은 입적한 출가자들의 수의나 사찰의 각 종 행사 때 전달되는 꽃다발 대신 그 비용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지시한다. 스님들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듯 외형적인 호화스러움을 줄여야하며 검소한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겸손, 하심, 검소해야 할 종교인들이 요즘 너무 부티를 내고 있다. 내가 입적하면 가사장삼은 태우고, 장기는 지체없이 기증하라고 했다. 장기기증은 불교가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전국선원수좌회가 발간한 조계종 선원청규 편찬위원장이기도 한 의정 스님도 선원청규 실천의지를 담아 장기기증에 동참했다.

의정 스님은 "청규를 만들면서 21세기에 맞는 청규를 만들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 청규에 이 시대에 맞는 생명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게 되면서 장기기증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박기범 ·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사진 좌)이 캠페인에 참석해 재가자들에게 직접 동참 서약을 받고 있다.

의정 스님은 3월 5일 재현 스님(양평 상원사 주지)을 비롯해 봉선사 스님들과 양평 상원사 신도, 김포중증장애인요양시설 가연마을(관장 재현 스님) 직원 등 25명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신청서도 함께 전달했다.

의정 스님은 제방선원의 스님들이 생명나눔에 동참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선원수좌회에서는 선원장들이 먼저 장기기증에 동참하고 주변으로 확대해 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수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일반 신도들과 국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운경문도회 문장으로서 문도 스님들에게도 권유해 곧 동참자들이 장기기증에 서약해 보내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기범 · 이나은 기자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발 만져도 기 뺏기지 않아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엄지회' 박 종 진 씨



2000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발반사 교육이 개설되자 박종진(54 · 사진)씨는 가족들에게 해줄 요량으로 수강신청을 한다. 이 교육에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에서의 봉사활동이 필수로 포함돼 있었다.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봉사활동이 어느 새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교육 과정에는 한 달에 2번 봉사활동에 참석하게 돼 있지만 박종진씨는 발반사 봉사활동에 큰 보람을 느끼면서 처음부터 매주 참석했다.

"중증 장애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보람을 느껴요. 발반사를 받으신 분들이 흐뭇해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박종진씨는 교육 과정 상 처음 봉사활동에 참석했을 때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들기만 했다. 마사지를 받는 분이 아프다고 하면 당황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노하우가 생겨 마사지 대상자들과 일상 문제에 대한 상담까지 해주고 있다. 중증 장애인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건강까지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발반사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해요. 중증 장애인분들이 일상의 문제로 이것저것 묻기도 하시거든요. 단순한 봉사뿐만 아니라 상담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가까워지기도 해요."

박 씨는 현재 5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팀 '엄지회'에서 활동 중이다. 처음에는 8명이 함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몇 몇 봉사자들이 팀을 떠났다. 각 종 봉사활동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발반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다. 봉사자들이 '기를 뺏긴다'는 인식이 아직도 강하고, 남의 발을 만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반사 봉사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박종진씨는 10년 이상 활동해 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도 제가 건강한 편이예요. 발반사 봉사활동이 참 좋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도 박 씨가 봉사활동 참여 후 여유로워졌다며 박종진씨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봉사활동의 보람과 함께 매주 팀원들을 만나는 것도 큰 활력이 된다. 10년 째 만나다 보니 이제는 가족 같고, 형제 같은 끈끈한 애정이 생긴 것이다. 지난해에는 봉사팀 창립 10주년을 맞아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기도 했다.

"다니던 사찰이 있는데, 거기서 부처님의 좋은 기를 받아다가 중증 장애인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발반사 봉사로 이 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불교계 복지관이다 보니 불자로서 봉사활동 하기도 마음이 편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종진씨는 봉사도 수행처럼 마음을 닦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봉사활동 초기에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은 싹 사라졌다고 한다.

박 씨의 남편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안정적으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가정에도 큰 불화가 없다. 박 씨는 이 모든 것이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것으로 믿는다. 박종진씨는 선묵 혜자 스님의 108산사 순례회에도 매주 남편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불자들이 봉사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더욱 늘어나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발반사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요."

박기범 기자

구제역 살처분, 간디는 뭐라 했을까

불교여성개발원, 구제역 관련 생명살림 위한 여성불자 토론회

"간디는 '돼지의 절규'를 다룬 영상물을 몇 초 보고나서는 금방 외면했을 것이다. 너무도 잔인해서, 그것도 부처님의 제자 일천만이 있다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 입만 열었다 하면 자비인데 '불살생은 한국문화의 어디에 있을까?' 물으면서 그는 깊이 낙담했을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이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구제역과 살처분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개최한 '생명살림을 위한 여성불자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다.

허우성 교수(경희대 철학과)는 이날 토론회에서 '간디의 송아지와 살처분'이라는 주제로 비폭력 평화운동가로 잘 알려진 간디의 예를 들어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피해와 가축전염병이 주는 의미와 불교계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성찰했다.

허 교수는 "1928년 간디는 불구가 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송아지 한 마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결국 그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독극물을 주입해 안락사 시켰다"며 "이 사건을 놓고 간디에 대한 여론은 악화됐고 간디는 '힘사(살생)'와 '아힘사(불살생)'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이어 "분노나 이기적 의도에서 생명에 고통을 야기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살생이며 순수하고 사심 없는 의도에서 영적이익이나 신체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생명체를 죽이거나 고통을 가하는 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불살생"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돼지의 절규'는 우리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생명의 먹이사슬을 다루고 있다. 한국인의 정서와 식문화 전통 때문에 당장 채식주의자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채식문화를 확산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미송 전임연구원(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 연구원)은 "우리에게 구제역 피해가 적었다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나갔을 것"이라며 "문제의식도 인간중심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희 연구위원(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은 "건강 산모 · 산부 교실운영, 친환경 농산물 조합 이용 등 여성불자들이 생명문화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민족문화실천위원회 '일파만파 실천단' 모집

중앙신도회 민족문화수호실천위원회(상임위원장 손안식)가 실천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일파만파(一波萬波) 실천단' 단원 모집에 전격 나섰다.

일파만파 실천단은 △우리동네 문화재 지킴이 및 주변청소 △해박한 문화해설사 되기 △1배 100원 보시 △실천단원 가입 인증샷 올리기 △네이버 해피빈 모으기 △ARS 후원 등을 추진한다. 1만 명 단원 모집에 나선 실천단은 3월 12일부터 조계사 앞마당에서 출가 · 열반재일 신도대중공사 정진주간(8일)동안 모금부스와 일파만파 실천단 가입 인증샷 코너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심인불교대학 <心印佛教大學>

2011년 제1기 심인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근본사상(佛教根本思想)과 대승보살(大乘菩薩)의 실천수행(實踐修行)을 기본(基本)으로 하여 즉신성불(卽身成佛)을 대원(大願)하는 **'심인불교대학' 법우(法友)를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재가불자, 법사, 비구, 비구니(승려)
교육기간	• 입학 : **2011년 4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 졸업 : **2011년 10월 2일 (일요일) 6개월 과정**
교육과목	■ 불교(佛教)란 : 근본불교(根本佛教)의 기본사상(基本思想) ■ 밀교(密教)의 삼대사상(三大思想) – 〈육대(六大), 사만(四曼), 삼밀(三密)〉 ■ 만다라(曼荼羅) 〈화엄(華嚴)사상(思想)〉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우리나라 만다라, 화엄신중, 감로만다라(탱화)〉 ▫ 불신론(佛身論) = 밀교의 삼륜신(三輪身), 현교의(三身佛) ▫ 진언과 수행(眞言과 修行) = 삼밀정진(三密精進) ▫ 진언염송(眞言念誦) = 육자대명왕진언〈옴마니반메훔〉
특별과목	• 공사상(空思想) = 空이란? • 운명과 숙명(運命과 宿命)이란? • 명상법(冥想法) = 위빠사나 수행법, 참선수행법 • 밀교(密教)의 성불론(成佛論)과 현교(顯教)의 성불론(成佛論)
교육시간	• 매주 : 일요일 오후 2시부터 ~ 오후 4시까지 2시간
교육장소	•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 법사과정 : 대학졸업자

※ 수강료 교재비 무료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심 인 불 교 대 학 무 애 정 사

문의 : 031)675-3837, 팩스 031)675-3827, H·P 011-9356-3653 (법운 합장)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88-7번지 삼현빌딩 3층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7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4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4월 15일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전국 절터 5393곳 집대성됐다

문화재청, '한국 사지 총람' 발간… '한국의 사지(서울·인천·경기편)' 도

전국의 사지 5393곳과 그 곳에 소재한 문화재에 대한 문헌 및 현재까지의 자료가 집대성됐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미등)는 최근 "〈한국 사지 총람〉과 이를 기초로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 소재 폐사지에 대한 정밀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담긴 현황보고서 〈한국의 사지(서울 · 인천 · 경기편)〉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총람에서 연구소 등은 조계종 총무원이 1997~1998년 발간한 〈불교사원지(佛教寺院址)〉에 수록한 2141개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5393개소의 사지를 조사해 수록했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481년 刊), 〈여지도서(輿地圖書)〉(1760년 刊),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攬)〉(1977년 刊)과 1990~2000년대 문화유적 분포지도(文化遺蹟分布地圖) 등 옛 문헌과 연구자료를 반영해 사지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 자리한 대표적인 폐사지인 보원사지. 보물인 5층석탑과 당간지주 등 문화유적으로 가치가 높다.

〈한국의 사지(서울 · 인천 · 경기편)〉에는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의 사지 636건에 관한 보존상태 조사, 실측과 현황도면 작성, 분포유물 조사 등을 통한 폐사지 연혁 및 사역확인, 식생, 유구 · 유물수습, GPS(위성위치 추적시스템) 좌표 기록 등 사지에 대한 정보가 수록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유구가 잘 남아 있는 사지의 경우 평판측량을 병행했고, 현재 상태에서 수목(樹木)에 의한 사지의 피해 등을 파악해 기존의 인문학적 현황 외에 처음으로 자연학적 식생현황(植生現況)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0~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의 폐사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조사 중이다. 올해는 부산 · 광주 · 전남 · 제주지역 600여 개소에 대한 폐사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총람 및 현황보고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 간행물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조동섭 기자

'화엄경문답' 저자 논란 끝나나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25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금강대(총장 조병조) 불교문화연구소는 3월 25~26일 서울 관문사에서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주제로 제5회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상현 교수(동국대)가 〈화엄경문답〉의 연구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김상현 교수는 강연에서 〈화엄경문답〉의 저자와 관련한 연구의 진전 상황을 정리하고 그 연구사와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시코 세히 교수(일본 고마자와대)의 '〈화엄경문답〉의 배자체불론의 지론종 · 삼계교의 영향' △장진영 교수(원광대)의 '〈화엄경문답〉에 나타난 일승정토사상(一乘淨土思想) 연구' 등이 발표된다.

26일에는 △김천학 교수(금강대)의 '일본화엄문헌에서의〈화엄경문답〉 인용경향' △천용꺼 교수(중국)의 '〈화엄경문답〉과 법장의 화엄경 교의학' △요시저 오시데 교수(일본 고자마와대)의 '〈화엄경문답〉에서의 성기와 연기의 비교' △최연식 교수(목포대)의 '〈화엄경문답〉의 삼승극과 회심의 사상적 의의' 등이 발표된다.

〈화엄경문답〉은 중국 법장 스님로 계속 전해져 왔으나 1985년 일본 가마다 선생이 저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이후 90년대 김상현 교수가 신라 지통 스님의 저작으로 주장한 바 있다.

천진영 기자



문화재청 모바일로 '훨훨'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우리 문화재 정보를 바로 검색 할 수 있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3월 11일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을 기념해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등 전국 문화재 1만1044건을 스마트폰 중 안드로이드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문화와 문화유산' 서비스를 개통했다.

이번에 개통된 '문화와 문화유산'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 · 전시' 서비스와 함께 제공된다.

특히 문화재 행정 50주년을 맞는 10월 2일까지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궁 · 능 촬영허가민원, 스마트폰 간행물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향후 문화재 관리대장, 공지사항 등 내부공무원을 위한 스마트 행정서비스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042)481-4760

노덕현 기자

반출된 우리문화재 14만점 일본 미국 독일 순으로 많아

해외로 반출된 한국문화재가 14만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는 최근 "2010년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실태조사결과 기존의 11만6896점에서 2만3000여 점 늘어난 14만560점이 20개국 549개 기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밝혀진 2만3000여 점은 미국 9675점, 독일 8510점, 일본 3922점, 러시아 1315점, 캐나다 241점 등이다.

연구소는 지난해 미국 98개, 독일 지역 16개 박물관 및 도서관 등 한국문화재 소장기관의 협조를 받아 한국문화재에 대한 목록 작업을 실시했다. 또, 일본 중국 등지의 한국문화재 소장 기관에 대한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소의 집계 결과,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으로 6만5000여 점이 있고, 그 다음이 미국으로 3만8000 여 점, 독일 1만 여 점 순이었다.

조동섭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무공덕(無功德)

어린 시절 삶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적덕(積德)'이라고 배웠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 덕을 쌓는 행위야말로 상대에게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안락케 하는 초석이 된다는 가르침이었다. 덕이란 주관적이다 보니 받는 쪽이 별반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부족하다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경우도 더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공덕은 언제나 어디서나 통하는 힘이요 덕행이다. 공덕이라는 말은 〈화엄경〉을 비롯한 많은 경전에서 무수히 기술돼 있다. 무제와 달마의 만남에서 공덕에 대한 내용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법정종기(傳法正宗記)〉 9권은 불일설숭(佛日契嵩, 1007~1072)이 저술했다. 내용은 불법상승의 차례를 인도로부터 시작해 동토 6조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선종전등설의 정통설을 주장할 목적으로 저술했다. 이 책 '달마장'(대정장51, p.473下), 〈벽암록〉 제1칙(대정장48, p.140下) 등에 부분적으로 인용돼 있다.

양무제가 달마에게 물었다.

"짐이 즉위한 이래로 절을 짓고 경전을 사경하고 승려를 육성한 것은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공덕이 있는 것입니까?"

달마가 말했다. "무공덕이다."

황제가 물었다.

"어째서 무공덕입니까?" 달마가 말했다.

"그것은 단지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작은 과보로서 유루복덕의 인에 불과합니다.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아서 비록 과보가 있다고 해도 진실한 과보는 없는 것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그러면 진실한 공덕은 무엇입니까?"

달마가 말했다. "청정한 지혜는 미묘하고 원만하여 그 자체가 공적합니다. 이와 같은 공덕은 세속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제의 언행에 달마는 시절인연이 닿지 않았음을 알고 갈대잎에 몸을 의탁하고 양자강을 거슬러 북위로 향했다. 후일 이 모습을 노엽달마도(蘆葉達摩圖)로 표현했다. 당시 달마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던 무제는 후일 달마의 입적 소식을 듣고 친히 달마의 비문을 지어 사모의 정을 토로했다.

여기서 달마의 무공덕(無功德)을 재음미 해 보고자 한다. 공덕은 범어로 puṇya라 한다. puṇya는 '길조'이고 '경사스럽고' '도덕적인 공로'이고 '종교적인 공적'을 뜻하는 말이다. 무공덕이란 공덕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 범어의 mū는 '침묵'이라던가 '(혀를) 묶어 놓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달마의 무공덕은 공덕이 있다던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있다', '없다'의 상대를 떠난 절대 무(無)라고 보아야 옳은 견해라고 본다. 예화를 들어보면 〈무문관〉 제1칙 조주구자(趙州狗子)에서도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납자의 질문에 조주는 무(無)라고 답한다. 이때 무는 있다던가 혹은 없다는 상대적 개념을 떠난 절대무가 아니던가. 아울러 〈화엄경〉에서 10지보살이 되면 무생심(無生心)을 얻는다고 했다. 여기서도 무생이란 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생과 사를 벗어난 절대의 진리를 말한다. 불자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산혜연선사발원문'에 "무생법인 이룬 뒤에"에서 무생법인(無生法忍)이란 불생불멸의 이치에 철저한 깨달음을 말한다.

지에밥의 고소한 맛은 혀로 느끼겠지만 이제 조주의 무나 〈화엄경〉의 무생심이나 '발원문'의 무생법인에서 보이는 무의 이해는 전신으로 체득할 일이다.

일전에 한 위정자의 기도 모습에서 느낀 바가 많았다. 달마가 무제의 위세에 위축되지 않고 늠름(凜凜)하게 법을 폈던 그 자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불교는 회오리밤 마냥 밤송이 속에 외톨로 들어 앉아 있는 밤은 아니지 않는가. 또한 지어농조(池漁籠鳥: 못 속의 물고기와 새장 속의 새)도 아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양무제가 공덕 물으니 달마 '無'라 답해 공덕 있고 없고 떠난 절대 무의 뜻 담겨

"신뢰 받고 있습니다."

– 미리 알아 먼저 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육임CD 프로그램과 육임 친견용 활용서 –

● 지난 10년에 걸쳐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간편성'이 이미 검증되어 있고, 특히 귀신 · 빌미부정 · 귀물 · 묘지탈 적시 및 그 해소 방법이 백미 입니다. 유사(類似)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 오행초보자도 즉시 자신있게 활용하여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효사 활인천역집 2011 완결 최종판 시작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 최종판 CD프로그램 – 원터치 기능에 의한 당면 정황을 미리 알아 순서대로 철저히 구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승인 없이 여러곳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정가 500만원

육임학당 효사숙 후반
제2기 육임술 개강 안내

1. 육임학당 효사숙에서는 현재 **도술반**(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과 **일반과정**(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오는 **4월1일(금요일)부터 개강하는 위 후반 제2기 육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날 입강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 2시간은 기초 · 기본을, 후 2시간은 일반과정을 진행합니다.
3. 강의료 120만원(효사육임강론 2011제8판본 교재 35만원 별도)을 내면 **일반과정을 이수하고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편성**했습니다.
4. 금요일 기초 · 기본 및 일반과정을 수강하고 **토요일 도술반 강의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의 진행은 가장 큰 효과를 담보하게 될 것입니다.
5. 저희 소명과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은 입강하십시오. 큰 도움을 얻어 활인천역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6. **직통전화 010-8788-8513.** 위치약도는 http: 한국육임학회 첫 창 팝업 "약도 바로가기"를 참조 하십시오.

육임으로 판단하는

시보, 내정, 초사 과격상의, 내외사 유무, 상하(남녀) 이해사 유무, 표리사 유무, 방문시간과 월장관계에서 체출되는 변수상의, 방문자별 차객지정 등등을 한 면 한 눈에 달아놓았고, 일생의 대계 명시, 고비전념사 명시, 초년 중년 말년 운세 명시, 사법 행정 외무고시 합격자 확정 명시, 육임사복법 인물류에 의한 개개별 신분 직업 확정 명시, 평생 나이별 운세 명시, 띠별 운세 명시, 평생 나이별 신변 가정 직장관계 변수사정 명시, 재복 형제복 전택복 자식복 노복복 부부복 질액여부 거주주택복 관록복 노후복 상모형태 명시, 당면 정황 및 비밀사정 명시, 남녀 혼인기 명시, 배우자 용모 성질 명시, 육친별 신체장애자 명시, 귀신, 부정, 귀물, 산소탈 및 묘지 속 상태 명시, 이의 각 해소지침 명시, 운세별 변화직업 명시, 수명관계 명시, 개개별 고질병 치유 불치유 관계 명시, 평생 조력 해독관계 명시, 가정사 면모 명시 등등–

1인의 육임 왜 왔는가? 어떤 정황인가? 에서부터 그 사람의 일생사 및 당면사가 한 면 한 눈에 판단되도록 정형화로 구성, 그 백인백색적인 해석을 불식시키고, 판단의 일원화를 완성하여 여러분의 사역에 간편하되 더 높고 더 큰 차원으로의 아낌없는 도움을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육임운명판단법을 한 면 한 눈에 1人 및 그 가족 전체를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만 근 1년이 소요되었고, 위의 모든 법칙을 사실적 명시로 한 자 한 자 정형화 시키는데는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점을 주지해 드립니다.

曉史集 第二十七集
鼓 龜 命 數
고 귀 명 수
– 육임운명판단법 –
(第1券 甲子旬)
(甲子日 · 乙丑日 · 丙寅日 · 丁卯日 · 戊辰日 · 己巳日 · 庚午日 · 辛未日 · 壬申日 · 癸酉日)
鼓卜子 曉史
龜玉子 乙山 共著
도서출판 육임나라(주)
www.taotemple.net

◀ 사주를 빼지 않고도 방문 시간별로 즉시 펼쳐 한 면 한 눈에 정확한 일생사 및 나이별 운세 등등 인생전반을 미리 판단하도록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 60갑자일 각 순별 10일치씩 전 6권 / B4규격

정가 350만원

저자 저술안내

육임활용서 – ■ 효사육임복변집(좌정용 / 각 일별 60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12권) ■ 오행제례의식집(1권) ■ 효사육임산책(휴대용 / 각 순별 6권) ■ 육임1년신수비결(1권) ■ 육임래정비법(좌정용1권 / 휴대용6권) ■ 도사에게물어봐(1권)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1권) ■ 도정기(1권) ■ 육임풍수(1권) ■ 효사육임사주감정법(1권) ■ 불가법요집(1권) ■ 육임대계전서(60권)

육임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上·下(2011제8판 최종본) ■ 효사학습요지(1권) ■ 효사육임강의비디오(96개) ■ 위 각 활용 · 학습서는 2011개정 · 증보판들 입니다.

역학문화를 선도하는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 육임컨텐츠개발전문회사 육임나라 주식회사

대표전화 02)738-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 농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주) /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7〉

참 부처는 내 속에 앉아있다

조주 스님이 법당에 나아가 문하대중에게 설법했다. 금속으로 된 부처는 용광로 속에서 녹아버리고, 나무로 된 부처는 불 속에서 타버리며, 진흙으로 된 부처는 물속에서 녹아버린다. 참 부처는 내 안에 앉아 있다. 보리 · 열반 · 진여 · 불성 등은 모두 몸에 입은 옷과 같은 것들이다. 또한 이것들은 번뇌가 될 뿐이다.

질문이 없으면 번뇌도 없다. 실제리지(實際理地) 따위가 어디에 붙어있겠는가. 한 마음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萬法]에 허물이 없는 것이다. 다만 법리를 규명하면서 좌선하는 일만 20~30년 하라. 그래도 만일 해득할 수 없다면 내 목을 잘라가라.

꿈이나 허깨비, 공중의 꽃 같은 것을 잡으려 하는 것은 헛된 고생을 하는 것이다. 마음도 또한 다르지 않고 만법도 또한 그러하다. 이미 밖에서 얻는 것에 쫓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무엇에 사로잡히겠는가. 저 양처럼 함부로 물건을 주워 입 속에 넣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師上堂 示衆云 金佛不度爐 木佛不度火 泥佛不度水 眞佛內裡坐 菩提涅槃眞如佛性 盡是貼體衣服 亦名煩惱 不問即無煩惱 實際理地什麽處著 一心不生萬法無咎 但究理而坐二三十年 若不會截取老僧頭去 夢幻空花徒勞把捉 心若不異萬法亦如 既不從外得 更拘什麽 如羊相似 更亂拾物安口中作麽

철불 · 목불 · 니불(泥佛)은 진짜 부처가 아니다. 그런 형상은 나약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세워놓은 방편일 뿐이다. '참 부처는 내 속에 앉아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한마디에서 즉시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부처를 외부에서 찾았던가. 반성해야 한다. 부처는 '마음이 부처'이다.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이다.

열반 · 진여 · 불성 등은 겉을 치장하기 위한 옷과 같은 것일 뿐 허망한 용어들이다. 중생이 곧 부처인데 이런 용어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히려 이런 용어에 얽매여 있으면 번뇌만 치성할 뿐이다. 열반을 얻지 않아도, 진여를 체득하지 않아도, 불성이 드러나지 않아도 중생 그 자체가 이미 부처이다. 이것은 사자 새끼가 비록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낸다고 해도 운명적으로 이미 백수의 왕인 사자인 것과 같다.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
열반 등은 겉치장일뿐

마음 속에 질문이 없으면 번뇌는 사라진다. 중생이 이미 부처인데, 다시 무슨 질문이 일어날 것인가? 나의 근원은 원래 청정하다. 나의 바탕은 청정하고 허공과 같아서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무슨 질문이 있겠는가. 다만 마음을 쉬어라. 한 마음이라도 일어나면 만 가지에 허물이 일어나지만,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으면 만 가지에 허물이 없는 것이다.

다만 이치를 탐구하면서 '마음이 부처'인 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난 다음 20년이고 30년이고 좌선하며 마음을 쉬어가다 보면 어느 날 저절로 진(眞)과 일치된 자신을 발견하리라.

마음은 몸이 만든 허망한 그림자와 같다. 만약 몸이 없으면 마음도 또한 사라진다. 마음이 임시 주인이라 하지만 마음은 허망한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만든 각종 의미와 가치가 어찌 허망하지 않겠는가? 길다, 짧다, 더럽다, 깨끗하다, 옳다, 그르다, 부귀, 빈천 등 이런 개념들은 모두 꿈속의 허깨비와 같고, 허공의 꽃과 같은 것들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것은 허공에다 헛되이 손질하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설사 무엇인가 얻어 쥐었다 해도 허망한 것들일 뿐이다.

이 법문의 요점은 '참 부처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말라는 말이다. 또한 경전에서 나오는 열반 · 진여 · 불성 등의 일체 언어의 뜻에 유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나약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세워놓은 언어들이다. 만일 중생이 이 언어들의 뜻에 의해서 일단 위급함을 모면했으면 다음으로는 참다운 부처님의 진리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문은 선학(禪學)을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두고두고 되짚어 보아야 할 법문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⑤ 선정(禪定)



청우	어불이헌	갑신춘일	정견본위	좌본성위	선생위	망념불위	문왈선	정선정

禪 : 선 선
妄 : 망령될 망
念 : 생각 념

글은 곧 선정이다

文曰禪定 妄念不生爲禪 坐見本性爲定 (문왈선정 망념불생위선 좌견본성위정)
글은 선정(禪定)이다. 헛된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선이요, 앉아서 본디 성품을 보는 것이 정이다.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어록 해제 37 한국선과 선어록 8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

'증도가'에 낱낱이 주석 더해

당나라 조계혜능의 십대제자 가운데 영가현각(665~713)은 〈증도가〉라는 장문의 게송을 지었다. 이에 대해 송나라 남명전 화상은 〈영가대사증도가남명전선사계송(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이라는 주석을 내었다. 남명전 화상은 불혜선사(佛慧禪師)로서 휘는 법천(法泉)이고 성은 시(時)씨로서 수현지방 출신이다. 어려서 유학을 공부했는데 재주가 뛰어났다. 장성하여 용거산 지문원의 신기(信記) 선사한테 출가했다. 이때 신기 선사는 마당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꿈을 꾼 다음 날에 남명전 화상이 출가한 연유에서 법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후에 경전을 공부하고 운거산의 효순(曉瞬) 선사와 선문답을 거량한 인연으로 깨침을 터득했다. 이후에 대명산 · 천경산 · 운거산 · 남명산 · 장산 등에서 주석했다.

남명전 화상의 〈계송〉에 대해 다시 고려 제23대 고종시대에 서룡연(瑞龍連) 선사가 주석을 붙인 것이 본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이다. 사실(事實)은 곧 주석을 의미한다. 때문에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은 영가현각의 〈증도가〉에 대한 일종의 복주(復注)인 셈이다. 서룡연 선사는 〈증도가〉의 원문보다는 주로 언기의 〈계송〉에다 주석을 붙인 까닭에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범천언기(梵天彦琪)의 주석을 함께 의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룡연 선사는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에서 〈계송〉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 및 새로운 기록을 첨부한 것에다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영가 스님의 증도가는 인연따라 깨침이 증(證)
부처의 자취가 도(道), 이를 노래함이 가(哥)

또한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의 저자에 대해서 고익진 교수는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에 붙어 있는 것으로 전광재가 쓴 발문의 기록에 근거해 서룡연 선사는 서룡선로 연공(瑞龍禪老連公)임을 밝혀냈다.

〈영가대사증도가남명전선사계송〉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고려 고종 26년의 간기가 붙은 판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언해본으로도 발간됐음을 보아 널리 유통됐음을 알 수 있다.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의 구성은 상 · 중 · 하의 3권인데, 〈증도가〉의 본문에 대한 주석은 송나라 범천언기의 주석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 서룡연 선사의 독자적인 주석을 가하고 있다.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은 332단락으로 구성돼 있다. 그 가운데 서룡연 선사가 붙인 사실(事實)은 상권에는 73곳에 주석을 붙였고, 중권에는 69곳에 주석을 붙였으며, 하권에는 49곳에 주석을 붙여 총 191곳에 주석을 가했다. 반면 여기에서 서룡연 선사가 그대로 인용한 범천언기의 주석은 상권에는 41곳이고, 중권에는 50곳이며, 하권은 50곳으로서 총 141곳에 해당한다. 언기의 주석과 서룡연 선사의 주석이 함께 수록된 부분은 한 곳도 없다.

3권의 구성에서 〈증도가〉의 본문 총 267구 1858자를 기준으로 간주하면 다음과 같다. 상권은 "선정지혜 나 혼자 통달한 것이 아니라/ 항하사의 부처님과 더불어 바탕이 같다/(非但我今獨達了 恒沙諸佛體皆同)"는 대목까지이고, 중권은 "이 깨침은 긍정도 부정도 할 수가 없고/ 하늘조차도 역행도 순행도 하지 못한다/(或是或非人不識 逆行順行天莫測)"까지이며, 하권은 "바늘구멍으로 푸른 하늘 보려하지 말라/ 못 깨친 자를 위해 영가가 결단해 준다/(莫將管見謗蒼蒼 未了吾今爲君決)"는 마지막 부분까지이다.

본문의 전개는 〈증도가〉 원문에 대한 남명전 화상의 게송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삼고, 중간생략을 포함해 필요한 대목에 대한 서룡연 자신의 사실(事實)을 붙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남명전 화상의 행장과 영가현각의 행장을 비롯해 남명전 화상이 붙인 서문에 대해서도 주석을 가하고 있다. 끝으로 남명전 화상의 후서(後序)에 대한 부분까지 주석을 가하고 있다. 이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의 마지막 부분에는 경상 진안동도 안찰부사 도관랑 중전광재가 붙인 발문이 수록돼 있다.

〈증도가〉라는 제명에 대해 남명전 화상의 주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곧 인연을 따라서 깨치는 것을 증(證)이라 하고, 부처님이 걸어간 자취를 도(道)라 하며, 부처님의 자취를 시로 노래한 것을 가(歌)라고 했다. 그리고 깨침에 대한 인가와 증명이 부처님한테 있음을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 언급한다. 이와 같이 범천언기의 주석을 통째로 인용한 것은 〈증도가〉의 제명에 대한 증(證)과 도(道)의 의미에 집중한 서룡연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선의 목적이 깨침이라면 그것은 지혜의 터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점은 명안종사의 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로써 깨침은 반드시 인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인가를 받은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일대일로 전승되는 전법(傳法)의 인연을 거쳐서 마침내 출세해 교화의 길에 나선다.

이후로 〈증도가〉의 원문에 대한 낱낱의 언구 내지 구절에 대해 언기의 주석을 인용하고 때때로 〈증도가〉의 원문 및 언기의 주석에 대해 다시 게송으로 때로는 산문으로 구체적인 주석을 가하였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바른정법.바른인연 II

불교를 신(信).해(解).행(行).증(證)이라고 하지요. 바른 믿음을 전제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때 결과물로써 분명 증득하는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를 한답시고, 앉아 있음에 익숙해져 있고, 삼재, 사주, 철학, 조류방생, 성지순례, 온갖 등 (인등, 108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의 등)을 고유가 시대에 밤새 밝혀 놓고, 입으로, 말로써 밤새 부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도 일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불보살님전에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방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선방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즉 行(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천하지 않으니 증(證)에 해당하는 결과물로써 경전과, 천수경, 이산혜연선사 발원문등에 나오는 신통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앉아만 있고, 말로써는 이제 충분한데 결과물인 신통은 어찌해서 보여주지 못하는가? 경전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있고, **현재 티벳 승려들은 또 그런 능력으로 실천하는데..... 기껏 우리가 한다는 것은 가벼운 신병 정도를 치유키 위해 구병시식, 천도재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구병시식, 천도재를 지내보니 말끔히 해결되었나요? 적어도 증득한 바 힘이 있다면, 초기 암환자 말고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말기암환자, 시한부, 희귀병등을 짧은 시간내에 민간요법, 식이요법등이 아닌 정법 기도로써 해결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부처님 정법대로 실천할 때 그 힘은 생길 것이고, 이 신통이야말로 말법시대에 중생의 고통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인 병마를 들어주는 **그 힘(신통 : 기도법력)이야말로 불보살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일깨워서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기 2555년 부처님 말씀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말세이고, 말법시대인데, 아직도 말만 하고 있을겁니까? 이 길을 가는 불제자라면 증득한 힘으로 과감히 중생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 . 법 . 승 . 정법 . 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주 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 화 : 055)633-6555
대 중 일 동

(주)더나인 칼라 단청 사업단

옻칠단청

천년보장 옻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옻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풀,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 · 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옻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응, 일섭, 우일스님 문중의 수석맏제자

불광미술원 단청,탱화,개금 3절장인 만성 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학교 운영이 최고·최선의 포교

종립학교 세지중학교 이사장 원 일 스님… 승마·염색체험 등 문화체험 실시



"다문화 자녀를 위한 특성화 학교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나주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세지면에는 종립학교법인 세지중학교가 있다. 세지중학교 이사장 원일 스님(나주 미륵사 주지 · 사진)은 세지중학교에서 수년 전부터 특성화 교육을 실시해 나주지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원일 스님은 불교적 특성을 내세우기 보다는 원어민을 교사로 초청해 영어회화와 방과 후 교육을 해왔다. 또, 지역 향교의 지원으로 다도와 예절교육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지역 명사 초청 특강, 1인 1악기를 다루는 예능 교육, 야영수련, 승마, 염색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시행했다.

그 결과, 세지중학교는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10년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지정돼 도시 학교에 뒤쳐지지 않는 시설 투자 및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불교계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최고의 포교인 것 같습니다. 매년 수 백 명의 학생, 학부모들과 만날 수 있고, 불교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원일 스님이 학교운영을 하게 된 것은 은사 벽상 스님(전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의 교육불사 원력에서 비롯됐다. 벽상 스님은 2002년 열반할 때까지 교육 · 장학사업의 뜻을 놓지 않았다. 원일 스님은 2006년부터 학교를 운영하면서 은사스님의 유지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다.

최근 세지중학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특성화 학교를 준비중이다.

원일 스님은 사회적 소외계층 중 하나인 다문화가정의 교육문제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의 불교적 실천이라고 생각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이 뒤쳐져 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의 특징을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이 아직 따라가지 못할뿐더러 외국에서 온 부모님의 언어 능력으로 자녀의 학습 능력 또한 떨어진다.

이를 위해 원일 스님은 세지중학교에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전문교사를 채용하고, 가정에서 충분히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스님의 사회적 자비실천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스님은 지역 어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도 관심이 높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백양실버타운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다.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43명이 기거하는 백양실버타운에는 웃음치료, 실버치료, 미술치료, 생신잔치, 발마사지 봉사, 목욕봉사 등이 지역 불교단체에서 자원봉사들의 도움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주지역은 노인도 많지만 요양시설도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되는 일이고, 불교적으로는 평등사상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는 종교가 문을 열고 소통을 하며,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사회야 말로 부처님의 법이 실현되는 사회이지요."

스님의 복지사업의 방향은 명확하다. 재가불자를 위한 요양시설과 스님들의 노후를 위한 요양시설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1만여 평의 대지를 구입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나주가 그 옛날 호남의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축소됐지만, 불교의 자비실천이 그 어느 대도시보다 활발하다. 바로 원일 스님과 같은 실천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5대회장 본 묵 스님

담양불교사암연합회 취임

"지역주민들에게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는 단체로 만들어가겠다."

담양불교사암연합회 제5대 회장으로 호국사 주지 본묵 스님이 취임했다.

담양불교사암연합회는 3월 12일 담양군민회관에서 3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제5대 회장 이 · 취임식 및 담양군민 화합을 위한 대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회장으로 취임한 본묵 스님은 향후 연합회 운영과 관련해 "매월 지역의 노인정과 마을회관에 떡국과 국수 등을 전달할 것이며, 가을에는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5대 임원진으로는 부회장 상원 스님(연화사), 정각 스님(비천사), 총무부장 정각 스님(마하무량사), 재무부장 정보 스님(천불선원), 홍보 진덕 스님(화심사) 등이 임명됐다. 또한 신도회장에는 송진현 회장이 연임해 취임했다.

한편 이날 취임법회에 앞서 담양불교사암연합회와 신도회는 자비의 쌀 100포를 담양군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담양불교사암연합회는 3월 12일 제5대 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전주 신흥고, 순종서약서 관행 시정 약속

전북교육청, 신흥고에 종교편향교육 시정 지도

올해 신입생들로부터 특정종교 프로그램의 순종서약서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본지 제824호 2월 23일자 보도) 전주 신흥고등학교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와 교육청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강제적으로 종교편향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정토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학교 측이 다소 관행적으로 신입생에게 학교의 정체성과 학생 본분을 잊지 않도록 서약서를 받아왔지만, 앞으로 학생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종교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학교 측이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종교교육을 하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서약서 또는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복수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직할 청년회 출범

빛고을 청년불교의 불교 중흥 출발이 시작됐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는 지난 11일 무각사(주지 청학) 대웅전에서 신도회 직할 청년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법회 1시간 전부터 100여 사부대중이 모일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법회에서는 주권기 법우의 인사말과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현지 스님의 격려사, 지용현 회장의 환영사, 청학 스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법요식에 이어 축하공연에는 통기타 '소리섬 사람들'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청년회 회장에는 광주생명나눔의 주권기 홍보이사가 임명됐다.

주권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법회에 많은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봉축백일장과 다문화 음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불교청년회는 광주지역 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임에도 현재 원각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만 활동 중이다.

이날 참여한 광주지역 불교단체 장들은 "각 사찰별로 청년회가 다시 복원되어 청년불자들의 힘찬 활동을 보고싶다"며 "이번 신도회 직할 청년회 결성이 좋은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 뉴스

전북불교회관, 출가열반절 특별정진법회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일원)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특별 정진기간을 맞이해 3월 12~19일 4층 큰 법당에서 특별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특별 정진법회는 7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행사는 매일 팔상성도를 중심으로 한 부처님의 생애를 돌아보고 나를 깨치는 108배, 신묘장구대다라니 봉독, 참선 등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전법활동을 펼치다 열반한 부처님의 큰 뜻을 새기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륜범음불교대학, 호남지역 범음교육 시작

광주 법륜사 법륜범음불교대학(학장 월인, 법륜사 주지)이 3월 10일 첫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교한 범음불교대학은 범음범패(상주권공) 2년 과정으로, 기초과정인 목탁 잡고 치는법을 비롯해 예불, 불공, 시식, 상주권공을 비롯해 천도의식 본과정과 상주권공, 작법, 시연회, 작법고급과정 등의 과정을 교육한다. 강주에는 상진 스님(안정불교대학 범패과 강주)이 맡았다.

법륜범음불교대학은 3월 10일 개강으로 매주 목, 금요일 4시간씩 2년간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동불교 임제종, 지역 노인위안 잔치

해동불교 임제종(종정 지암)은 창종 4주년을 기념해 3월 6일 여수 롯데웨딩홀에서 인근지역 세구지 마을 주민 초청 잔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대한불교불교종 총무원장 화담 스님, 대한불교위앙종 종정 위산 스님,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지암 스님은 매월 쌀 20kg을 복지관과 노인정 20여 곳에 지원, 고려정보고등학교(옛 광주소년원)에서 조손가정 아이들과 어머니회의 결연을 통한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음악원, 불교전문성악음악원 개원

불교음악원(원장 박준흥)은 3월 12일 대구 남구 명장사에서 불교전문성악음악원인 'E&I Ensemble'를 개원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불교음악 작곡가인 강주현 선생을 비롯해 영남지역 각사찰 합창단장과 임원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무시 'E&I Ensemble' 초대회장은 "불교음악은 그동안 시대적 변화에 맞추지 못해 불자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었다"며 "불교 포교를 위해서는 새로운 찬불가의 창작과 더불어 체계적인 불교음악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포교사단, 직지사서 11주년 기념법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임희웅)은 3월 12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출범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포교사단 총재 혜총 스님(조계종 포교원장)과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을 비롯해 포교사 및 16기 예비포교사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헌신적인 포교활동으로 한국불교 역사를 새롭게 쓰자고 결의했다. 임희웅 단장은 "모든 조직을 행정구역단위로 개편해 10년 뒤 전국 각 시군구마다 포교센터를 구성해 포교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 빙 안 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 사 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시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임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불제자를 모시고 싶습니다.
재물 보시도 중요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 또한 값진 보시이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적 봉사입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무엇을 망설입니까?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제자들이 됩시다.

종교법인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회 장 목탁 혜은
부회장 금당 법성
포교원장 불도 천장 교육원장 현담 송광 감찰원장 일해 공심

전화 02)730-5670

국민은행 023-501-04-147581

“스팩쌓기 보다, 불법이 좋아”

27년 청년불자 양성의 요람, 부산대 불교동아리 ‘불교바라밀’



부산대 불교동아리 ‘불교바라밀’이 3월 10일 신입회원과 첫 대면식을 가졌다.

부산대 불교동아리 ‘불교바라밀’ 회원들의 표정이 들떠 보인다. 2011학년도 신입회원 모집공고 후 첫 대면식이 있던 날 3월 10일 동아리방은 봄기운이 가득하다. 며칠 전 동아리 거리홍보에서 신입생들로부터 유난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오늘 입회하는 신입생 인원은 고작 5명.

불교바라밀(회장 이희범)은 선후배간 끈끈한 유대감으로 발전해왔다. 불교바라밀은 27년째 명맥을 이어온 뿌리 깊은 동아리다. ‘불교바라밀’ 졸업생들은 자연스럽게 동문회인 ‘한사랑회’에 가입된다. 동문회는 월 정기모임과 후배들을 위한 후원기금을 마련, 멘토 역할까지도 하고 있지만 신입생 가입율은 저조하기만 하다.

이희범 회장은 최근 동아리에 가입하는 학생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 스팩 쌓기에 몰두하는 분위기를 주요인으로 봤다. 이 회장은 “학술동아리나 영어 등 취업과 관계된 동아리가 아니면 인기가 없는 편”이라며 “종교 동아리는 신입생 모집기간 보다는 학기 중에 재학생들이 알음알음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대 내 종교동아리는 가톨릭 1개, 기독교 2개, 증산도 1개, 원불교 1개, 정토회 1개다. 이들 동아리도 불교바라밀과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바라밀 직원들은 지도법사 도일 스님의 지도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는 홍법사(주지 심산) 국제부에서 주최하는 외국인 문화행사에서 통역 및 안내 봉사활동을 한다.

부처님오신날이면 인근 사찰에서 등을 달고 하루 종일 사찰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다.

김태운(26 · 경영학과) 군은 “매주 동아리방에서 법회를 보고나면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어 심적으로 많은 힘이 된다”며 “친구가 많지 않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남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법을 배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조동현(23 · 항공우주공학과) 군은 “학과 친구들은 태권도부와 축구부, 밴드부와 사진부 등 활동적인 동아리에 많이 가입해 있는데, 불교 동아리라고 하면 특이해 한다. 그때마다 지도법사 스님을 모시고 법회도 하고 템플스테이에도 참가하는 등 아주 즐겁다고 알려준다”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지도법사 도일 스님(보리암 주지)은 “우리 사회지도층에 불자가 부족한 만큼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훌륭한 재가불자가 됐으면 좋겠다”며 “자기 이익만 차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람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년다운 삶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불교에 입문한 27년 전 선배들처럼, 불교바라밀 학생들 역시 청년다운 삶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찾기 위해 오늘도 쉼 없이 정진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인형으로 아이유 ‘좋은날’ 부르면



인형극 동아리 ‘보리동이’는 4월부터 ‘화가와 눈썹’ 정기공연을 실시한다.

대한불교교사대학 인형극동아리 ‘보리동이’

“종교를 초월해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열린 마음으로 행복한 내일을 꿈꾸도록 돕겠습니다.”

부산경남지역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이 인형극을 통한 포교활동을 위해 인형극 동아리를 창단했다. ‘보리동이’(회장 문진옥)는 대한불교교사대학 내 유일한 동아리다. 깨달음을 찾는 아이라는 뜻으로, 현재 회원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2009년 창립 당시 ‘보리동이’는 옛 이름 ‘여우별’로 불렸다, ‘여우별’은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인형극단으로,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과 불교교사대학 교사들이 지적 나눔을 갖고자 결성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들의 잦은 타지방 전출 등으로 유지가 어렵게 되자, 불교교사대학 중심으로 극단을 만들어 ‘보리동이’로 탈바꿈했다.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은 이들은 창단 첫 해 순수 창작극으로 동련에서 주최하는 제5회 언어예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제6회 언어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리동이’의 인형극은 〈백유경〉을 소재로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각색 및 극본 작업을 한다. 작품의 소재를 선정하고 대본 집필, BGM 음악선곡, 녹음, 소품 제작까지 8개월이 걸린다. 그러고 나서 다시 2~3개월간 연기연습을 거쳐야 비로소 한 편의 인형극이 무대에 오른다.

최근 준비 중인 ‘광대와 화가’ 극본에는 ‘애꾸눈 임금님’이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를 다운받아 보고, 일을 못하는 신하에게는 2PM 매니저를 하라거나, “요즘엔 카라가 대세”라는 대사를 넣어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 신하가 가수 아이유의 노래 ‘좋은 날’의 고음을 따라 부르는 장면을 넣는다.

문진옥 회장은 “대본이 완성되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그널로 사용할 음악을 설문조사하는데, 동요를 아는 어린이들이 한명도 없어 당황스러웠다. 이후 어린이들이 인형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아이돌가수들의 음악도 적절히 넣고 있다”고 말했다.

연출 이지연 씨는 “게다가 기존의 작품이 아닌 순수 창작극을 기획 단계부터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아마추어동아리에서 모두 소화해야한다. 또 동아리 회원 대부분은 학교 및 어린이법회의 지도교사로, 집안일을 병행하는 어머니들이라 시간을 내고 인형극 연습을 하려다보니 쉽지만은 않지만 보람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씨는 “이런 가벼운 웃음 포인트는 외모로 웃음거리를 삼지 말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자는 주제를 담았다”며 “인형극은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한 방편이고, 아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리동이’는 4월부터 부산 광복동 소재 용두산소극장(나다문화사업단)에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화가와 눈썹’의 정기공연을 시작한다. 인형극과 함께 집중력을 기르는 명상 프로그램을 접목해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010-9879-7033 용두산소극장 **박지원 기자**

1만 부산불교도 5대결사 한마음

범어사 등 부산 불교계 5대결사 운영위 구성

1만 여 부산 불교도가 조계종의 자성과 쇄신 5대 결사에 한목소리로 지지했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의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에 따른 불교계의 5대 결사 운동이 불심도시 부산에서도 개최됐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불)와 함께 3월 17일 오후 2시 부산KBS홀에서 민족문화수호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자성과 쇄신 5대 결사’로 △불교 본연의 모습 확립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한 ‘수행결사’ △민족문화를 바로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해 나가는 ‘문화결사’ △생명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생명결사’ △사찰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터전이 되도록 하는 ‘나눔결사’ △종교간 평화와 남과 북,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결사’ 등 총 5가지 결사 조항을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지난 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족전통문화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보여줬다. 우리 삶에 습관처럼 길들여진 부정적 관행과 타성을 자성해야한다”며 부산에서 자성과 쇄신을 통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한국불교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부산불자들이 결사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법회를 마치고 정여 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 자성과 쇄신을 통한 5대 결사 계획을 발표했다.

스님은 “범어사 내 50인의 스님을 중심으로 5대 결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말사간 민족문화수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스님이 직접 치료하는 ‘관자재병원’

재활요양전문병원으로는 부산지역 불교계 최초



부산에 불교 재활전문 요양병원이 3월말 부산 남산동에 문을 연다. 부산 불교계 최초의 일이다. 재활전문 요양병원 관자재병원(이사장 원광, 정수사 주지)은 3월 22일부터 본격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다.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한방내과, 한방침구과 등 6개 과목으로, 기존의 장기요양 및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뿐 아니라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이용가능하다.

관자재병원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5-16번지 일원의 연건평 3500㎡, 지하 1층, 지상 8층에 180병상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양 · 한방 협진이 가능하고, 환자 1명당 의료진 2명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100여 의료진이 환자를 보호한다.

특히 의료관련 자격을 소지한 비구니 스님을 실제 간호조무사로 채용해 불자 환자들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출가수행자가 직접 아픈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놓고 돌보는 것은 유례없던 일이다.

이사장 원광 스님은 “현재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대부분은 이웃 종교법인에서 운영하고, 불자 역시 임종을 앞두고 개종하는 경우가 빈번해 마음이 아팠다”며 “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불자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치유해주고, 더불어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51)516-9898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헛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적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㉖

좌선 시간과 횟수-하루 몇 번, 몇 시간 좌선했는가?

장군죽비의 옳은 표현은 경책〈警策〉



법주사 총지선원에서 스님들이 좌선 중이다.

중국 선종사상 처음으로 총림을 세운 백장 선사(720~814) 시대에는 좌선 횟수나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다. 그 사실을 〈선원청규〉에 수록된 '백장규승송((百丈規繩頌)' 과 양억(楊億)이 지은 〈선문규식〉 등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좌선은 입실(入室, 개별적인 지도. 즉 독참)과 청익(請益, 더 법문을 듣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행자의 근태(勤怠,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맡긴다. 상(上, 많이 하든)이나 혹 하(下, 적게 하든)나 상준(常準, 평소의 준칙)에 구애되지 아니한다[除入室請益, 任學者勤怠, 或上或下, 不拘常準]"

'좌선은 수행자의 근태에 맡긴다' 는 것은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좌선의 다소(多少)를 갖고 수행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능력껏 오래 좌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하고, 건강 등 사정상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게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것으로써 평가 기준을 삼을 수는 없다는 의미인데, '근태(勤怠)' 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아 보다 열심히 정진할 것을 강조한 것 같다. 타율적인 규제에 의해 억지로 좌선하는 것보다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정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 일과가 있으므로 대략적인 좌선시간은 정해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로부터 300여 년 후인 송초에 편찬된(1103) 〈선원청규〉(종색 편찬)에도 역시 좌선 횟수나 시간 등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다. 여전히 좌선은 참선자 개인의 근기와 능력에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좌선 횟수와 시간이 제도화 되는 것은 송대 중기 즉 남송 때에 이르러서이다. 이른바 '사시(四時) 좌선(坐禪)' 으로서, 하루에 4번 좌선했는데, 후야좌선(後夜坐禪), 조신좌선(早晨坐禪), 포시좌선(哺時坐禪), 황혼좌선(黃昏坐禪)이다. 청규에는 사시좌선이 구체적으로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방선했다는 기록은 없으나(규정되어 있었겠지만, 지금 알 수 없을 뿐이다), 〈선학대사전〉(大修館 刊)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좌선 횟수는 수행자에 달려

남송 이르러 횟수 제도화

후야좌선(後夜坐禪): '효천(曉天)좌선' 이라고도 한다. 시간적으로는 5경(更)으로 새벽 3~5시 이다. 당시 선원에서는 4시에 기상했는데(지금도 중국, 일본도 같음) 예불을 마친 다음 가사를 벗지 않고 그대로 시작했다고 하므로, 새벽 4시 40분경부터 6시 아침 공양 직전까지(1시간 남짓)이다.

조신좌선(早晨坐禪): 조신좌선은 오전 좌선이다. 시간적으로는 이른 아침을 가리키지만, 실제는 울력, 조참법문 등 오전 일과를 마치고 시작하므로 대략 9시경부터 11시 점심 공양 직전까지이다.

포시좌선(哺時坐禪): 포시는 신시(辛時)로서 오후 3~5시를 가리키지만, 실제 포시좌선은 오후 2~4시이다. 점심 공양 후에 대중 전체가 차를 마시는 등 오후 일과를 마무리하고 시작한다.

황혼좌선(黃昏坐禪): 저녁 좌선으로서 '초야좌선' 이라고도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7~9시이다. 청규에는 혼종(昏鐘)이 울리면 시작했다고 하므로 대략 7시부터 시작해 취침하기 10분 내지 20분 전까지이다. 이렇게 하여 하루 좌선 시간은 많아야 6시간을 넘지 않았다.

참선을 하는 '선원' 이라고 하여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로지 좌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림에서 좌선은 선수행의 가장 중요한 필수지만, 각자 맡은 소임과 청법(聽法:법문 들음), 울력, 차공양, 간경(看經) 등의 일과와 병행하므로, 당 · 송대 선원의 하루 좌선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선칠(禪七:7일간 용맹정진) 등 특별 정진 기간이 아니라면 평상시 좌선은 대략 6시간 이내였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 선원의 좌선 시간은 선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하루 10~12시간 정도이다. 송대에 비하면 거의 배가 된다. 용맹정진 때가 아닌 평상시에 10시간 이상 좌선을 하자면 기타 일상은 모두 방하착하고 오로지 모든 시간을 참선에만 할애해야 가능하다. 단순히 좌선 시간으로만 본다면 깨달음을 성취하는 선승이 당송 때에 비해 배 이상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좌선시간과 깨달음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남악회양 선사가 날마다 앉아만 있는(좌선) 제자 마조도일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그가 좌선하고 있는 암자 앞에서 벽돌을 갈았던 남악마전(南嶽磨磚: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겠다고 벌인 연극. 앉아 있는 다고해서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의 이야기는 유명한 공안으로서 좌선이 능사가 아님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송대 총림에서 매회 좌선시간, 즉 앉아 있는 시간을 잴 때는 향(香)을 피웠다. 시계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사원뿐 만이 아니라 당시 중앙 정부나 지방 관아에서도 향을 많이 이용했다. 이 때 사용하는 향을 선원총림에서는 '일주향(一炷香)' '장향일주향(長香一炷香)' , 또는 '선향(線香')이라고 했는데, 이 일주향이 다 타는 시간이 약 40분이었다. 즉 좌선을 시작할 때[入禪]할 때 일주향 하나를 피우는데 그 향이 다 타면 좌선을 종료[放禪]했다. 40분 이상이 지나면 다리도 아프고 졸음도 오고 정신이 흐려져서 별 의미가 없었다. 입정(入定)의 핵심은 집중에 있는 것이지, 앉아 있는 시간의 길고 짧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향은 유나가 감독하는데 그것을 '감향(監香)' 이라고 한다.

경행을 할 때는 대중 모두가 장련상(長連床:좌선상)에서 내려와 좌차(座次)의 차례대로 한 줄로 줄을 지어서 선당 중앙의 복도를 왕래한다. 경행법은 한 호흡에 반보행(半步行)으로서 오늘날과 똑같다. 경행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인데 이 때 동사(東司:화장실)에 갈 사람은 동사로 가고,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물을 마실 수 있다.

선학자로서 유명한 남회근(南懷瑾)선생은 자신의 저서 〈선종총림제도와 중국사회〉(1962 · 대만)에서 "매일 장향일주향을 10개 이상을 사용했다"고 하므로, 하루 총 좌선 시간은 약 6시간 반 정도가 된다. 농사 등 잡무가 별로 없는 겨울이나 선칠(禪七:7일 특별정진) 등 특별 정진이 있을 때에는 하루 3~4시간만 자고 좌선한다. 이 때에는 일주향 14개 정도를 (9시간 정도 좌선함)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용맹정진은 7일간 일체 잠을 자지 않고 오로지 좌선만 한다.

졸음 쫓으려 여러 도구 개발

선구처럼 공 던져 깨우기도

좌선할 시간이 되면 승당이나 중료 앞에 있는 판(板)을 길게 3번 친다[長板三下]. 대중이 선당으로 들어와 좌패(坐牌)에 따라 자기 자리에 정좌하면 좌선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이어 입정(入定, 入禪)을 하게 되는데 그 신호는 '석목(析木)' 이라고 하여 각목 같은 것 두 개를 가지고 친다. 먼저 석목으로 한 번 치고 다음에 인경(引磬)을 3번 친다. 그러면 좌선을 시작하는데 석목 소리와 함께 일주향을 피워서 시간을 잰다. 우리나라에서는 죽비를 치고 1회 좌선 시간은 50분이다. 이것은 1시간이라는 틀에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좌선을 할 때는 감독자인 수좌는 전면을 보고 앉고, 모든 대중들은 벽을 보고[面壁] 좌선을 한다. 그날 선당의 직당(直堂:당번)이 큰 죽비[警策]를 메고 복도를 왕래하면서 조는 사람이 있으면 어깨를 치는데, 그 기준은 단전 위에 맞닿아 있는 두 엄지손가락 끝이 떨어질 때이다. 딴 생각(망상)을 하거나 졸면 두 엄지손가락 끝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 때 때리는 막대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장군죽비' 라고 하지만 원래는 '경책(警策)' 이라고 한다. 경각(警覺) 책려(策勵)한다는 뜻이다. '장군죽비' 라는 말 역시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데 전통 있는 좋은 말을 놔두고 왜 이런 말들을 쓰게 됐는지 알 수 없다. 경책 막대기는 통상 길이가 4척2촌(약 140센치)로 손잡이 쪽이 원형이고 끝 쪽으로 가면서 평평하다. 거기에 한자로 '警策' 이라는 글씨를 쓴다.

좌선을 시작하면 번뇌 망상이 일어나거나 졸음이 쏟아지는 데, 이 수마(睡魔:졸음)를 쫓기 위하여 당 · 송 때에 여러 가지 도구가 개발됐다.

선장(禪杖)은 대나무나 갈대로 만든 막대기로서 그 끝에는 수건이나 나무 껍질 등을 감아서, 아랫자리(윗 자리는 법랍이 위임)에 앉아 좌선하는 이가 졸면 툭툭 건드려서 깨워 준다.

선구(禪毬)는 터럭을 뭉쳐 주먹만한 크기로 만든 공인데, 조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에 던져서 잠을 깨워 주는 도구이다. 그런데 이 선구를 던질 때는 투수(投手)가 실력이 있어야 한다. 잘못 던져서 멀쩡한 사람이 맞으면 적지 않은 결례가 되기 때문이다.

선진(禪鎭) 역시 졸음을 깨우는 도구로서, 나무 조각을 홀(笏) 모양과 같이 만들어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가는 끈으로 꿰어서 끊은 귀에 걸고 홀은 머리에 얹는데, 이마에서 네 손가락 쯤 떨어지게 한다. 좌선하는 이가 졸리어 머리가 숙어지면 이것이 떨어져 잠을 깨운다.

다음 좌선을 돕는 도구로는 선판(禪板)이 있다. '기대는 판' 이라는 뜻에서 '의판(倚版)' 이라고도 하는데 방선 때 몸을 기대는 판이다. 주로 나이든 노승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오랜 좌선으로 인해 피로할 때, 잠시 기대고 휴식한다. 판면을 약간 경사지게 해 몸을 기댈 수 있게 한 다리 없는 의자로 보면 된다.

선대(禪帶)는 좌선할 때 허리에 두르는 혁띠 같은 것으로 폭은 1척(30센티 정도)이고, 길이는 8척 가량 된다. 좌선할 때 항상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도구다.



포단(蒲團)은 갈대 잎 등으로 만든 방석이다. 대혜선사의 〈서장〉 등 선어록에는 '포단상사(蒲團上事, 포단 위의 일)' 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곧 좌선하고 있음을 뜻한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무애자재로 살다간 도인 진묵 스님의 일화 산과 마을 덮어

51 화신불의 도량 서방산 봉서사


봉서사 부도밭에 부도들이 늘어서 있다.

진묵(震默;1562~1633) 스님은 흔히 한국의 위인전 시리즈에 원효 의상 서산 사명 스님과 함께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진묵 스님은 원효나 의상 스님처럼 학문적 유산을 남기지도 않았고 서산이나 사명처럼 구국의 기치를 들었거나 선맥(禪脈)을 전해 일가를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진묵 스님이 오늘날까지 위인의 반열에서 당당하게 거론되는 것은 스님의 생애를 덮고 있는 많은 일화들 때문입니다. 초의(草衣) 스님의 〈진묵조사유적고〉나 범해 스님의 〈동사열전〉 등에 전하는 일화들은 인간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것들이어서 진묵 스님을 부처의 화신, 대자유인, 걸림 없는 수행자로 인식하기에 충분합니다.

진묵 스님이 남긴 일화에는 자유자재한 도인의 풍모와 더 없이 자비로운 불심,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 중생을 가르치려는 깊은 자비심이 주머니 속의 바늘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진묵은 술을 좋아 하였으나 곡차(穀茶)라고 하면 마시고 술(酒)이라 하면 마시지 않았다. 어떤 스님이 술을 거르는데 "그대가 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술을 거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진묵은 아무 말 않고 물러갔다가 다시 가서 "그대가 거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그의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진묵이 되돌아갔다가 또 가서 물었으나 그가 끝내 "술을 거른다"는 대답을 되풀이 하자 실망하고 돌아가 버렸다. 잠시 뒤 금강역사가 나타나 쇠몽둥이로 술 거르는 스님을 후려쳤다.

진묵은 길을 가다가 소년들이 물고기를 잡아 시냇가에서 끓이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몸을 구부려 끓는 솥 안을 들여다보며 탄식했다. "잘 놀던 물고기들이 죄 없이 삶아지는 괴로움을 받는구나…." 한 소년이 스님을 놀렸다. "스님께서 이 고깃국을 잡숫고 싶은 게로군요." "준다면 잘 먹지." "그럼 이 한 솥을 다 드십시오." 스님은 솥을 번쩍 들어 단숨에 마셔버렸다. 소년들이 놀라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금하였거늘 스님께서는 고깃국을 드셨으니 어찌 참다운 스님이라 하겠소?" 진묵은 빙그레 웃으며 "물고기를 죽인 것은 내가 아니지만 살리는 일은 내 하기에 달렸지" 하고는 아랫도리를 벗고 냇물을 등지고 앉아 설사를 했다.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진묵의 뒤로 쏟아져 나와 물속으로 들어갔다. 스님은 물고기들을 보며 한 마디 했다. "발랄한 물고기들아! 멀리 큰 강과 바다로 나가 다시는 삶아지는 괴로움을 받지 말거라." 소년들이 놀라 그물을 거두고 돌아갔다.

한 번은 진묵이 시자를 부르더니 다짜고짜 소금을 가지고 봉서사 남쪽 부곡 골짜기로 가라고 했다. 시자가 "누구에게 갖다 주느냐"고 물으니 스님은 가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고 대답했다. 시자가 소금을 가지고 골짜기로 내려가니 사냥꾼 두어 명이 노루고기를 회쳐 놓고 소금이 없어 먹지 못하고 있었다. 시자가 소금을 갖다 주자 그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진묵이 상운암에 머물 때의 일이다. 탁발승들이 먼 곳으로 탁발을 떠났다가 한 달 쯤 지나서 돌아와 보니 진묵의 얼굴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무릎 사이에 먼지가 수북 쌓여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낸 다음 이름을 아뢰고 배알하니 대사는 오히려 "왜 이리 일찍 왔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뻥이야"하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기도하고 글로 기록되기도 하면서 진묵 스님의 이야기는 전북지역에서 중요한 전승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진묵 스님의 이야기들이 사그라지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진묵 스님의 이름을 들여다봅니다. 천둥 벼락 치는 소리가 들리는 진(震)자와 개미 기어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고요의 묵(默)이라는 두 글자를 이름을 가진 것부터 남다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지만, 극과 극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만이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진묵 스님은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도 허물고 생과 사의 경계도 뛰어넘었으며 시간과 공간의 간격도 아랑곳 않았던 인물임을 일화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를 살아간 사람들부터 '화신불'이라고 평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시대는 난세였습니다. 임진왜란(1592)과 정유재란(1597)이 있었고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풍전등화로 몰아가는 외침(外侵)에 앞서 붕당의 정치적 힘겨루기로 발발한 '정여립의 난(기축옥사)' 도 스님이 살다간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난세는 영웅을 원합니다. 진묵 스님은 17세기 조선사회의 난맥상을 살아가는 민초들에게 영웅의 모습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김제 만경들 불거촌에서 태어날 때부터 3년간 풀들이 시들어 버리는 신이(神異)를 보였다는 진묵 스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중생들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지는 덕행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비심과 효심 수행의 모범 보인 '난세의 영웅'
"부도 하얗게 되면 다시 온다" 전설 민중의 '희망'


봉서사에 마련된 진묵 스님의 부도.


봉서사 영각에 모셔진 진묵 스님의 진영과 어머니 상인 대성자 모상

진묵 스님의 부도를 찾아 갑니다.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서방산 자락의 봉서사 앞 언덕에 진묵 스님의 부도가 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진묵 스님은 입적을 앞두고 "내 부도의 색깔이 전부 하얗게 변할 때,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진묵 스님의 부도는 무슨 색일까? 진묵 스님은 난세를 구하러 오는 미륵불의 화신이 아니라 극락으로 변한 이 중생계를 함께 노닐고 싶어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진묵 스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바로 민중들에게 더없는 희망입니다. 민중의 시대, 억압 받지 않는 시대를 맞아 온 백성들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하얗게 될 때 진묵 스님도 다시 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출 것입니다.

봄기운 아물거리는 마을을 지나 산길을 달려 봉서사로 갑니다.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봉서사 맞은 편 언덕에 근래에 조성된 부도들이 즐비하고 그 뒷자리에 진묵 스님의 부도(전북 유형문화재 제108호)가 서 있습니다. 부도는 하얗지 않습니다. 아직 진묵 스님이 환생하실 때가 아닌가 봅니다. 팔각 기단에 연화문을 약하게 새긴 두 단의 받침이 있고 둥그스름한 몸돌이 얹어졌습니다. 지붕돌은 경사가 급하고 보륜은 간소하게 장식되어 있어 화려한 맛은 없지만 단아한 부도의 모습이 무애 자재한 삶을 살았던 한 도인의 생애를 웅변하는 듯합니다.

부도를 이리저리 살피는데 스님 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봉서사 주지 월해 스님입니다. 월해 스님은 진묵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현대인의 삶에 밝은 거울이 되길 염원하며 작년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진묵 스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호남 범패의 연원을 간직한 봉서사는 진묵 스님과 범패라는 귀한 문화적 자산을 중생계로 회향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월해 스님의 원력이 이루어지는 날 진묵 스님의 부도는 조금 더 하얗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요법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 OK!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않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철,칼슘,마그네슘,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7 호 발명의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노인정 경노당,한의원, 산후조리원,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 총 스님, 12일 입재법문

5대 결사는 우리가 가야할 길

인도 정반왕의 태자 고타마 싯다르타는 16세에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아 남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왜 출가를 했을까요? 부처님은 카파라성(城) 동 · 남 · 서 · 북 4문 밖을 나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음과 늙음이 둘이 아님을, 항상하는 것은 없음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생로병사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법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싯다르타 태자만의 출가만이 출가일까요? 비록 출가자가 되지 못했을지언정 마음으로는 출가를 해 부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불교를 알고자 한다면 첫째, 무상한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싯다르타 태자가 왕위를 계승해 천년만년 세세생생토록 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물체라도 인(因)에 의해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합니다. 이 진리를 정말 마음 속 깊이 깨닫는 것은 출가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생과 멸의 상대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이러한 이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만 생로병사를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공유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수의(壽衣)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 몸을 위해 일평생 얼마나 거뒀습니까? 자자면 자주고, 먹자면 먹어주고, 놀자면 놀아주고, 사랑하자면 사랑해주면서 몸이 해주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늙지 말라고 해도 늙고, 병들지 말라고 해도 병들고, 죽지 말라고 죽습니다. 남편 아내 아들 딸 친척 다를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자체가 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것입니다.

이 몸은 재물,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5가지 오욕락에 살아갑니다. 오욕락은 꿀이고 곧 독입니다. 잘 쓰면 꿀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사상으로 오욕락을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오욕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건지기 위해 연기법, 중도법, 무아법을 설하셨습니다. 오욕락에 물들지 않는 것이 출가입니다.

둘째, 설산동자의 위법망구의 정신과 자세가 돼야 합니다. 법을 듣는 사람은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하는 자세로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만 너무 믿어도 안 됩니다.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받을 자세, 수행할 자세가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많은 중생을 건집니까.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만큼, 둘이 살면 둘이 사는 만큼 일이 많아집니다. 자식, 남편, 아내, 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출가를 미루고 나중에 선방에서 공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살지, 내생을 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법을 믿고 그 법대로 행하는 자는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받습니다. 부처님은 약을 줄 따름이지 먹고 안 먹고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셋째, 남이 못하는 것을 기꺼이 하는 자가 부처님입니다.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難行能行 尊重如佛 하기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면 존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함)이라고 합니다. 남이 다 하는 것, 남이 하는 대로 살면 남만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지 못할 만큼의 한계에서 참는 자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 인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自燈明法燈明]고 했습니다. 오욕락을 수용하면서 집착하지 않고 적당히 사용하면서 공부에 매진하면 생사에서 초탈하는 길이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허공과 같아 걸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출가를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찾는 것이 자성과 쇄신을 위한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5대 결사입니다. 5대 결사의 원동력은 오욕락을 잠재우고, 부처님의 팔정도 사성제 사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계사 주지 토 진 스님, 13일 서원의 날 법문

자성과 쇄신이 곧 출가·열반

출가자는 진리를 위해 출가합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진리는 생명의 힘이고, 존재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허황된 것을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허황된 것은 힘은 있으나 생명은 없습니다. 더 크고 무성할지언정 생명을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생명의 힘이 약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신교 행사인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은 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을 진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함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은 뒤를 쳐다 볼 수 없습니다. 뒤는 마음이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오염되면 멀리 볼 수 없고, 눈 앞의 것만 보게 됩니다.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마음으로는 무엇을 느끼는지, 나에게 어떤 고난의 산이 닥쳐올지 모르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물을 찢긴 곳에는 혼자만 남습니다. 생명을 찢고, 진리를 어기는 두려움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족만 단란하게 살고자하는 이기적인 욕심과 그릇된 생각이 그물을 찢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진리가 무너진 곳, 법이 사라진 곳에서는 세상 전부다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지혜와 깨우침이 있는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합니다.

첫째,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연꽃은 더러운 곳에 있어도 때 묻지 않는 처렴상정(處染常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리이고 힘입니다. 삿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파사현정(破邪顯正)', 자성과 쇄신은 인간이 죽을 때 까지 항상 지켜야할 가치입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진리, 법을 위해 자기 몸을 던질 때에 한계가 보입니다. 두려움으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두려움은 점점 커질 뿐입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야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은 것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일본은 지진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민족이 아니지만 아픔과 고통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진리로 생명력이 충만된 사람입니다. 남의 나라, 다른 민족, 내 것이 아니라며 바다건너 불 보듯 하는 사람은 진리 · 생명의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진리는 함께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삼라만상은 그물처럼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찢어 '혼자' 영광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평화를 해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힘, 깨우침의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신교 행사인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은 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을 진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함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은 뒤를 쳐다 볼 수 없습니다. 뒤는 마음이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오염되면 멀리 볼 수 없고, 눈 앞의 것만 보게 됩니다.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마음으로는 무엇을 느끼는지, 나에게 어떤 고난의 산이 닥쳐올지 모르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물을 찢긴 곳에는 혼자만 남습니다. 생명을 찢고, 진리를 어기는 두려움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족만 단란하게 살고자하는 이기적인 욕심과 그릇된 생각이 그물을 찢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진리가 무너진 곳, 법이 사라진 곳에서는 세상 전부다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지혜와 깨우침이 있는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합니다.

첫째,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연꽃은 더러운 곳에 있어도 때 묻지 않는 처렴상정(處染常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리이고 힘입니다. 삿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파사현정(破邪顯正)', 자성과 쇄신은 인간이 죽을 때 까지 항상 지켜야할 가치입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진리, 법을 위해 자기 몸을 던질 때에 한계가 보입니다. 두려움으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두려움은 점점 커질 뿐입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야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은 것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 출가·열반일 동안 조계사는 야단법석

부처님이 출가하고 열반한 출가열반절인 3월 12(음 2.8)~19일(음 2.15)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과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에서 '출가열반절 자성과 쇄신 5대결사 신도대중공사' 를 개최했다.

대중공사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금봉선원 선원장 혜국 스님,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정범 스님,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조계사 회주 무진장 스님 등의 법문과 기도정진, 문화행사 등이 진행됐다.

대중공사가 처음 진행된 12일은 일본 대지진 피해 소식이 전해진 하루 뒤였다. 법회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일본 대참사였다. 스님들은 모두 희생자와 일본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참을 권했다. 불자들은 함께 기도하고 성금을 모아 전달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법회의 중요한 주제는 불교계 내부의 자성이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 앞서 스님들은 불교계의 안일했던 모습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모습이었다.

법당은 8일간 야단법석을 이뤘다. 스님의 법문을 듣기위해 조계사 신도를 비롯한 곳곳의 신도들로 법당 밖에서 법문을 청했다. 오전 시간대여서 젊은 불자들의 참여는 거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정리=이상언 · 이나은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대 구 053-566-1116 울 산 052-260-1037
부 산 051-441-0111 경 남 055-932-5877 제 주 064-755-7588 전북익산 063-854-1060
지리산 063-635-5112 해운대 051-757-999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연수원 (바라, 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본 예술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2기(6개월 과정) 학인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학 과	강 의 내 용	요 일	시 간	특 강
1. 기 초 이 론	이론 및 실기 • 사물, 각종 사찰행사 실기	목	5~6시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인간문화재 보유자 경호 큰스님 직강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바라무 조교 보련 스님 직강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이사장 및 부산영산재작법무 조교 원산 스님 직강 ⊙ 속성반 1. 바라, 작법무, 실전위주 2. 화청, 살풀이, 극락무, 승무, 사주신주, 구궁법, 조상영가 찾는법
2. 전 문 의 식	• 전통소리(안정사) • 삼신이운 및 전통불교의식 • 무형문화재 제9호 오공양 작법소리 • 복청게(천수바라)	금	5~6시	
3. 바 라 작법무	• 오공양 작법무 (운심작법,다게작법,삼귀의작법무) • 천수바라(무) (사다라니바라)	목 • 금	4~5시	부산시 지정 무형 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보존회 등록되어 있는 바라, 작법무

■ 특 전 : 1. 본교생(졸업)으로서 성적우수한 자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전수 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3. 년1회 정기행사 직접공연 (공연 발표회, 영산대제, 산신대제, 수륙대제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모집기간 : 2011년 2월 20일 ~ 3월 20일 (수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24일(목) 오후 3시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귀 영 축 사

부산영산보존회 바라 작법무 연수원 / 부산 동구 범일동 1454-17번지 영축사 (구, 만덕동 해동사)

연락처 : 이사장 원산 스님 011-582-8975 / 혜화 교무스님 010-2563-5550



금봉선원 선원장 혜 국 스님, 14일 수행결사 법문



내 안의 관세음보살 깨우자

부처님은 내 말만 따르고 잘 듣는 사람은 노예라고 했습니다. 내가 설한 법을 잘 배우고,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부처의 길, 주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노예의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소중한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 감정이 하자는 대로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울증이 걸려 죽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불자들은 가르침을 수행해서 우리도 부처가 돼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설산고행을 통해 생명마다 부처가 아닌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태양이 구름에 가려 태양이 안보이듯 탐진치 번뇌망상에 가려 태양광이 비치지 않은 것입니다. 탐진치를 거둬 버리면 완벽한 부처가 됩니다.

하지만 중생은 자신이 부처라는 말을 못 알아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부처라는 것은 알지만 잠에 속아 부처님을 망각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내가 부처임을 망각하는 것은 실답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문명이 아무리 앞서간다고 해도, 정신문명의 전환이 없으면 행복은 요원합니다.

나를 찾아서 마음수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자된 복이 어떤 복보다 가장 큰 성공이요, 행복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민족문화 불교가 소중한 줄 모릅니다. 서구에서는 한국 전통 마음수행법이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운명만 따라 다닐 것입니까? 운명을 타파, 개척하는 것이 공(空)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공이라고 하고, 제법실상이라고 합니다. 일체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고 합니다.

수행법으로 화두참선법을 이야기 합니다. 진리는 말로 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합쳐 말하려고 하니 화두참선법을 하자는 것입니다. 화두 참선법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통불교로 사경, 염불, 좌선, 모두 다 왔습니다.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공 도리를 알고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수행이란 기도·참선·염불 어떤 것을 하던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은 공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말은 인간들의 말일 뿐 별것 아닙니다. 한 평생 속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속은 것이 말입니다. 감정으로 진리인 양 말에 속은 원인은 공(空)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본다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생각하고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는 낮에 보이던 것이 눈에 보입니까? 눈은 그대로 있는데 왜 안보입니까? 고양이나 올빼미는 캄캄할수록 잘 보입니다. 캄캄한데 잘 보이도록 업을 익히면 캄캄할 때 보이고, 환한데서 업을 익히면 환한데서 보입니다. 업의 노름에 속는 것입니다.

남에게 속은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몸뚱이가 내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번뇌망상을 '나'라고 생각해 제행무상·제법무아·열반적정 삼법인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소승과 대승을 나눠야지 형식으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몸뚱이가 하나인줄 알지만 오른손 왼손 머리 발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수십조의 세포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릇에 물이 있을 때에는 먹을 뿌리면 먹물이 되고 붉은 색을 넣으면 붉어 집니다. 빈 허공에 잉크가 묻습니까? 마음을 빈 그릇, 허공성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허공성은 더러워 지지 않으며, 모든 죄업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 마음의 번뇌망상이 가득차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나고 상처를 주는 것도 나입니다.

수행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갈 길은 내가 챙기고 홀로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홀로 가는 것, 우주 전체가 되는 법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감정이 하자는 대로 이집 저집에 태어나고 죽고 나고를 반복 하고 축생, 지옥을 떠돌다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백천만겁난조우로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불법을 만나 수행법을 듣는 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영명 스님이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고 스승에게 묻자 스승은 "도를 묻지 말고 수행을 묻지 말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실천하고 행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황금같은 시간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수행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수행은 무한 경쟁이 아니라 무한 상생을 뜻합니다. 저 사람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오, 내가 사는 길이 저사람 살리는 길입니다. 나라고 하는 벽을 허물어서 나는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진흙이 없으면 어떻게 연꽃이 피겠습니까. 번뇌망상에서 한 생각 바꾸면 부처가 됩니다. 싹 없앤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못된 성깔 모자란 점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밉다고 다 건져버리면 바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한 바다가 되려면 파도를 거둬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멈춰야 합니다. 내 안에 번뇌망상과 단점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번뇌망상을 다 없애고 새로운 부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부처님 마음처럼 변화시키는 것이 수행입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관세음보살을 깨우는 것입니다. 뭐든지 노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도선원장 미 산 스님, 15일 문화결사 법문



육근 청정 운동으로 불교 중흥을

존재 목적에 대한 확실한 체득, 깨달음이 불교가 향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본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은 맑고 밝고 청정한 본래 최상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나타냄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삶의 표현방식이라고 합니다. 삶을 표현할 때는 오감과 마음과 관계된 6가지 감각기관으로 세상의 존재 현상을 표현합니다. 6가지 감각기관과 관련된 문화를 어떻게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속에서 실천할 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대 결사도 궁극적으로 본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위없는 행복감을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란 문화현상입니다. 문화현상이라고 할 때는 삶이 표현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조계사 법당이나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의 문화재를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예경심이 생깁니다. 종교 장엄물은 자성 청정 원각심을 발현시키는 삶의 표현양식입니다. 이를 통해 본래 부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민족문화,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문화재를 폄훼하고 몰이해 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근원적으로 불식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합니다.

문화재 사찰은 포교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포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다보니 불교가 이지경이 됐습니다. 문화재 사찰에서는 인간의 의미가 무엇이고 정신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부처님의 청정 원만 구족한 자비의 메시지를 전할지 고민해야합니다. 미래의 문화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합니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문화결사를 통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사는 자성과 쇄신의 메시지가 훨씬 강합니다. 불자들은 최근 일어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려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맞는 문화를 창조 계승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정서나 감정, 색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교가 이 시대 사람들의 문화적인 생각, 힘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성의 표현인 불교 장엄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조잡하고 탁합니다.

안이비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이 청정해야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갈 수 있고,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6가지 감각기관을 맑히면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문화결사의 6가지 슬로건을 마음속에 늘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SPSH(six pure six harmony) 운동, 육근청정운동'을 제안합니다.

△'맑고 아름답게'는 눈에 대한 문화결사 입니다. 사찰 불사는 현대인들의 감성과 생각에 맞도록 하고, 창의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통을 새롭게 해석해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봤을 때 조화롭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통해 안정과 감명을 받습니다. 전통색과 구조물의 가치를 바탕으로 좀 더 현대인들에 맞는 새로운 건축 장엄물이 이 시대에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심포교당이나 선원의 불사는 기와집으로 짓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금불상일 필요도 없고, 울긋불긋 연등일 필요 없습니다. 이 시대의 미적 감각, 색감, 정서가 반영된 불사가 창조적으로 이뤄져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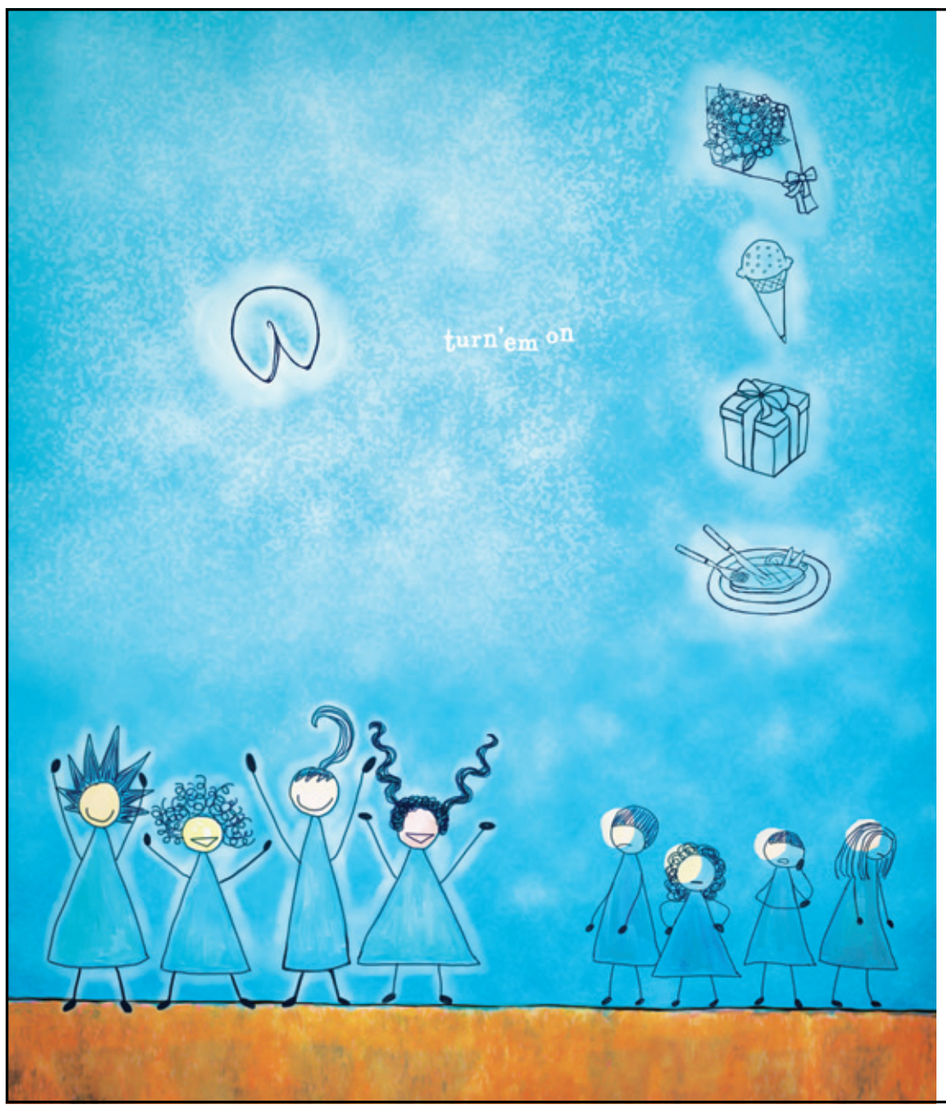
△'맑고 조화롭게'는 귀로 듣는 문화결사의 슬로건입니다. 음악은 3~4분 만에 지구촌 사람들을 하나로 집중 시켜줍니다. 듣는 문화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청법가를 부를 때 어색합니다. 잘못 부르면 정말 어색합니다. 개선돼야 합니다. 찬불가가 20~30년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고 범패가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급의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이 시대에 맞는 불교음악이 나와야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코로 만들어가는 문화결사입니다. 향기를 맡았을 때 마음이 맑아지고 편안해 집니다. 향으로 몸의 병까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 내에서도 향과 관계된 많은 문화를 계발할 수 있습니다.

△'맑고 담백하게'는 혀로 만들어가는 결사입니다.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찰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계사 주위에 스님이나 불자들이 편안하게 채식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몇몇 전통 사찰 음식점이 생겨서 편해지기는 했지만 고가입니다. 사찰음식으로 청정 담백성으로 현대인들의 몸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온갖 성인병이 오고 있습니다. 좋은 식을 일반 시민들과 나눠야 합니다. 사찰음식문화를 꼭 나눠야 합니다.

△'맑고 활기차게'는 몸으로 만들어 가는 결사입니다. 현대인들의 몸은 많이 탁해져 있습니다. 불교에는 108배와 좌선 등 수행법이 있습니다. 108배를 하거나 좌선을 하고 나면 몸이 굉장히 맑게 정화되고 열립니다. 모든 일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의욕적으로 이웃을 돕게 됩니다.

△'맑고 훈훈하게'는 뜻으로는 지혜, 자비를 실천하는 문화결사가 돼야 합니다. 〈원각경〉 청정식을 바로 들어내는 것입니다. 원각청정심을 드러내서 구체적인 삶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What is Buddha Cookie!!

법 法 과 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안국선원장 수 불 스님, 16일 나눔 결사

불교계 나눔, 사회와는 달라야

부처님의 깨침은 인류가 정신문명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눴습니다.

나눔 결사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신적 눈을 뜨는 일입니다. 어떻게 계승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큰 뜻을 나눌 것인지 결정할 때입니다. 자성과 쇄신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편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정신을 나누지 못하고 기복적인 어리석음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어리석음에 젖어 말로만 수행을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하면서 자기수행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종교는 거듭날 수 있는 기회와 인연을 제공해야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허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며, 왜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종교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의식이 변해 종교를 위한 종교생활을 하는 어리석음은 광신 맹신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외면하고 뭘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나눔은 헛것입니다.

나눔은 종교 없이도 합니다. 종교를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인류애를 발휘하는 많은 사람들을 봐 왔습니다. 종교인만이 선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가 있음으로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수행자는 어떤 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줄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나눠 변화를 이끄는 결사가 돼야 합니다. 사회나 국가 유관단체에서 하는 나눔이 아니라 종교계에서 하는 나눔은 사회에서 못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본연의 모습으로, 중심을 잡고 사회가 간과하고 소홀히 하는 부분을 지적해야합니다. 사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종교가 더 깊은 안목으로 실현할 때 사람들은 진정한 종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승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나눔은 작든 크든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주인공이 돼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기꺼이 나눠주는 자비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삶의 질이 바뀌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큰 인연을 만드는 일련의 작업들이 늦었다고 하는 순간이라도 해야 합니다.

공부 인연이 열려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있음에도 그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진하는 분들 중에 빼어난 분들은 혼자 수행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5대 결사를 통해 제기해야합니다.

국민들의 교육 · 생활 의식정도가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주장만 내세우기보다 우리민족의 애환을 통해 함께 좋은 방향으로 회향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른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명의 실상과 성불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템플스테이 예산이 깎이면서 자성과 쇄신 5대 결사가 생겼습니다. 정부 관계자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들은 나태해진 종단의 안일함을 일깨워주는 역행보살입니다. 결사는 부처님 당시부터 실천해온 일들입니다. 단지 이번 5대 결사는 지금까지 해온 일련의 일들을 시대상황에 맞게 조금 더 분명하게 제시하고 모두가 거듭나겠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철두철미하게 짓밟혀 이런 모습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원수는 전체를 헤아리는 넓고 깊은 혜안으로 국정을 수행해야 존경을 받습니다. 앞으로 자성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찾아와서 쫓겨나더라도 다시 들어오고 들어와야 합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합니다. 불자가 나누지 않아 나눔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 법 스님, 18일 평화결사

평화 원하면 미움부터 없애라

평화를 희망하십니까? 왜 평화로워야 되죠? 부처님이 왜 출가했을까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 출가를 한 것입니다. 출가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한 평화는 열반입니다. 열반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고지순의 평화, 지고지순의 행복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평화, 행복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싸움과 전쟁입니다. 싸움과 전쟁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알면 평화의 가치를 알 것입니다.

싸움의 조건은 화(火)와 미움입니다. 미움과 화가 얼마나 몹쓸 것이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기진심수사신(一起嗔心受蛇身)' 은 "한번 미워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뱀의 몸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화와 미움은 공덕을 없앱니다.

진심은 모든 공덕을 파괴하는 아주 독한 물건, 고약한 물건입니다. 인생을 추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품위 없이 만듭니다.

사람 얼굴을 한 번 보십시오. 다 나타납니다. 미운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미운 마음, 화내는 마음은 눈빛, 얼굴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이 몹쓸, 독한 물건이 나쁜 줄 알면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잘 안 버려집니다.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버리려고 노력하면 버려집니다.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사무치게 인식하고 죽을힘을 다해 버려야겠다고 작심하면 태도가 기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결심을 하는 것을 우리는 소위 발심(發心)한다, 원(願)을 세운다고 합니다. 또한 원을 성취하기 위해 수행을 하며, 노력하는 것을 용맹정진이라고 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인과법이라고 하죠. 평화의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자비와 사랑의 씨앗을 죽을힘을 다해서 심고 가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수행입니다. 수행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삶이 평화롭지 않다면 기도는 해서 뭐합니까? 참선은 해서 뭐합니까?

인간은 싸울 때는 죽을힘을 다하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죽을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죽을힘을 다해서 미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참선이고 염불 · 수행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위해서는 부처님이 말씀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일체개고 아안당지(一切皆苦 我安當之)"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내가 가장 존귀하도다 삼계의 일체 모든 괴로움을(중생들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팔만대장경의 내용도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을 일생동안 진지하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나 자신, 인간 개개인이 가장 거룩하고 완성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 부처님 앞에 가서 무엇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존귀한 부처인데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인지를 몰라 명예, 지위, 권력, 학벌 등을 부처님에게 기도로 구하려 하는 것 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평화를 위한 첫출발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에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뭇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위해 내 인생 모두를 바치겠다"고 하고 출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비심, 대자비행입니다. 평화로 이르는 길입니다. 왜 대자비행을 펼쳐야 하는 것일까요?

나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일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가장 귀하고 고마운 존재인거죠.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을 잘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평화의 씨앗이자 참선이고 수행입니다.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아당안지' 를 내 삶의 생활 · 언어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조계종의 평화결사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옥천사 주지 정 범 스님, 17일 생명결사

생명의 가치부터 제대로 알자

생명을 논하기에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왜소하고 나약한지 일본 지진과 해일 피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피해 광경을 보면서 온 몸으로 생명의 귀중함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말을 붙이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생명결사에 있어 어떤 부분을 생명의 가치로 여길 것인가 고민입니다. 스스로 4년 전에 산과 사찰, 자연환경과 생명, 문화재를 지켜야 되는 생각에 서산 가야산을 지키는 일에 뛰어든 적이 있습니다. 평소 먹고 마시고 잠자며 편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느꼈던 것이 4년 전입니다. 내 몸이 편안하고 건강하면 아픈 사람을 봐도 큰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나누기도 하지만 며칠 후면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내 몸에 칼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 생명의 가치를 내 것으로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때론 친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슬픔을 없어진다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라 하더라도, 중생의 삶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를 머리로는 잘 알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몸서리쳐지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맙니다.

부처님은 계율의 제일 덕목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존귀한 것이니 살생하지 말라고 만대장경의 내용도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을 일생동안 진지하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나 자신, 인간 개개인이 가장 거룩하고 완성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 부처님 앞에 가서 무엇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존귀한 부처인데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인지를 몰라 명예, 지위, 권력, 학벌 등을 부처님에게 기도로 구하려 하는 것 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평화를 위한 첫출발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에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뭇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위해 내 인생 모두를 바치겠다"고 하고 출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비심, 대자비행입니다. 평화로 이르는 길입니다. 왜 대자비행을 펼쳐야 하는 것일까요?

나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일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가장 귀하고 고마운 존재인거죠.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을 잘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평화의 씨앗이자 참선이고 수행입니다.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아당안지' 를 내 삶의 생활 · 언어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조계종의 평화결사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황금의 불탑 미얀마!!!

■ 5월 12일
미얀마로 떠나는 완전일주 8일
(짜익티오 철야기도 가능)
1,90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 5월 24일
1,6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 지장도량-관음도량 5월 23일
구화산 | 보타산 | 황산 6일
1,14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
하늘열차 티벳 8일 6월 7일 (요금 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 불조정맥 〉
중,영,한 3개국어판!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과 정맥전법게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출간.



〈 화두/Hwadu 〉
영,중,한 3개국어판!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그래, 우리 지난 주에 어디까지 읽었었지?

수리아의 검-Ⅱ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3)

아낙을 돌려보낸 유리 영감은 다시 아이의 눈을 마주보았다. 정말 무니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말간 눈빛까지 닮아 있었다. 유리 영감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했다.

"흠. 일단 네 어머니 상태부터 보자꾸나."

마야는 정말 깊이 잠들어 있었다. 즐거운 꿈이라도 꾸고 있는지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있었다. 유리 영감은 맥을 짚어보았다. 별 다른 이상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번엔 아이에게 다가가 맥을 짚었다. 아이는 피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협조적이지도 않았다.

"그래, 아주 건강하구나."

아이의 손목을 놓으며 유리 영감이 말했다.

"배는 고프지 않니?"

그는 아이가 혹시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들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부러 또박또박 발음을 해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아무래도 뭘 좀 먹어야 되겠다."

그는 배가 고프다는 듯 짐짓 배를 만지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그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옷 줘."

유리 영감은 깜짝 놀라 아이를 쳐다봤다. 자신이 잘 못 들었나 싶었다.

"옷 줘."

분명 아이의 목소리였다. 무니와 비슷한 음성이긴 했지만, 좀 더 맑고 높은 느낌이었다. 아이는 유리 영감에게서 아무런 대꾸가 없자 또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옷 줘. 여기 옷이 하나도 없어."

할 말을 잃은 모습으로 아이를 쳐다보던 유리 영감이 그제야 대답 했다.

"그래. 옷을 모두 태워버렸으니 입을 게 없었겠구나. 내 금방 하나 구해다 주마."

아이는 그가 이웃에서 구해다 준 옷을 건네자 누가 볼 새라 얼른 입었다. 유리 영감은 일단 식사준비부터 시작했다. 옷을 다 입은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마야는 계속 잠에 빠져 있었다. 급하게 차린 식사였지만 아이는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리 영감이 지나가는 말투로 말했다.

"이제 네 이름을 지어야겠구나."

"무니."

아이가 말했다. 그리고 어느 새 밥을 다 해치웠는지? 잘 먹었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쭉 반말을 쓸 때는 몰랐는데, 그 인사만은 놀라울 정도로 무니와 똑같은 말투였다.

"그래, 네가 그 이름이 맘에 든다면. 너희 어머니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러면서 유리 영감이 마야를 쳐다보자 무니 역시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는 왜 계속 자는 거야?

"몹시 지쳤을 게다. 열흘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으니까. 그런데 말이다."

유리 영감이 고개를 돌려 다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니?"

아이 역시 그를 쳐다봤다.

"유리 영감. 난다네 할아버지."

"그걸 어떻게 아는 거지?"

"그냥 아는 건데."

뭘 물어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이가 대답했다. 유리 영감은 '흠' 하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마야가 신음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어났다.

태어나자마자 금방 여덟 살 소년으로 자라난 무니는 마을에 관해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유리 영감이 여러 번 확인했지만, 아이는 매번 '그냥 알고 있는 것' 이라고만 대답했다. 아이로서는 오히려 그런 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 동생 무니에 대해서 몇몇 마을 사람들은 죽은 형 무니가 마야에게 남긴 선물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환생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모두들 이 출생의 기묘함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은 언제나 두려움을 주기 마련이었다. 사람들에게 동생 무니가 꺼려지는 존재가 된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를 보자마자 순수하게 기뻐한 사람은 오로지 난다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워낙에 넉넉한 인심에 온화한 성품을 지닌 마을 사람들은 무니의 존재를 자연스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마야 역시 다시 힘을 내 아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마을은 조용히 안정이 되어갔다. 다만 무니와 똑같은 얼굴로 태어나 금방 여덟 살이 되어버린 이 어린 소년이 그 후로 얼마나 외롭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혼자 보냈는지 아무도 모를 뿐이었다.

그리고 계절이 두 번 바뀌어 겨울이 됐다. 마을의 아이들은 모두 유리 영감의 집에 모여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1주일에 한 번 유리 영감이 책을 읽어주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무니 역시 커다란 화로 옆에 앉아 있었다. 마을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별 필요 없으니 아이들에게 굳이 문자를 가르치려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놀거리가 별로 없는 계절엔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였다.

화로에 모인 아이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아이는 난다였다. 몇 달 사이에 키가 훌쩍 큰 난다는 이틀 전 무니에게 아홉 살 생일 선물로 받은 목도리를 칭칭 감고 앉아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여자애가 말했다.

"그거 좀 벗어."

마을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쎄라였다.

"싫어. 촙단 말이야."

"야. 무슨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촙대."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때 한 남자애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삽화 · 김홍인

"상관이 왜 없어? 쎄라는 너 좋아하는걸."

얼굴이 발개진 쎄라가 아니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 모두 아랑곳없이 한 목소리로 쎄라를 놀려대기 시작했다.

"뭐야! 아니라니까! 난 난다가 더워서 찐 호박처럼 돼도 상관없다구!"

"아니. 왜들 이렇게 시끄러운 게냐?"

그때 유리 영감이 책을 가지고 나오며 물었다.

"쎄라가 난다를 좋아한대요!!"

아이들은 모두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쎄라가 눈을 흘겼지만 난다는 기분이 좋은지 싱글싱글 웃고만 있었다. 유리 영감 역시 껄껄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러나 아이들 중에 무니만이 별 관심 없다는 듯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자 저절로 걱정 어린 한숨이 새어나왔다.

"쎄라 같이 예쁜 아가씨가 우리 난다같이 키만 큰 말썽쟁이를 좋아할 리가 있겠니? 그렇 지, 쎄라야?"

씩씩대던 여자 아이는 막상 할아버지에게 그런 질문을 받자 또 다시 얼굴이 발개지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유리 영감은 귀엽다는 듯 아이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주고는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래. 우리 저번 주에 어디까지 읽었었지?"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유리 영감은 난다와 다시 마주 앉았다. 며느리가 옥수수술을 따뜻하게 데워 가져다주었다. 한 모금 몰래 마시려던 난다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고 괜히 딴청을 피웠다.

"무니 말이다."

"네. 할아버지."

"여전히 아무도 그 아이를 집으로 부르지는 않는 모양이구나."

겨울은 오히려 아이들끼리 친밀해지기 좋은 계절이었다. 밖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계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맞거나 친해지고 싶은 아이들은 서로의 집에 모여 낮 시간을 함께 보냈다. 마을의 오랜 겨울 풍습 중 하나였다.

"그런데 무니도 별로 가고 싶지 않대요. 애들이 불러도 말이에요. 전에 무니랑은 그런 게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아이들도 여전히 무니를 무서워하구요. 뭐가 무섭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지만요."

"넌 어떠니, 난다야? 무니가 이상하지 않니? 넌 그 아이의 형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으니 말이다. 처음 보는 아이지만 처음 보는 게 아니니, 헷갈리지는 않니?"

난다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전 이렇게 생각해요. 무니는 무니잖아요. 만약 무니가 쌍둥이로 같은 날 태어났었다고 해도, 그 두 사람하고 지금 같은 친구가 됐을 거예요."

난다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한테도 저처럼 생각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유리 영감은 기특하다는 듯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하지만 무니가 앞으로도 계속 저리 지낼런지. 이 할애비는 아무래도 그게 걱정이 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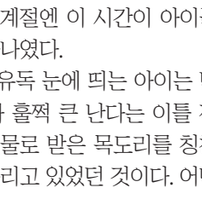
"그건 저도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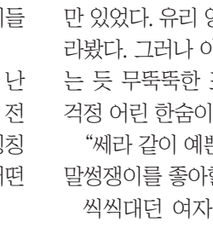
유리 영감은 인자한 눈빛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의 손자를 바라봤다. 문득 리시의 예언서를 다시 연구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난다네 집을 나온 무니는 마을 아이들이 시야에서 모두 사라진 다음에야 혼자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려워한다는 걸 알았다. 태어나자마자 겪은 일이었다. 고작 몇 달을 살았을 뿐인 그가, 8년을 넘게 산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게 그들로서도 불편한 일인 모양이었다. 물론 무니 역시 혼란스러웠다. 오늘 같은 날도 그렇다. 그는 쎄라를 알고 있다. 하지만 친밀하게 대하기라도 했다가는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척하는 게 되어버린다.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 구요?"
"평소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이유 없이 자꾸 아프시다 구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질 않는다 구요?"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 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다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 구요?"


유남 탁대영원장


창천 백구빈원장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학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사)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도를 모십니다

行을 으뜸으로
靈을 정화하는
眞 종도로서
중책을 맡으실 분을 모십니다.

총본산 : 전북 정읍시 산외면 법화원
연락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장 원 사

장원스님 011-677-8525

수행템플스테이
(깨달은 다이어트)

진짜쉼 머리의 번뇌를 쉬고 입을 쉬고 내장을 쉬는 지혜로운 템플스테이

※절, 염불, 독경, 참선, 와선, 행선, 부처님호흡법, 알아차림을 완벽하게 배우고 점검을 받으며 실천수행

청견스님 직접 수행교육지도
잠을깨고 혼침 졸음 이기며 피로풀고
스트레스 날리고 삼매 깨달음 100% 이해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챙김 알아차림

◉ 대상(누구나) : 출가예정자 행자 사미 사미니는 미래불공덕회에서 수련회비 전액 후원

◈수행일정(예약신청)
8차 : 4/ 2 ~ 4/ 3 11차 : 5/14 ~ 5/15
9차 : 4/16 ~ 4/17 12차 : 6/11 ~ 6/12
10차 : 5/ 7 ~ 5/ 8 13차 : 6/18 ~ 6/19

법왕정사 부산법당
전화 : 051)583-7886
www.법왕정사.kr(수행템플스테이)참조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㉕ 장보고의 적산법화원

적산법화원은 신라불교 전진기지



장보고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적산법화원'의 모습.

경주 남산에 이어 다시 중국으로 길을 돌리려 한다. 중국으로 길을 나서는 것은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시기와 완성된 시기 사이에 한국·중국·일본의 문화교류로 많은 변천양상이 있었고, 이런 영향이 다시 한국불교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당(唐)나라 당시 가탐(賈耽; 730~850)이 저술한 〈도리기(道里記)〉에 한국 구법승들의 입국 경로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서술돼 있다.

고대 동아시아 삼국의 불교문화 교류는 단순한 교류의 차원이 아닌 고대 동아시아 문화를 상호간에 전파하는 수단이었다. 이 통로를 통해 한·중·일 삼국은 유기적 문화교류를 통한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했다. 삼국시대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불교는 통일신라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땅에 화려한 불교의 자취를 남겼다.

불교 통해 한·중·일 문화교류
문화 흐름따라 구법승 행렬 이어
신라 혜초 등은 실크로드 넘기도

이러한 불교의 변화는 수동적인 불교 수용이 아닌 능동적인 불교에 대한 갈구로부터 시작한다. 삼국시대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구도 여행은 한국불교를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꿨다. 무수히 많은 승려들이 중국을 넘어 실크로드까지 구법여행을 떠났다. 심지어 인도에 도달한 승려도 있을 정도니 당시 구법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는 미뤄 짐작 할 수 있다.

그들이 머나먼 구도 여행을 통해 얻고자 한 것들은 단순한 사상이나 신앙이 아닌 거대한 문화의 흐름이었다. 무수한 구법승들이 그들의 길을 떠나고 그 속에서 이 땅의 불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갔다. 산둥지역은 고대 한·중간의 가장 중요한 통로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육로의 시작점이자 귀국의 중요경로로 볼 수 있는데 이곳에는 신라불교와 관련된 사찰이 몇 군데 존재한다. 이 지역에 관한 기록은 일본의 승려였던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한국불교와 관련된 사찰이 전하고 있다.

흔히 장보고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적산법화원'은 당시 신라인들에 의한 신라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창건시기는 장보고가 신라로부터 청해진대사로 임명되던 828년 시기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보고가 무령군 군중소장에 있을 당시, 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사찰의 건립이 힘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그가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할 당시가 아마도 이러한 사찰을 건립할 수 있는 시기로 봄은 타당하다. 엔닌은 "적산은 실로 암석이 높이 솟아 있는 곳으로 문등현 청녕향 적산촌이다. 산에는 절이 있어 그 이름은 적산법화원이다. 본래 장보고가 처음 세운 것이다. 오랫동안 장전을 가지고 있어 식량에 충당하고 있다. 그 장전은 1년 동안에 500석의 곡식을 수확했다. 이 법화원에서는 겨울과 여름에 불경강회가 있다. 겨울에는 〈법화경〉을 강설하고 여름에는 8권 본 〈금광명경〉을 강의한다"라고 적고 있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적산법화원의 법회는 우리말로 했었다고 하니 한국불교의 흔적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69 삼월



며칠은 가랑비가 날짜를 휙휙 넘기더니 며칠 째 꽃샘추위가 날짜를 붙들고 섰다. 3월의 보폭은 예측불허다. 며칠이 휙 지나간 것 같을 때도 있고, 몇 날이 그대로인 것 같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쯤이면 꽃이 피기 시작한다. 꽃을 볼 수 없는 곳에서 차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꽃을 볼 수 있는 시기가 3월이다. 마치 차를 모는 몇 시간 동안 꽃이 핀 것 같다.

고창 선운사. 돌담 너머로 노란 산수유가 피었다. 며칠 붙들렸던 날짜가 다시 도망가기 시작했다. 다시 차를 몰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꽃은 질 것이다. 그랬다. 차를 모는 몇 시간 동안 돌담 너머 노란 산수유는 모두 져버렸다. 그랬다. 그 해 삼월은 그렇게 지나갔다.

다시 3월. 곧 꽃이 필 텐데 슬픔 속에 서게 된 이들이 있다. 잠 못 이루는 이에게 하룻밤은 길다고 했던가. 꽃피는 3월이지만 슬픔 속에 있는 이에게 올 3월은 길기만 할 것 같다. 몇 해 전 돌담 너머에 핀 노란 산수유가 생각난다.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④ 조선 함허기화 선사의 '산중미(山中味)'

공연히 하늘에 뜬 달 바라보네

山深谷密無人到 (산심곡밀무인도) 깊고 그윽한 산골 오는 사람 없어
盡日寥寥絶世緣 (진일요요절세연) 하루 종일 고요하여 세상인연 끊어지네.
晝則閑看雲出岫 (주즉한간운출수) 낮에는 한가로이 산봉우리에 이는 구름 보고
夜來空見月當天 (야래공견월당천) 밤에는 공연히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네.
爐間馥郁茶烟氣 (로간복욱다연기) 화로의 짙은 향기 차 달이는 연기요
堂上氤氳玉篆煙 (당상인온옥전연) 법당의 자욱한 향내 옥 향로의 서린 연기로다.
不夢人間喧擾事 (불몽인간훤요사) 인간의 시끄러운 일 꿈꾸지 않고
但將禪悅坐經年 (단장선열좌경년) 다만 참선하는 즐거움으로 앉아 해를 지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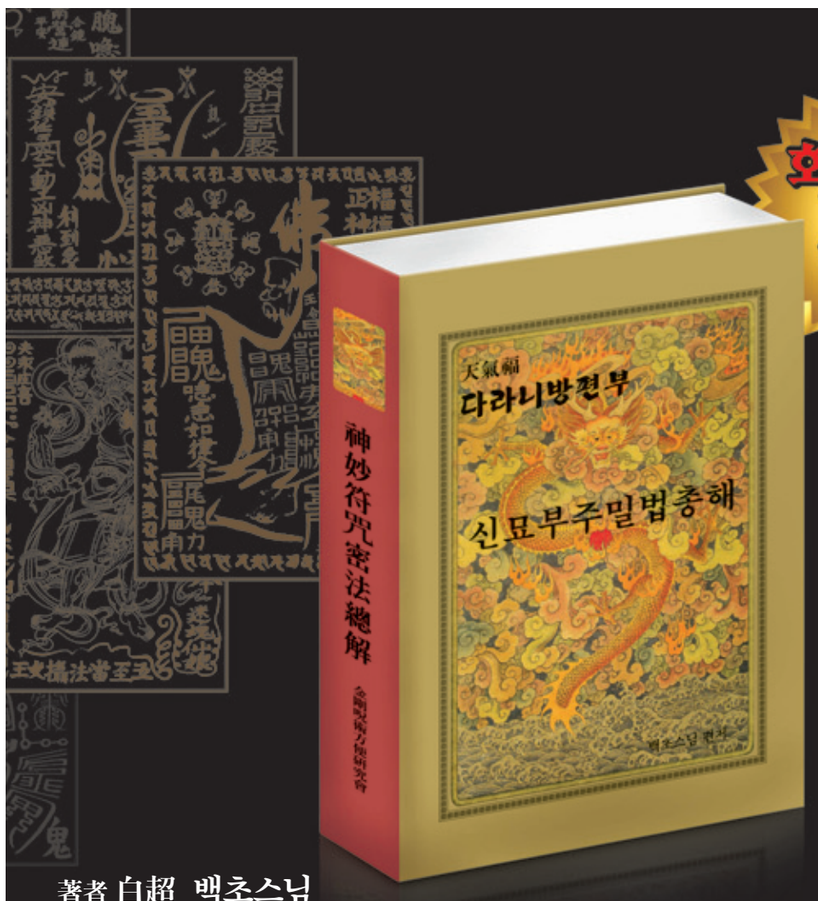
조선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 스님은 21세 때 출가, 오대산에 들어가 나옹 화상의 영정에 공양을 올리다가 꿈에 기화(己和)라는 이름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성리학 도입과 배불론의 격화가 이뤄지던 조선 초 〈현정론(顯正論)〉을 저술해 "불가에서 말하는 오계(五戒)는 유가의 오상(五常)"이라는 등 유불불이(儒佛不二) 사상을 전개시켰다.

이 시는 산중의 맛을 그려낸 시답게 거의 모든 시어들이 산중에서 만나는 자연이다. 이 산과 계곡, 구름과 달을 벗하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절세연(絶世緣)'이 가져다주는 한(閑)과 공(空)을 표현했다. 차 달이는 연기와 고물고물 피어오르는 향로의 연기를 통해서는 수행자의 삶 자체가 곧 자연임을 보였다. 이어 산중의 가장 큰 맛은 '참선하는 즐거움[禪悅]'이라고 했다. 스님은 구름과 달을 바라보고 차 마시고 예경하는 모든 것이 선이며 산중의 맛이라고 한 것이다.

혹자는 세간과의 단절로 인한 산중의 맛이 과연 불교사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수행자상인가? 라고 의문스러워할지도 모른다. 스님의 선열이 배불 속에서 조선불교계가 영속할 수 있는 한 토대로 드러나고 있음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天氣福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선가귀감’ 은 한국불교 필독서

지안 스님의 첫 불교교과서 ‘마음속 뿌리찾기’



옛날에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고, 부처님 행위가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 오로지 경전만을 보배로 여겼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보다 세속의 글을 배우고 전했다.

현대에 들어서는 매일 같이 새로운 수행법들과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명상서 들이 쏟아지고 있다. 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 원장이자 조계종 고시위원장인 지안 스님은 이런 현 세태에 우려를 나타냈다. 변화가 시도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변화도 전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뒤에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에서 스님은 최근 〈선가귀감〉을 새롭게 풀이했다. 스님은 “〈선가귀감〉은 한국 불교수행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이지만, 불자를 비롯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읽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선가귀감〉은 한국불교에 전해져 오는 많은 문헌 중 불교경전의 핵심만을 뽑아 엮은 것으로, 불교수행의 핵심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다. 책은 서산대사(西山大師; 1520~1604)가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경론과 조사어록 등 50여 권의 책을 열람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발췌한 것들이다. 처음에는 원문만 기록해 두었다가 제자들의 청에 의해 알게 쉽게 주해를 붙이고 또 송(頌)과 평석(評釋)이 붙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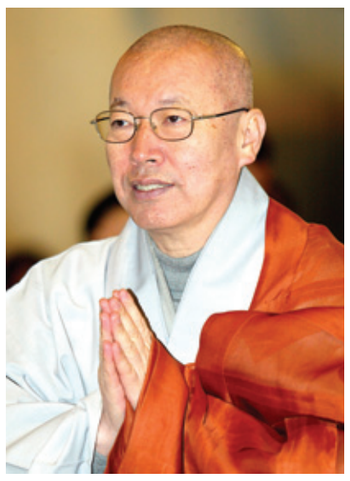
지안 스님은 〈선가귀감〉을 불교 교과서로 재탄생 시켰다. “요즘 제방 사찰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경전공부를 많이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선가귀감〉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서임에도 두루 읽혀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를 통해 불교를 차근히 배울 수 있는 교과서적인 책으로 〈선가귀감〉을 새롭게 풀이했습니다.”

지안 스님은 “〈선가귀감〉은 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간경, 염불, 주력 등 불교의 수행방법을 종합으로 설하고 있어, 한마디로 불교수행의 종합개론서”라고 밝혔다.

“서산 대사께서는 〈선가귀감〉을 통해 불교수행의 전반적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율종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계율을 엄정하게 지닐 것을 강조했고, 간경을 해야 하는 이유 등을 밝히면서 교학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염불과 주력까지 종합적인 수행체계를 밝혀 놓았으며, 심지어 정랑(淨廊)에 들어갔을 때 외는 입측오주(入厠五呪)까지 설하며 수행자의 위의를 갖춰야 하는 점을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가귀감〉은 승속을 막론하고 반드시 읽어야할 수행자의 필독서입니다.”

스님은 “물질적 풍요와 수많은 정보가 난무하는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수행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며 “이런 때에 〈선가귀감〉은 개인수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가귀감〉에는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 모두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의 행실을 돌아보며 수행의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책”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선종에 밀려 〈선가귀감〉이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지만, 책을 번역하면서 〈선가귀감〉이 한국불교를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책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마음속 부처찾기〉를



통해 단 500명, 1000명이라도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지안 스님은 “막막하고 불안한 시대에 무엇보다 시급히 밝혀야 할 것은 불성(佛性)이다. 나를 깨달아 부처의 길에 다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음속 부처 찾기 | 지안 강설 | 조계종출판사 | 1만8000원 이은정 기자

30분만 읽으면 감동과 행복이

꿈꾸게 하는 만화가 최영순의 ‘명상만화’



“풍요로움만이 바람직한 삶의 가치인가에 대해 회의감을 많이 느낀다. 많이 일하고, 많이 벌고, 많이 먹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적게 웃는 삶이 과연 행복일까 하는 회의의 말이다. 하기는 그 반대로 산들 어떤가. 적게 일하는 대신 적게 벌로, 적게 먹고, 많이 웃는 그런 삶 말이다.”(본문 47쪽 · 소설가 최성각)

3월 11일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했다.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 원전 방사선 누출 사고까지 겹치면서 일본은 최악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재앙보다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던 건 다름 아닌 일본인들의 시민의식이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재앙 속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부조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일본인들은 담요가 부족하면 둘로 찢어 나눠 쓰고, 각종 식료품은 자신이 먹을 만큼만 구입하는 등 침착한 모습으로 재난에 대처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모습에 외신들은 일제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호평을 쏟아냈다.

사람들은 과한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 또한 나는 배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배려하길 바란다. 누구나 이런 이기심을 마음에 꼭 쥐고 살아간다.



사실 인생은 조금 천천히, 조금 덜 정확하게, 조금 손해보며 살아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조급한 마음으로 분주하게 삶은 살아가지만, 실은 누구나 삶의 여유를 꿈꾼다. 만화가인 최영순은 이렇게 삶의 여유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짧은 만화와 글을 통해 세상살이 경험과 지혜를 일깨워준다.

저자는 〈마음 밭에 무얼 심지?〉 〈행복 콘서트〉 등 ‘명상만화’ 라는 새로운 장르의 카툰으로 10만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더 강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면 주목받지 못하는 현 시대에 자칫 밋밋하고 평이하게 느껴질 수 짧은 컷의 만화들이 오히려 잔잔하고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감동을 선사한다.

86편의 이야기에는 살림을 배워 가는 새댁, 자녀 교육을 걱정하는 부부, 가족의 건강을 챙기기 바쁜 엄마, 쉴 틈 없이 일하는 가장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며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가치들을 유머러스하게 꺼내 보인다.

저자의 책을 읽는 이들은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면 한 2~3도는 올라갈 것이다” “읽는 내내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느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읽는 건 30분이면 족한 책인데, 마음으로 읽는 건 하루가 걸릴 수도 열흘이 걸릴 수도 있는 책이다” 등으로 평한다.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보다 4000배나 강력한 기적의 호르몬 다이도르핀은 바로 ‘감동’ 이 있어야 분비 된다. 여느 마음공부 책들이 어렵게 느껴진 이들이라면, 저자의 만화를 통해 힘겨웠던 어깨를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저자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바람을 마주하고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내게 날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성낼 곳에서도 마음 한번 바꾸면 금세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 또한 깨끗해집니다. 그 한 순간의 생각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마음 한번 바꾸면 | 최영순 글 · 그림 | 고즈윈 | 1만1500원

이은정 기자

산에서 인생을 배운다

산중암자 25곳 순례기



높고 외진 산상(山上)엔 꽃이 피거나 눈이 내리고, 때론 비구름이 휘감긴다.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부처라 이런 산사엔 어김없이 암자가 존재한다. 온갖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도시. 이런 도시에 넌더리 날 때, 저자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산중암자를 찾는다.

전국 외진 산속에 자리한 25개의 작은 암자들을 찾아다니며, 저자는 욕망에 얽매이지 않으며 사는 법을 깨닫는다.

“산에는 인생에 대해 배울 것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저자는 자연과 암자, 스님들의 흔적 속에서 욕망을 떨치고 사람다운 인생에 충실하게 사는 법을 전한다.

책은 우리가 속세의 먼지에 뒤덮인 몸을 씻고 마음을 닦으며 ‘어떻게 살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생각할 기회를 얻게 한다. 또한 암자마다 가는 길과 주변 정보까지 자세한 설명을 달았으며, 청량한 암자와 산사 사진은 읽는 이의 눈을 맑게 한다. **산중암자에서 듣다 | 박운식 지음 | 북하우스 | 1만5000원** 이은정 기자

도(道)는 참아야 생긴다

청담 스님 열반 40주기 법문



“인류사회가 지금처럼 혼란해지고 전멸의 위기에 놓인 것은 알고 보면 ‘나’니 ‘너’니 하는 ‘인아산’이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네가 죽어라 하는 생각 때문이다. 육체만 나이고 다른 것은 남이라고 생각하는 인아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명(無明)은 더해지고 사회는 점점 혼란해진다.”

도(道)는 마음에 있으며 참으면서 생긴다. 인욕(忍辱)은 6바라밀의 하나로써, 인내를 뜻한다. 청담 스님은 인욕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 강조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에 큰 영향을 준 청담 스님이 열반하신지 올해로 40년이 됐다. 청담 스님은 극락사상과 인욕사상, 호국사상을 강조하며 불교 정화에 앞장서 왔다. 이런 스님을 기리 위해 청담 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이 한데 엮여졌다. 평소 참선과 참회의 반복 속에서 마음공부를 한시도 놓지 않았던 스님의 정신을 더듬어 보기 좋은 책이다. **인생 | 청담 지음 | 부글 | 1만1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 9~1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3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4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6	행복한 기원	보경	조화로운삶
7	생활속의 금강경	우룡	효림
8	노자 도덕경, 그 선의 향기	심재원	정우서적
9	마음속 부처 찾기	지안	조계종출판사
10	사벽의 대화	지허	도피안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당신은 삶의 주인입니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방법

《붓다와 명상》에서는 위빠사나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며, 더불어 초기불교경전에 나오는 명상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도 가려 뽑아 명상 초보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명상 초보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들, 명상의 부작용과 사이비 명상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뤄 명상 초보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임승택 지음 | 256쪽 | 12,000원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 이메일: minjoksa@chol.com 홈페이지: www.minjoksa.org

당신과 나누고 소통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의 작은 책

» 교리 · 입문

사성제 · 팔정도 — 이필원 _ 값 6,500원

육바라밀 — 성재헌 _ 값 6,500원

» 수행 · 명상

생활명상 — 김남선 _ 값 6,500원

위빠사나 — 정준영 _ 값 6,500원

» 신행 · 문화

관세음보살 — 김호성 _ 값 6,500원

아미타불 — 여여법사 _ 값 6,500원

사십구재 — 구미래 _ 값 6,500원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는 〈교리 · 입문〉, 〈수행 · 명상〉, 〈신행 · 문화〉 테마별로 계속해서 출간 될 예정입니다.

진짜 '붓다' 만드는 게 내 꿈

'buddha' 시리즈 통해 키네틱 아트 선보인 왕지원 작가



왕지원 작가가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기계모형으로 표현한 작품 'Kwanon-Z'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차 순수예술 분야의 경계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대 예술가들은 점점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다양한 매체와 내용이 혼합된 작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작품을 위해 다양한 소재들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불교의 이미지를 현대미술에 응용시킨 작품들이 늘고 있다.

키네틱 아티스트인 왕지원 작가는 불교적 이미지를 통해 키네틱 아트(Kinetic Art)를 선보인다. 움직이는 예술을 뜻하는 키네틱 아트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장르지만, 점차 새로운 장르로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이다.

어릴 적부터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다는 왕지원 작가는 최우람 조각가 밑에서 오랫동안 어시스던트 일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키네틱 아트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왕 작가는 2009년부터 'buddha' 시리즈를 통해 부처의 형상을 한 기계 모형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2002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6개월 동안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몸이 망가지고 늙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기계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로봇을 인간으로 형상화해 전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첫 개인전 당시만 해도 그의 작품에선 불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왕 작가는 "부처의 이미지를 작품에 착안하게 된 것은 첫 개인전 당시, 어느 할머니가 작품 앞에서 절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부터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그 장면을 보고 '내 작품이 불상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불교에 관련된 책과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불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붓다가 태어나서 출가해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고, 저에겐 붓다가 마치 신처럼 초월적인 인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해 오던 기계로서의 초월함과 붓다의 이미지를 섞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왕지원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일부러 불교와 관련된 의미는 부여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한 초월의 의미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의미와 달랐기 때문이다.

"붓다가 일초를 억겁으로 사는 과정을 통해 해탈을 이루었듯이, 저는 기계를 통해 해탈을 이루고 더 좋은 존재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왕지원 작가가 이렇게 완성한 'buddha' 작품은 현재까지 8점에 이른다. 보통 작품 하나에 짧게는 2~3달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 작품의 작업도 거의 모든 부품이 주문제작으로 이뤄져 작품에 투자되는 비용만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왕 작가는 작품이 완성될 됐을 때 가장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키네틱 아트가 움직이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 어느 때는 너무 움직이는 것에만 집중해 제가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작품을 할 때 움직임을 최소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왕지원 작가의 작품은 올해만 벌써 11번의 전시에 참여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작품의 인기 비결을 묻자 왕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단지 이 전시 저 전시 끼워 넣기 좋은 소재일 뿐, 작품이 결코 훌륭해서는 아니다"라고 손사래 친다.

"교토에 갔을 때, 십이나한들이 둥그렇게 큰 불상을 감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buddha' 시리즈의 마지막 작업은 십이나한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관음보살, 미륵보살 등 주로 보살을 위주로 작업을 했는데, 'buddha' 의 마지막은 진짜 '부처' 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왕지원 작가는 올해 말 쯤에 뉴욕에서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지원 작가의 작품은 서울시 안국동 사비나미술관에서 봄 특별기획전으로 마련된 '다중감각' 전을 통해 4월 15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02)736-4317

글=이은정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화폭 가득한 우주로 떠나는 여행

오 경 환 작가의 '우주(宇宙)의 심연(深淵)' 展



'우주의 작가' 로 알려진 원로작가 오경환이 OCI미술관에서 4월 6일까지 '우주(宇宙)의 심연(深淵)' 이란 제목으로 개인전을 갖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 미술원장을 지내고 40여 년 동안 꾸준히 화업을 이어온 오경환 작가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화가들보다 더한 열정과 집중력으로 초자연의 세계인 우주공간에 현실적인 매개를 담아 '우주 풍경화' 를 작업했다.

40년이 넘도록 화가는 다양한 양식을 통해 우주를 주제로 삼아 작업을 진행했다. 1969년 7월 처음으로 우주에서 본 지구를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본 작가는 그 후부터 숙명처럼 우주를 표현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우주의 풍경을 그린 선구자나 다름없다.

불교와 도교의 철학적 성찰에 조예가 깊은 그는 대형 캔버스에 광활한 우주를 그리고 그 우주 어디엔가 떠 있을 가상의 생명체를 그려 넣어 초자연과 일상의 소통을 추구한다. 작가는 사람들이 무(無)에서부터 왔고, 그들 스스로 이 행성에 '지구' 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 말한다. 그는 형식에 있어서 굳이 추상성에 치우치지 않고 형상과 상징들을 섞어가며 자유로이 유희하듯 화면을 배치해 간다.

작가는 최근 1년 여 동안 인천 아트플랫폼의 입주 작가로 열정적인 작업을 계속 이어왔다. 이번 전시는 이전보다 더 경쾌하고 매력적인 작품으로 우주의 심연으로 상상의 여행을 떠나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 (02)734-0440~1

이은정 기자

이은정 기자의 뻔뻔(Fun Fun)한 레시피④

딸기 푸딩

오래 전에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 글을 본 적이 있다. "왜 학교는 산꼭대기에 지어졌을까요?" 무심코 흘려버린 말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웬만한 학교들은 다 오르막길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지방에서 모든 학창시절을 보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유달리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학교자체에서 버스까지 운행할 정도였으니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올라가는 길은 온통 밭들뿐이었는데, 유달리 학교주변은 딸기밭이 많았다.

사춘기 시절이 다 그러하듯,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이상하게 봄바람난 처녀마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다. 오후 보충수업까지 마치고 입이 심심하다 느낄 때면 친구들과 나는 항상 딸기밭으로 향했다. 아까운 청춘을 보충수업과 일명 '야자(야간자율학습)' 로 보내기엔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야자시간이 돌아오긴 전 작전을 세웠다. 야자시간이 시작되고 선생님들이 무단이탈자가 없는지 출석체크를 마치면 그때 몰래 교실을 빠져나오는 것이다. 날씨가 조금 풀리면 딸기밭에는 항상 사람들의 발길로 붐볐다. 밭주인이 직접 밭에서 따주는 딸기들을 한 바구니씩 사서, 벤치에 앉아 먹는 게 그 동네 풍경이었다. 우리도 교실을 탈출하면 밭주인이 만들어 논 원두막에서 딸기 한 바구니씩을 먹어 없애곤 학교로 들어갔다. 물론 운이 조금 따라주지 않는 날에는 딸기 먹은 에너지를 벌 서는 데에 다 쓰곤 했다.



#알고가기 1~5월이 제철인 딸기는 비타민 C가 풍부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 우유, 요구르트 등과 함께 먹으면 칼슘이 보충돼 골다공증 예방에 좋으며,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딸기는 습도에 약해 밀봉해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종이상자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관은 1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딸기를 구입할 때는 꼭지가 마르지 않고 진한 푸른색을 띠는 것이 좋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딸기 500g, 한천가루 10g, 설탕 3큰술, 물엿 반 컵, 소금

음식 만들기

① 딸기는 깨끗이 씻어 꼭지를 따고, 끓는 물에 넣고 5분간 끓여 준다.
② 끓인 물은 한번 걸러내 소금과 설탕, 물엿을 넣고 저어가며 다시 끓여 준다.
③ 어느 정도 물이 끓으면 한천가루를 풀어 넣는다.
④ 원하는 모양의 틀을 준비해 두고 딸기를 작게 썰어 넣고 틀에 부어 굳혀준다.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상담) / 010-3534-8366(농장)
■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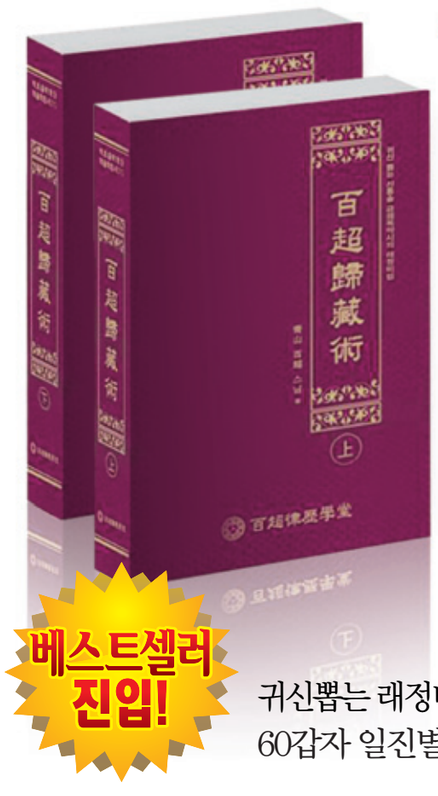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죽음을 애석히 여기며 슬퍼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동산사 ②



조동종 개창조인 동산 양개 선사가 가르침을 크게 편 보리선사(동산사)

동산사가 자리한 산자락을 가깝게 보니 마치 고향집 같이 포근하다. 산길을 걸어올라 가빠진 숨을 고를 만한 곳이 바로 현재 보리 선사(菩提禪寺)로 불리는 동산사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것 같은 산자락의 길지(吉地)다. 아취형의 산문 벽에도 산세를 드러내는 두 줄의 주련이 쓰여 있다.

동산을 드리운 안개구름은 한겨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산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일어 한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네(洞中雲鎖三冬暖 山澗風生九夏寒).

동산 선사의 가풍을 드러낸 주련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어느 날 한 학인이 동산을 찾아와 다음과 같은 선문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안집 〈벽암록〉 43칙에 나오는 동산무한서(洞山無寒署)이다. 우리말로 풀자면 '동산의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 이다.

"몹시 덥거나 추울 때, 어떻게 해야 그런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습니까."

동산에게 부질없이 묻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도(道)란 구체적인 일상 속에 있지 관념의 허상이 아닌 것이다. 학인의 물음은 도(불법)를 묻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분별하지 말고 실상을 바로 보면 된다는 대답이다.

"그럼 어떤 곳이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입니까."

"더울 때는 그대 자신이 더위가 되고, 추울 때도 그대 자신이 추위가 되라!"

그대 자신에게서 도를 봐야지 밖에서 찾지 말라는 일갈이다.

> 황벽은 노모 내쫓아 도를 이루고
> 동산은 노모를 그리다 도를 이뤄

산문을 조금 지나니 천왕문이 나타난다. 천왕문 벽에도 조동종의 종지인 오위군신(五位君臣)이라는 선어(禪語)가 쓰여 있다. 오위란 본체와 현상이 하나가 되는 다섯 단계를 말하고, 군신이란 왕과 신하의 자리가 바뀌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절대자유, 즉 체용일여의 경지라고 한다. 오위군신은 편정회호(偏正回互)라고도 하는데, 편과 정은 현상과 본체이고 회호란 열린 관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너무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어서 머리가 무겁다. 더 자세한 뜻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선학사전〉을 펼쳐보라고 하고 싶다. 이런 조동종 종지보다는 동산 선사의 어머니 얘기가 나는 더 끌린다. 황벽 선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두 선사의 어머니를 보면 그분들이야말로 선지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은 어디에나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라는 유태인 격언도 있다. 걸출한 두 선사 뒤에는 어머니의 숨은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모(母)와 자(子)가 불법으로 회호(回互)한 사연이 너무나 눈물겹다. 그 회호한 사연도 두 선사의 가풍만큼이나 다르다. 황벽 선사는 찾아온 어머니를 내쫓아 도를 드러내고, 동산 선사는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부처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

황벽 선사가 황벽산에서 수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살 때였다. 어느 날 한 노파가 황벽 선사를 찾는다고 한 대중스님이 전했다. 선사는 한 눈에 노모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다.

"저 늙은이에게 물 한 모금, 쌀 한 톨도 주지 말고 절에서 내보내거라."

절에서 쫓겨난 노모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걸인이 되었다. 그러나 노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배고프고 병이 들어 대의강 강변에 이르러 죽고 말았다. 그날 밤 황벽 선사는 꿈에서 노모를 만났다. 선사가 노모를 인정사정없이 내쫓은 것은 세속의 정을 끊고 도의 길로 인도하기 방편이었던 바, 과연 노모는 천상에 태어나 있었다.

"내가 스님에게 물 한 모금 쌀 한 톨이라도 얻어먹었다면 다생으로 내려온 모자의 정을 끊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님이 나를 내쫓았을 때 모자의 정이 다 끊어져 도의 길을 본 공덕으로 죽어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으니 스님의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일설에는 황벽 선사의 노모가 절에서 쫓겨난 뒤 선사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눈이 멀게 되어 대의강 나루터 오두막에 살게 되었는데, 노모는 선사를 만나기 위해 오가는 스님들의 발을 씻겨주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사고가 나 한쪽 발가락이 없는 선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선사는 몰라볼 정도로 변해버린 노모를 만나 발을 씻게 되었지만 자신을 감추고 만다. 노모가 한쪽 발을 내밀어달라고 하는 순간 노모임을 알아채고는 종기가 나 씻을 수 없다고 하며 일어서버렸던 것이다. 얼마 뒤 노모는 동네사람들에 의해 선사가 왔다가 갔음을 알게 되어 크게 낙담하여 죽게 되고 선사가 찾아가 화장을 해주었다는 또 다른 이야기다.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도 엄혹하고 준열한 황벽 선사의 가풍이 다 드러나 있지 않나 싶다.

그렇다고 인정사정없는 수행자가 도인이란 말은 아닐 터이다. 선어록에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행간을 짐작해본다면 아무리 매몰찬 황벽 선사라 해도 꿈에서 노모를 만나고 나서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합장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눈물이 아니라 감정에 매이지 않는 그런 눈물을 흘렸을 터이다.

반면에, 동산 선사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봄바람처럼 부드럽다. 또한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은 동산 선사를 위대한 선승으로 이끈다. 동산 선사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학인들이 강원에서 배우는 〈치문〉에도 나온다. 선사가 20세 전후에 부모님과 하직하고자 띄운 편지다.

〈…경에서는 '자식 하나가 출가하면 9족이 하늘에 태어난다' 고 하였습니다. 저 양개는 맹세코 이 생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영겁 티끌몸(根塵) 그대로 반야지혜를 활짝 깨치려 합니다. 바라옵건대, 부보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시어 속으로 자꾸만 생각지 마시고 거룩한 정반왕과 마야부인을 본받으소서. 뒷날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기를 기약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헤어지고자 합니다.

저 양개는 부모 봉양 못했다는 5역죄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금생에서 구제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몇 생을 기다려 구제할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부모님께서는 저를 잊어주소서…〉

마음은 이미 불문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어머니에게 마음을 돌리라는 동산 선사의 효심이 내 영혼을 적시는 것 같다. 선사는 10년 후 다시 오매불망 자신을 기다릴 것 같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편지를 띄운다.

〈…어머니께서는 마음을 거둬들여 도를 바라보고 생각을 다잡아 공(空)으로 돌리소서. 이별의 마음을 머물려 두지 마시고 문에 기대 기다리지 마소서.

집안일이란 인연을 따르는 것이어서 갈수록 늘어나 나날이 번뇌만 더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님은 힘써 효도하여 얼음 속에서 고기를 얻어낼 것이며, 아우는 힘을 다해 모셔서 서리 속에서 죽순이 나오라고 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닦고 효도를 하여 본성(天心)에 합하고, 이 사문은 불법문중에서 도를 바라보고 참선하여 어머님의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 절집이 무사하려면 떠날 때
> 시끄럽게 요동하지 말아야

마침내 노모가 오랜 동안의 기다림을 접고 선사의 뜻대로 정진하여 부처가 되기를 바란다는 답서를 보내기에 이른다.

〈…자식은 어미를 버릴 마음이 있으나, 어미는 자식을 버릴 뜻이 없습니다. 스님이 일단 다른 곳으로 떠난 뒤에는 밤낮으로 항상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되었으니 너무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 스님 뜻대로 하기를 허락하겠습니다.

나는 다만 스님이 목련존자처럼 되어서 나를 구제하여 윤회에서 해탈케 하고 나아가 부처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무거운 죄를 짓는 것이니 깊이 새겨듣도록 하십시오…〉

강원의 학인들이 동산 선사의 편지를 읽는 동안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번질 것 같다. 훗날 동산 선사가 되고 목련존자가 되기를 갈망하지 않을까 싶다.

방장실 안을 기웃거리는데, 조인중광(祖印重光)이란 선어가 보인다. '조사의 심인이 거듭 빛난다' 라는 뜻이리라. 문득 나는 '그 빛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상념에 잠긴다. 캄캄한 방에 불을 켜는 것이 화두라고 한 말도 떠오른다. 동산 선사 묘탑은 절 바로 뒤편에 있다. 둥그런 형태의 묘탑 보호각에는 개산시조 양개 선사 혜각보탑(開山始祖良价禪師慧覺寶塔)이라고 쓰여 있다. 혜각은 황실에서 내린 법호이리라.

순례 일행은 묘탑 앞에서 향을 사른 뒤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고 합장한다. 동산 선사께서 입적 무렵에 하신 법문이 가슴을 친다. 선사께서 '조사열반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인 뒤 입적에 드신 것이다. 〈동산록〉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바로 천화(遷化) 편이 아닐까 싶다. 그대로 옮겨 본다.

〈…이윽고 머리 깎고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라 명하고는 종을 울려 대중과 하직하더니, 엄연하게 앉아서 천화하셨다. 그때 대중들이 울부짖고 통곡하며 한참을 지나도 그치질 않자 선사가 홀연히 눈을 뜨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출가인이라면 마음을 사물에 붙이지 않아야만 진실한 수행인이다. 삶을 수고롭게 하고 죽음을 애석히 여기며 슬퍼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시 일을 주관하는 원주에게 우치재(愚痴齋)를 준비하라 하셨다. 대중들이 그래도 연연해 하자 7일간 연장하셨다. 음식과 도구가 갖추어지자 선사는 대중을 따르다가 재가 다하자 이윽고 말씀하셨다.

"절집이 무사하려면 대체로 떠날 때 시끄럽게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윽고 방장실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서 영영 떠나시니 그날은 함통(咸通) 10년(869) 3월이었다. 세수 63세 법랍 42세 시호는 오본(悟本), 탑은 혜각이라 이름하였다…〉

묘탑 보호각 뒤로 가서 철문을 여니 탑을 세운 제자들의 이름들이 보인다. 사법제자(嗣法弟子) 21명이 열거돼 있다. 그런데 본적(本寂), 광인(匡仁), 보만(普滿), 도출(道出), 거둔(居遁), 성계(成啓) 뒤에 7번째로 신라출신의 구법승 금장(金藏)이 보인다. 동산 선사의 걸출한 제자들 가운데 당당하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음이 예사롭지 않다. 다만 행적을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 〈경전전등록〉 권17에 이름만 올려놓고 있을 뿐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이다. 그래도 묘탑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선승이었음이 확실하다. 이번에는 금장 선사의 영혼을 부르며 고개를 숙인다. 〈계속〉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도(道)를 이룬 동산 양개 선사 묘탑.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 ~ 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룸비니 Lumbini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기도성취 영험도량

간경화, 치매, 각종 난치병 치료보장, 사업성취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전통 범음 범패

실전위주 학인모집
사물,바라,나비무,화청,천도재,49재,
점안식,수륙재,영산재,상담학
각 사암 행사전문.
선착순 무료강의 모집
031)953-3328
010-8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서 류 대 행

전통사찰 등록
종교법인 등록
문화재 등록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부산 무형문화재 연수원 (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구, 해동사)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빙의 퇴마 전문

정신질환, 영가장애,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들, 상담 치료 전문
일주사 주지 일주 합장
061)337-9989
017-624-9989

각종 전통불교 재의식 해드립니다(바라나비무)

열분의스님 항시대기
개업,막힌영업장 고사전문
소원성취적중
형편과 시간없어 못배우신
범패의식을 배우고저 하시는분에게
직접방문 속성교습도 해 드립니다
010-5325-8123
홍인범패단장 홍인 (합장)

조상영가천도와 축혼제(畜魂祭)

• 일시 : 2011년 4월 27일
부산국제신문사대강당
조상영가천도와 구제역으로 희생된
가축들의 원혼을 해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강문홍,조갑연,강병국,강병철,진현주
010-3871-2398
후원 : 동양당한약방(경남 산청군)

수강생 모집

사주,궁합,택일, 성명학
사주학 초보에서 실전개업까지
최단기간 비법특강.
자격증 수여. 수강료 저렴.
수시접수
30년 전통 대한역학교육원
02)763-4566

천도재 및 각종의식

최선을 다하여
집전하여 드립니다
- 법문, 바라, 나비춤, 살풀이 -
사찰 행사 전문
010-3772-5431

수 강 생 모 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불당사)
042)526-1123
010-3452-1123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한 가족같이 함께 지낼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거사님 모십니다.
051)242-16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남양주시 백련암
016-293-1705

전통의약 비법전수(포교활동)

- 전수내용 : 악성관절염, 악성목허리 디스크, 악성골수염, 악성오십견, 갑상선 물혹, 편도종양등으로 병원에서 완치가 어려운 분에게 해당
- 전수희망자 : 포교에 뜻있는 스님(유료)
- 무료치료 : 아픈스님께 무료보시

010-6285-3703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대체의학 비법

악성 오십견, 병명없는
허리통증, 통풍, 대상포진
(1 ~ 3회 완치)
비 법 전 수
010-7703-3825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7232-0384

명리학 무료 특강

사주,궁합,택일,성명학
초급 3개월 완성
한문 모르시는 분 한자교육
명심보감 사서삼경 특강
남녀 단체 환영 (수양하실 분 기숙가능)
상도서당 명리원
043)852-1952
011-2090-800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5세,
보시금 상담 후 결정
010-2068-008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12-981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9308-991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논산)
참신한 수행스님 원합니다
011-408-506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사무실 직원 구합니다

042)272-1223
010-5792-3000

공양주 보살님, 종무소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시 울주군
011-368-3882

남,녀 재가불자 공부하실 분 조건없이 배려 하겠습니다

김해 효운사 055)342-0379
011-856-4578 (효운 스님)

불교 공부방 개설안내

어떤 종류의 불교서적
이라도 법보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산 308번지)
010-9029-4200
기도암 송암 합장

옴훔훔마니달리훔타칙

• 아주 특수한 기도법
승려에 한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청도 한재 미나리 진액

흰 민들레, 강화약쑥
비만해소, 고혈압, 수족냉증, 노화방지, 숙취제거, 간질환, 위암, 폐암, 유방암, 항암효과, 변비, 만성피로
60개 1박스 6만원 (스님,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농협 356-0150-1551-73 정승열
지 장 암 010-2367-0200
010-5251-4196 (대명화보살)

도량관리 처사 (운전기사)님 모십니다

(성남, 50대)
숙식가능 하신 분
010-5264-8312

절에서 잔일 하실 노처사님, 도심포교에 뜻있는 법사님 모십니다

011-9707-3490

행자모집 3명, 공양주 1명 모집합니다

▷미암사
010-7262-2959

의 식 대 행

49재 천도재 및 각종의식은
나비춤이며, 바라춤 등의 영산작법으로
경건,엄숙,찬탄의 극대화를
꽤하니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극히 적은 보수에도 흔쾌히 달려가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인연
맺었으면합니다.
041)571-1112~3
010-5370-0888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철곡, 구미, 포항, 서울 동대문, 미국뉴욕, 중국 칭다오 ,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화, 금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 주 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문의 : 전화 053)474-8228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전화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大韓佛教謁平僧伽會

弘法과 救濟中生의 참 모습을 보일 慶州李氏 승려로 宗團 구분없이 一家 스님들을 會員으로 모십니다.
많은 동참으로 자성의 죽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佛紀 2555年 2月7日
초대會長 萬翁 道一 (전 해인사 주지)
연락처(수석 부회장) 弘山 玄佛 (禪農教團 총재)
041)943-7620 / 016-850-1208

사부대중 선별해서 전부 드림

작은처소, 넓은 도량임.
삼하안거 이상 비구니스님,
사교과 이상 사미니 가능.
이력서 제출 후 연락드림.
복지나 납골당 하실 신도도 가능.
010-4512-4248

사찰운영 같이 합시다

혼자 절을 가지면 죽을 때 가져갑니까?
안되는곳에 혼자절을 지어 짧은세상 어렵게 살지말고 6억 들여 시내 한편에 목조로 불사가 잘돼준비가 잘돼있는 이곳에 3천만원 가지고 들어와 같이 수행합시다. 금액은 절충 가능하며 등기도 분배해 드립니다.
비구, 비구니스님을 원합니다.
거사, 보살님도 좋습니다.
011-9837-8668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분거리 국도 옆)

■ 면 적 : 사찰 전시관 2층(신축) 240평 외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기념품판매장 총 2,500평
임야 : 1만 5백평 (임야 입구 30만평 대형저수지)
田 : 약 600평 (국도 옆) (건물 신축 가능)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 좌불(목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전시관 내 약 50여점 크리스탈 개금불 외 1,300 희귀 불상 전시 (국내최대). 전시관 외벽 일체 크리스탈 장식 만다라 액자로 장식. 년간 10만명 참배, 천도재 월 10건 이상

■ 전시관에 전시중인 크리스탈 개금불은 주지스님이 10년간에 걸쳐 조성한 창작개금불로서 일본으로부터 불교예술의 새역사를 연 작품으로 호평받고 있으며 절대 모방이불가능한 불상이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도 황홀함에 빠져드는 작품으로서 민간방송 총 17회 방영된 바 있습니다.

■ 양도가 : 35억

■ 사찰내역은 인터넷상에 '포항 성취관', 또는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을 입력 하십시오

■ 연락처 : 054)249-1023. 010-4504-0174
(필히 내왕 하셔서 직접 보십시오)

■ 자금력 있으신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3월 23일 (수) 오후 2시
3월 30일 (수) 오후 2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 초보반 별도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 597-1101. 011-9150-2284
노량진역(1.9호선)5번출구 동작구청 옆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청룡사
• 주 소 : 경남 밀양시 가곡동 816-2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진구
- 법당 : 20평
-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 가액: 2억 7천만원

010-7157-16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100평
- 가액 : 7억 5천

- 위치 : 충남
- 법당 : 20평
- 요사 : 45평
- 부지 : 170평
- 가액 : 1억 5천

- 위치 : 강원도(동해안)
- 법당 : 25평(목조)
- 요사 : 50평(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8억 5천만원

해운대 바다근처 토굴

- 대지: 56평
- 법당 및 요사, 방 3칸
- 해운대 10분거리, 송정바닷가 5분거리
- 정남향, 뒤편산세 최고
- 주차장 확보 , • 총금액 1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 인수하실분

- 위치 :부산시북구화명동 지하철3번 출구앞(바로옆롯데마트에 무료주차가능)
- 평수 : 140평 (최상의 교통 및 시설을 자랑합니다)
- 전세 보증금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절충 및 운영방안 협의가능
- 모든시설완벽하며,즉시법회 가능합니다
- 포교원 및 불교대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010-8677-7339

영천토굴터

- 위치: 영천시 고경면
- 시내에서 10분이내
- 2차선에서 100M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분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는 2억, 전세는 1억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절(사찰)별장하실분

- 경남 합천군 삼가면 대지 4300평
- 전통한옥3채, 황토집4채,화장실
- 대나무산책로및 최고의조경
- 교통요충지,주변환경좋음
- 총35억 가격절충및 분활판매가능
- 사찰및 연수원, 전통식품업 최적
- 네이버[연꽃인연]검색후연락바람

055)934-4488
010-3521-6920

한 국 불 사

- 위치 : 경기지역
- 가액 : 2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10-3154-35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중학교앞)
- 3층 37평중, 법당 20평,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영단, 침실, 직무실, 거실겸 주방
- 계단실내해우소, 뒤에 마당공간2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739-7788
010-9282-588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CCTV 설치되어 있음.
- 가액: 4억 3천만원

010-3112-3513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봉화 소천면 소재
- 평수 5000평(대지 200평)
- 조경완비
-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가뭄이 없음
- 앞-탁 트인 전경, 낙동강 상류
- 절이나 펜션으로 적격
- 청정지역 물 A급
- 가액: 3억 5천만원

010-5418-1232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1억 3천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위치 좋음
- 평수 500평
- 산신, 용왕, 법당, 요사채 각1동
- 심야보일러
- 가액: 3억

011-595-1522

포교원,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치악골
- 포교당, 별장, 사무실, 작업실, 전통찻집 갤러리샵으로사용가능한집
- 3층건물
- 가액: 3억

011-9917-7039

포교원 안내

- 위치: 김해시 외동
- 1층 50평
- 아늑한 포교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

011-9322-8888

부처님자리
(참선방 요양원)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변역 잠실역 1시간 內거리
- 평수: 3000평, 4000평, 5000평(선택)
- 특징: 정남향 조용하고 쾌적하며 접근성이 매우양호
- 가액: 평당 22만원(주인직접)

010-2215-3657

사 찰 안 내

- 충남공주시유구읍연종리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 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 우포늪(정남향)
- 면적: 총대지 320평
- 부대시설: 법당, 조립식 철골 24평(단청필) 석탑,화실,조립식 24평 요사,적벽돌기와 27평,황토방 4평
- 가액 : 1억8천만원(절충가)

010-6582-284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건물에 2층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전원주택(귀농)터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호 주변
- 경관수려하고,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있음
- 임야 . 논 총 954평
- 가액 : 7천 5백만원

011-848-2452

문경세재 아담한 암자(사찰)
최고의 명당 자리 절터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 종교용지 730평방미터
- 1평방미터 가격 150,000원 땅값 암자 명희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건물내역 : 산신각 1동 대웅전 1동, 요사채 2동 건물 (증여) 건물값은 받지 않고 드립니다
- 물물교환 가능

011-9535-11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 거리
- 건물 : 법당 (목조 토기와) 20평
- 시멘트 벽돌 슬래브 40평 38평(2동) 외 2동 (30평)
- 토지 : 종교용지 (850평)
- 임야 : 4,000여 평 (수련원, 복지 시설, 태양열 발전 등 적지)
- 가액 : 10억(조절가능)

010-3822-456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297-9149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 경찰 종합학교 뒷산)
- 평수 1,800평, 대지 200평
- 나머지는 문전옥답
- 신축사찰, 시설완벽
- 방7, 주방, 목욕탕, 실내
- 국도에서 800M, 아산시에서 포장완료
- 임대도 가능

010-5224-6239

토 굴 터 안 내

- 위치: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중감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던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4억

011-816-9104
010-3815-9104

명당고찰터안내

- 250년 사찰터,
- 약수물 있음
- 뒷산넘어 분당산책길 있음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직동
- 부지 1267평(일부토지정리함)
- 가액: 25억

017-361-33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명. 서울권
- 45평, 삼존불
- 보증금 2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A급 . 3천만원중 1천 5백만 받습니다

02)2618-09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평수 약 60평
- 4층건물 3층
-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모든시설완벽, 주차장완비

010-2644-04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상리 878-50 동, 병산리 산 168-2 총 5,830평 법당 1동, 요사채 및 종무소 2동, 극락전1
- 특징: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도로망: 교통편리)
- 입주조건 : 임대 (장기) 또는 매수하실 분
- 임대 또는 매매가액은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주,야 통화가능)
02)403-3333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옥천군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450평 (등기필)
- 기와법당 20평(2층 단청필)
- 요사채 38평, 창고 15평
- 옥외화장실 및 창고 6평
- 6층석탑(제주석),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방문시 절충요

010-7517-7037

포 교 원 안 내

- 위치:부산시 해운대구재송2동
- 평수: 30평 (삼존불, 지장, 신중, 산신탱화, 최상급인등)
- 유동인구많은 아파트 밀집지역, 등산로, 최고위치, 몸만 오면 됨
- 보증금 3000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4534-3646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 상당구 시내 중심가
- 대지 95평, 건평 100평
- 법당 35평, 방4, 거실, 화장실
- 미륵부처님 1분, 삼층석탑 1 삼존불, 108후불
- 산신각, 산업용전기보일러
- 가액: 2억 8천만원 (절충가)

010-8121-3334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재역에서 2분거리 (지하철 3호선)
- 3층 건물중 2층 (약 15평)
- 보증금 시설 합 3천만원 (월 45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강남에 이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 현재 포교원 및 철학

010-2090-44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 면적 40평
- 아미타, 관음, 지장, 신중, 후불탱화
- 큰방3개, 큰 창고 1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800만원

055)383-7708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고흥군
- 산세 수려하고 물 좋은 천년고찰터
- 고흥 초입 4차선 도로에서 저수지끼고 2km에 있는 아주 고요하고 청정한 도량
- 선방, 기도처, 복지시설 최적지
- 종교용지 200평, 임야 11,500평
- 임법당, 목조토기와 5칸 27평
- 요사채 50평 • 가액: 7억 5천만원

010-6778-191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10-3302-1821
055)638-182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 면적 40평
- 아미타, 관음, 지장, 신중, 후불탱화
- 큰방3개, 큰 창고 1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800만원

055)383-7708

포교원겸 사찰안내
스님 법사님 보살님 불자님께

- 위치:전주시내 중심
- 상가주택, 4층 중 뒤로 2층, 독채, 계단 별도 이용
- 대지 122평, 마당있음
- 건평 45평, 큰방 4개, 다용도 방 1
- 거실 주방 깔끔, 욕실 2개, 전체 리모델링
-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큰 시장 5분거리
- 다양한 용도 사용가능, 대가족 환영
- 부처님 법단 원목조각 13자, 집기 대형냉장고 가정용 세탁기, 에어컨, 기타 등등.부처님만 모시고 오세요
- 전세: 5천 7백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저렴

010-3650-8481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임야 10,000평, 대지 200평

010-4876-5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1억 2천 투자했음
- 보증금 3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저렴. 상담 후 절충

010-4199-0047

사 찰 안 내

- 위치: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중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 5천만원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토 굴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용전마을 뒤
- 건물 2채, 인법당, 입식부엌, 방3칸
- 텃밭 50평
- 가액: 4년 임대료 1,000만원

011-9393-4965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운문면
- 법당,산신각,요사채,화장실
- 대지(전)1,012평
- 운문댐근교,주차시설용이
- 50여년된 작은 고찰
- 가액 1억5천만원

011-504-4321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경주시 서면시내 15분거리
- 뒤산자락물고조용하고아름다운곳
- 교통 최고 마을 인접
- 총대지 650평
-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화장실2, 부속건물2동
- 각종 유실수 조경완벽
- 가액: 3억 2천 5백만원(절충)

010-4802-3836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진구
- 법당 : 20평
-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 가액: 2억 7천만원

010-7157-161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외관 근교
- 평수 약 510평, 메뚜기 노는 잔듸마당
- 법당 25평 목조단청 산신각 단청, 요사채 2동
- 가액 : 4억 3천만원
- 융자 4천포함(가액조절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10-5054-6782

사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5평
- 가액 : 13억5천

- 위치 : 강원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3억2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당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 진주시내에서 10km 거리
- 건물 : 법당 (목조 토기와) 20평
- 시멘트 벽돌 슬래브 40평 38평(2동) 외 2동 (30평)
- 토지 : 종교용지 (850평)
- 임야 : 4,000여 평 (수련원, 복지 시설, 태양열 발전 등 적지)
- 가액 : 10억(조절가능)

010-3822-456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297-9149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 경찰 종합학교 뒷산)
- 평수 1,800평, 대지 200평
- 나머지는 문전옥답
- 신축사찰, 시설완벽
- 방7, 주방, 목욕탕, 실내
- 국도에서 800M, 아산시에서 포장완료
- 임대도 가능

010-5224-6239

토 굴 터 안 내

- 위치: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중감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던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4억

011-816-9104
010-3815-9104

명당고찰터안내

- 250년 사찰터,
- 약수물 있음
- 뒷산넘어 분당산책길 있음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직동
- 부지 1267평(일부토지정리함)
- 가액: 25억

017-361-33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명. 서울권
- 45평, 삼존불
- 보증금 2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A급 . 3천만원중 1천 5백만 받습니다

02)2618-09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평수 약 60평
- 4층건물 3층
-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모든시설완벽, 주차장완비

010-2644-04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상리 878-50 동, 병산리 산 168-2 총 5,830평 법당 1동, 요사채 및 종무소 2동, 극락전1
- 특징: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도로망: 교통편리)
- 입주조건 : 임대 (장기) 또는 매수하실 분
- 임대 또는 매매가액은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주,야 통화가능)
02)403-3333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옥천군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450평 (등기필)
- 기와법당 20평(2층 단청필)
- 요사채 38평, 창고 15평
- 옥외화장실 및 창고 6평
- 6층석탑(제주석),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방문시 절충요

010-7517-7037

포 교 원 안 내

- 위치:부산시 해운대구재송2동
- 평수: 30평 (삼존불, 지장, 신중, 산신탱화, 최상급인등)
- 유동인구많은 아파트 밀집지역, 등산로, 최고위치, 몸만 오면 됨
- 보증금 3000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4534-3646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 상당구 시내 중심가
- 대지 95평, 건평 100평
- 법당 35평, 방4, 거실, 화장실
- 미륵부처님 1분, 삼층석탑 1 삼존불, 108후불
- 산신각, 산업용전기보일러
- 가액: 2억 8천만원 (절충가)

010-8121-3334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재역에서 2분거리 (지하철 3호선)
- 3층 건물중 2층 (약 15평)
- 보증금 시설 합 3천만원 (월 45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강남에 이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 현재 포교원 및 철학

010-2090-44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 면적 40평
- 아미타, 관음, 지장, 신중, 후불탱화
- 큰방3개, 큰 창고 1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800만원

055)383-7708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고흥군
- 산세 수려하고 물 좋은 천년고찰터
- 고흥 초입 4차선 도로에서 저수지끼고 2km에 있는 아주 고요하고 청정한 도량
- 선방, 기도처, 복지시설 최적지
- 종교용지 200평, 임야 11,500평
- 임법당, 목조토기와 5칸 27평
- 요사채 50평 • 가액: 7억 5천만원

010-6778-191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10-3302-1821
055)638-182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 면적 40평
- 아미타, 관음, 지장, 신중, 후불탱화
- 큰방3개, 큰 창고 1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800만원

055)383-7708

포교원겸 사찰안내
스님 법사님 보살님 불자님께

- 위치:전주시내 중심
- 상가주택, 4층 중 뒤로 2층, 독채, 계단 별도 이용
- 대지 122평, 마당있음
- 건평 45평, 큰방 4개, 다용도 방 1
- 거실 주방 깔끔, 욕실 2개, 전체 리모델링
-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큰 시장 5분거리
- 다양한 용도 사용가능, 대가족 환영
- 부처님 법단 원목조각 13자, 집기 대형냉장고 가정용 세탁기, 에어컨, 기타 등등.부처님만 모시고 오세요
- 전세: 5천 7백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저렴

010-3650-8481

두려운 방사능, 다시마로 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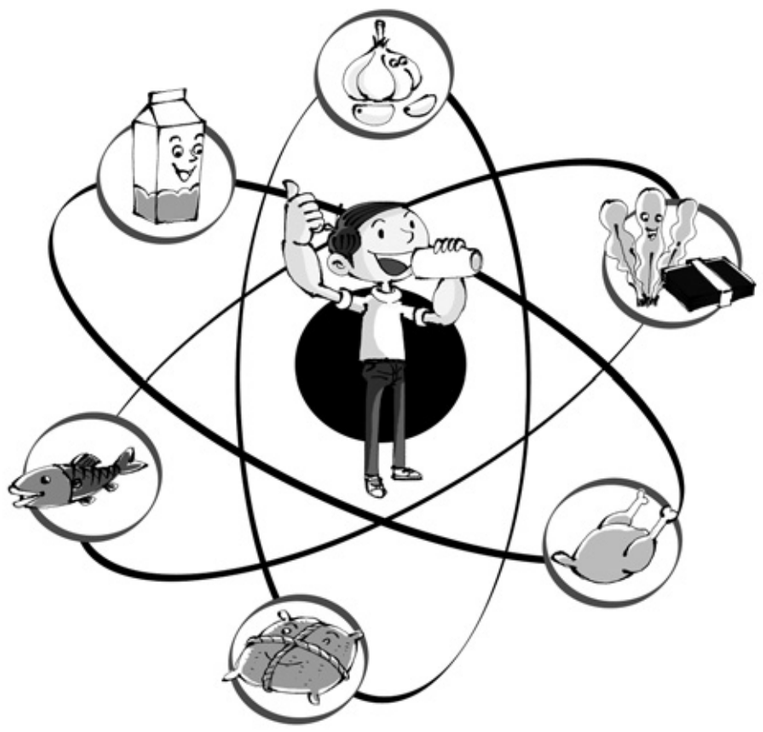
방사능 축적 막는 자연 요오드식품 알아봐요~

"방사선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비(非)방사성 요오드(자연 요오드, 안정화 요오드)로 몸을 채우면 방사능물질이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 한다"

– 한국원자력의학원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함에 따라 에다노 유키오 일본 관방장관은 3월 15일 "후쿠시마 원자로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량이 인체의 건강에 영양을 미칠 수준에 다다랐다"고 발표했다.

방사능물질인 세슘과 요오드-131이 누출돼 일본 정부는 인근거주 주민에게 비상 치료제로 23만병의 요오드제를 배포했다. 방사능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는 요오드 섭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오드' 무엇이길래 배포하나?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누출된 방사능에는 요오드와 세슘 등 성분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요오드를 복용하라고 한다. 참 혼란스럽다. 요오드는 무엇이고 왜 복용할까?

요오드(iodine)는 인체의 필수 미량성분이다. 몸에 평균적으로 14㎎ 정도 들어 있으며 대부분은 갑상선에 들어 있다. 갑상선은 인체의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신진대사를 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요오드를 포함하고 있는 호르몬, 특히 티록신을 분비한다.

요오드에는 요오드-131 등 방사성 요오드와 비(非)방사성 요오드가 있다. 방사성 요오드는 체내에 들어가 갑상선에 농축되면서 세포를 공격해 후두암, 갑상선 암을 유발 할 수 있다.

요오드화나트륨(NaI), 요오드화칼륨(KI) 등 비(非)방사성 요오드 화합물을 미리 복용하면 이들 물질이 갑상선에 이미 가득 차 몸에 쌓이지 않고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된다. 또 방사능에 노출된 상태라도 위와 같은 요오드제를 섭취하면 20% 안팎이 갑상샘에 남고 나머지는 전신으로 퍼져 소변으로 배출된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mg의 요오드화칼륨을 1회 복용하면 요오드-131의 90% 이상이 갑상선에 도달하기 전에 배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여 시기는 방사능 피폭 24시간 전후가 가장 바람직하다. 특이 체질이면 드물게 요오드제 섭취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비(非)방사성 요오드는 자연 요오드라고도 불리며 흔히 먹는 김이나 미역 등 해조류에 많이 함유돼 있다.

요오드제 부작용

비방사성 요오드로 과다 섭취시에는 피부발진, 침샘부종이나 염증, 요오드 중독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존 갑상선이 좋지 않은 환자의 경우 요오드를 과다 복용하면 갑상선 질환이 악화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의학계에서는 요오드제 복용을 어른 기준으로 하루에 1/2알 또는 1알로 한정하고 있다.

요오드 음식도 피폭시엔 다소 도움이 되지만 방사능에 대한 공포 등 걱정으로 과다섭취 할 때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방사능에 노출시 어떻게 해야 하나

방사선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X-RAY나 CT를 촬영할 때 뿐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도 방사선에 노출된다. 자연상태에서만도 연간 2.4 밀리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을 쬐게 된다. 방사선 관련 작업자들의 연간 허용 피폭량은 50 밀리시버트다. 그러나 500 밀리시버트가 넘으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1000 밀리시버트가 넘으면 가벼운 피폭 증세가 나타난다. 2000 밀리시버트가 넘으면 구토, 탈모 등 심각한 피폭증세를 보이고, 4000 밀리시버트가 넘으면 한 달 안에 피폭자의 절반 가량이 사망하는 중대한 상황에 이른다.

임상무 원자력병원 핵의학 과장은 "방사능이 검출되도 옷만 벗어도 묻어있는 방사능은 90%가량 제거된다. 세슘은 프러시안 블루, 방사성 요오드는 요오드제를 통해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산 농수산물은 안전한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농수산물은 안전할까?

일본산 농산물은 2010년 한 해 동안 약 11만㎏이 수입됐다. 주요 품목은 멜론, 호박 등이다. 수산물로는 국내 대형마트가 생태를 중심으로 생물 갈치, 고등어 등 신선식품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메론, 호박, 파, 고추냉이(와사비) 등 30종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시작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25년 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이후 구소련 지역에서 들여오는 농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해왔다"며 "일본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은 3월 14일 "예방적 조치로 농산물의 산지와 오염 가능성에 근거해 가공되지 않은 과일과 채소 등 일본산 농산물을 표본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현재 상태로는 일본산 농수산물을 먹어도 방사선에 노출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가 앞으로 규모가 커질지, 현재 수준에서 통제가 될지 아직 불투명하지만 아직은 대기 중으로 퍼진 방사성 물질의 양과 세기가 생태계를 교란할 만큼 크진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김은희 교수는 3월 15일 현재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지만 대기 중으로 널리 퍼져 농도가 옅어져 아직 일본산 농수산물을 먹고 2차 오염이 될만 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바다에 방사성 물질이 떨어져 생선이 이를 먹는다고 해도 그대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생선 자체의 생물학적 신진대사로 방사능이 낮아지기도 한다"며 "현재로선 당장 생태계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심각해질 시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다.

방사능, 중금속 해독에 좋은 음식

1. 해조류

모든 해조류에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지만 제주 연안에서 자라는 감태와 모자반, 방탕말 등의 해조류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특성 외에도 노화방지, 피부질환 개선,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2. 현미

현미는 외피의 주성분인 피트산과 섬유소가 인체에 축적되기 쉬운 중금속을 배설시켜 준다고 한다.

3. 마늘

마늘은 해독에 좋기로 유명한 식품 중 하나이다. 중금속, 방사능 해독이 아니라도 평소 먹어두면 좋다. **천진영 기자**

한국영양학회 식품 요오드 함량

식 품 명	요오드 함량
다시마(건조중량2g)	3581mg
마른 김 1장	71.4mg
꽁치 작은 것 1도막	65mg
마른명태 작은 것 1도막	55mg
굴 40g	50mg
액상요구르트 150ml 플레인 1개	46mg
우유 200ml	41mg
멸치 15g	33mg
닭고기 100g	33mg
계란 중간 것 1개	15mg

건강한 마음, 행복한 人生

우연이란 없다

결과에는 원인이, 인연에도 까닭있어 모두가 하나라는 동체대비심 가져야

요새 필자의 화두는 '일심동체(一心同體)'이다. 한 마음, 한 몸과 같이 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여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며 각자의 그릇과 역할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새삼 느끼고 있다. 즉 세상에는 그 무엇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 우연같아 보일 뿐 언제나 그러하게 된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며, 내가 그곳에 이르게 되는 이유도, 우리가 그렇게 인연 맺게 되어지는 것도 언젠가 씨앗의 종자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도래(到來)한 것이다.

지금은 입춘도 지난 완연한 봄이다. 절기가 존재한다는 건 사람으로 하여금 계절의 흐름에 따라 현명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알게 해주며, 그날의 작은 이벤트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절기에 따른 각 이벤트에 따른 작은 기대에 생각나는 이에게 설레임도 전해보고, 잊고 지내던 이에게 쑥스럽지 않게 인사를 건낼 핑계거리도 마련해 주니 말이다.

이러한 절기라는 법칙 또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태양의 운동에 의해 결정되는 계절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고 집중하여 얻은 결과이다. 다시말하면 자연과 일심동체하여 애민(愛民)과 관찰이라는 인(因)이 발휘되어 나온 과(果)이다. 이처럼 합일(合一)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절기라는 진리를 제공해준 것처럼 어떤 종교 철학보다 유익한 에너지를 발생하기도 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지진과 쓰나미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은 이들이 겪고 있다. 필자는 바로 그 며칠전 일본에 다녀온지라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은 마음이 더 절실했지만 내가 그곳으로 당장 달려 갈 수도 없고 마음만 안타까워 하고 있을 뿐이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비와 평화의 에너지를 모아 전하는 일이었다.

그날 모인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우주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모두 두손 모아 각자의 방법으로 기도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 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손을 맞잡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 화평의 세상이 오기를 기원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연평도 폭발 사건 등으로 괴로움이 가득 차 있을 때 세계적인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트위터를 통해 한국평화를 위한 기도운동을 제안했다고 한다. 역시 생각이 같고 통(通)하는 인(人)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다. 필자는 트위터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모든 존재는 내 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同體]으로, 큰 마음[大悲]을 나눈다면 반드시 평화로운 구원의 세상이 온다는 건 안다. 그날 저녁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한강의 달을 바라보며 난 다시 기도했다.

시간은 절기를 보태며 농익어 가듯, 한강이 여전히 흘러가듯, 시간과 계절에 순응하며 내가 곧 너이고, 너가 곧 나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 간다면 따사로운 햇살이 항상 동체대비로 함께 할 것이다. 서로 일심동체하여 나눌 수 있다는 건 한 세상 살아가면서 꽤 축복받은 일이다. 다시 한 번 이 세상은 화평하게 만인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보길 바래본다.



카루나마인드힐링연구소 박지숙 박사

828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계양구
• 평수 40평, 3층의 2층
• 삼존불, 집기일체,
• 시설비 3천 5백만원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010-8871-53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남양주시 호평역 앞
• 평수 3.4층 각 70평
• 종무소, 법당, 창고, 주방
• 가액: 보증금 4천만원대 월 150만원, 시설비 절충
• 지방 불사 관계로 인해 안내함
011-516-556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 19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비품 일체 포함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010-6787-66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 건평 1,2층 약 60평
• 대지 340평
• 임대료 5000만원 월 100만원
011-9707-3490

사찰 및 별장터
• 위치: 강원 횡성군 우천면
• 영동고속도로 새말 IC 5분
• 청정계곡방향, 관리지역 임야 약 5000평
• 가액: 평당 2만원
이수공인중개사
010-4293-7474
033)765-5549

사 찰 운 영
• 위치 : 경북 청도군 풍각면
• 전체 160여평
• 법당 30평, 식당
• 3천불 봉안
• 전세 500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조절가능)
• 비구니스님 운영사찰임
010-5218-401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심곡 2동 부천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부천자유시장에서 3분거리
• 4층 건물중 2층(40평)
• 보증금 일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700만원
• 지방이전, 절충가능
032)655-666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달맞이고개)
• 평수 : 60평
• 보증금 : 일천만원 월 : 70십만원
011-9461-3712

사 찰 안 내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 시내인접
• 대지: 256평
• 시유지 (하천부지)100평
• 법당:30평, 요사 30평 (심야보일러)
• 가액: 4억 5천만원
010-8643-6676

경관좋은사찰터안내
• 위치 :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 부지 : 총 2만 2천평
• 도로 39호 지방도로 접, 전면 170M
• 옆 계곡 있음
• 청정한 계곡과 수려한 명당터
• 가액: 평당 4천 5백원 몽땅 9900만원
010-7246-0100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동
• 평수 : 총 120평
• 3층: 90평, 법당 45평 방5, 화장실4, 후원 및 주방
• 4층: 30평 요사
• 시설 A급 모든시설완비, 현 법회중
• 삼존불, 후불, 인등 300등, 관음원불 108불, 삼성각 있음,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679-10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송내역에서 5분거리
• 5층건물중 4층 전체 43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
• 시설비 2천만원 합 3천
• 즉시법회 가능, 엘리베이터 있음
• 시설 최신형으로 완벽함
010-6674-1356
010-6286-5775

포교원(사찰)안내
• 위치 : 충북 옥천(대전경계) 아파트, 상업지역
• 대지 130평, 2층 80평(요사, 법당)
• 대전, 옥천 IC, 역, 터미날, 아파트, 상가, 홈플러스, 재래시장5~20분이내외 상권지역)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거주모든 시설 완비
• 보증금 2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4500만원(답사 후 조정)양도도 가능
011-370-4956

선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3동 75-27(2층)
• 평수 : 38평
• 아미타불 삼존불
• 대통 왕 쑥찜질방 영업중
• 살림가능
• 전세 1,500만원, 월 50만원
011-859-5550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고대로 부터 전해오는 지혜의 샘

자타카 이야기 ①

-황금접시-

구성-김홍인





교훈: 정직은 가장 좋은 방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야기 출처〉
지혜의 샘-영어가 쑥쑥 자라는 자타카 이야기(The Spring of Wisdom)
쿠루네고다 피야티싸 저 | 이추경 역 | 불광출판사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051) 515-8888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요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농 협:121068-56-042256[예금주:강태규]
◆우체국:612416-02-031008[예금주:강태규]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공단등(6cm) @2,700원(100개이상)
- 공단등(8cm) @3,300원(96개이상)
- 공단등(10.5cm) @5,500원(24개이상)
- 공단등(13cm) @12,000원(12개이상)
- 공단등(20cm) @35,000원(4개이상)
- 비닐만월등(특) 170,000원(100개)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1Box)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1Box)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1Box)
- 전 통 북 등 (50개) 150,000원(1Box)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1Box)
- 비단접등(10.5cm,12cm) 340,000원(100개)
- 바림등(6cm) @2,700원(100개이상)
- 바림등(8cm) @3,300원(96개이상)
- 바림등(10.5cm) @5,500원(24개이상)
- 바림등(13cm) @12,000원(12개이상)
- 바림등(20cm) @35,000원(4개이상)
- 칼라바림등(30cm) / 칼라공단등(30cm)

방수전선간격(50구)
22cm /25cm /30cm / 50cm
1m /2m ※기타주문생산


연잎(일반)
5,000원(1묶음)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안전 인증 제품
전구(5W/8W)
45,000원 [국산]
1BOX: 100개
제조원: 동진전구


연등속지백색 1묶음
6cm 3,500원 / 8cm 4,000원
10.5cm 4,500원 / 12cm 6,000원
※1묶음당 100개를 만들 수 있음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21c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6cm]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대행 스님

마음 차원을 높여야 허공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한마음으로서 도반들끼리 한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자리도 불편하신데 모두 한도반이 되셔서 같이 한자리를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절을 짓게 됐대요. 허허허.

여러분한테 저는 항상 마음으로 관하면서 말씀을 해 드립니다. 난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가 갈 길이 바쁜데, 시대에 따라서 세계가 가야 할 길은 바쁜데, 이렇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노니는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떤 때는 감사하면서도 슬그머니 눈물이 납니다. 그것도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순간순간 들었기에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기를, 내가 말씀이라고 그러는 건 나를 두고 말씀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생활을 하시는데 항상 고정된 게 없다고 말씀드리죠. '공(空)이 색(色)이다, 색이 공이다.' 할 언어가 붙지 않게 돼 있는 세상 살림살이, 그대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 살림살이, 보면 보는 대로 가 버리고 들으면 들은 대로 가 버리고, 만나면 만나는 대로 헤어져 버리고, 가고 오는 발자취도 떼어 놓는 대로 가 버리고, 먹으면 먹는 대로 가 버리고 남는 것이, 여러분이 쥐고 있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놓고 가는 생활인데 어째서 마음으로 그렇게 붙들고 헤매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옷을 못 입고 부자로 살질 못해서 그럽니까? 한철 나는 동안에 바람결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면 어떻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여여한데, 부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걸 떠나서 그대로 넉넉한데, 그대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라 '가고 온다, 찾는다 믿는다' 이런 것도 없을 텐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면서도 너무나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얻는 법이 있다면, 얻는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는 소립니다. 우리 생활이 그렇게, 바람결같이 그렇게 가 버리고 찰나찰나 이렇게 바람처럼 날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느냐 이 소립니다. 얻을 법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유(有)의 법이며 바로 인과법이며, 과보를 받는 법이며 윤회하는 법이라 생사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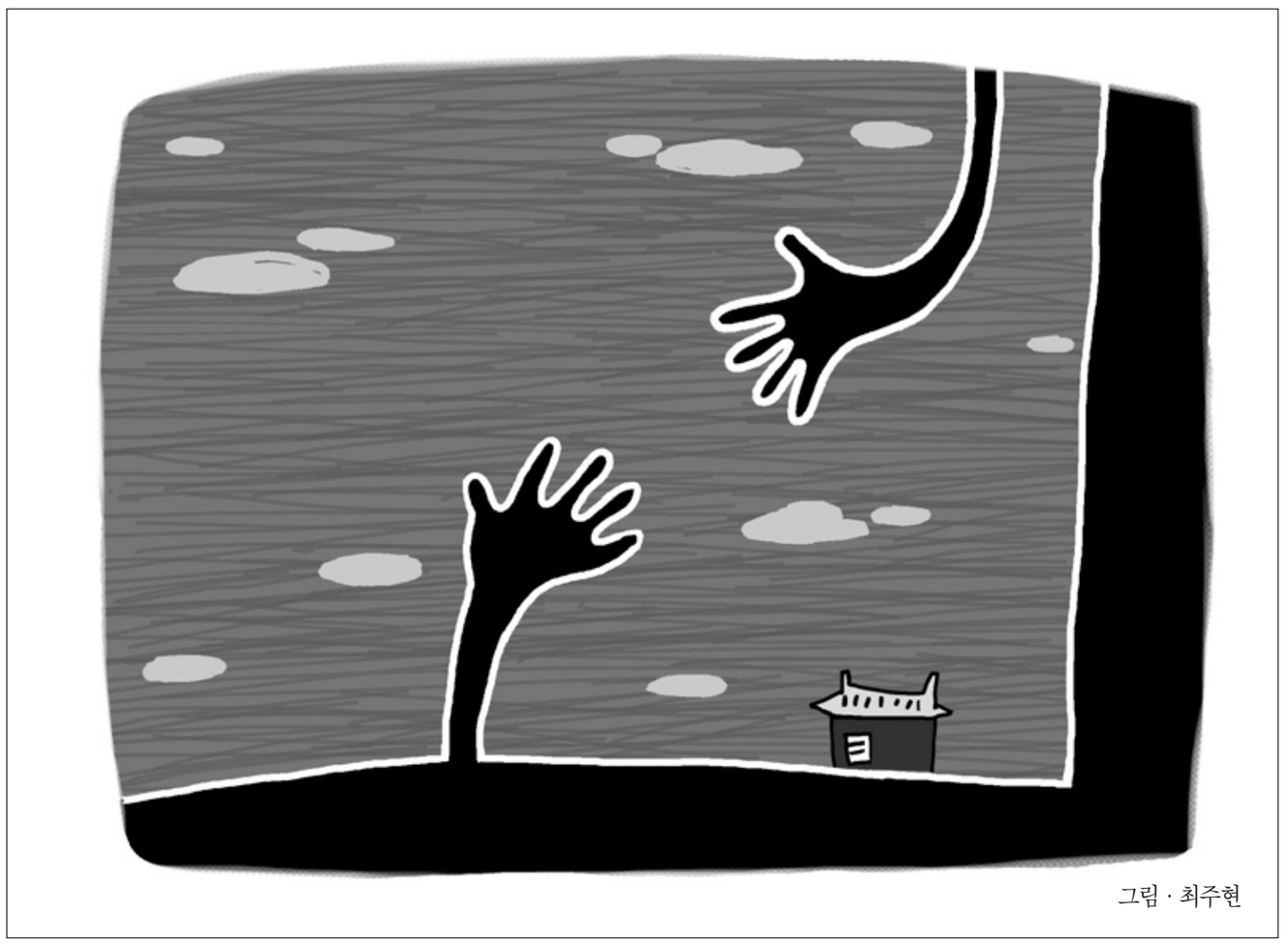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우리가 내 몸통 안에서 벗어나고 이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자유인이 되려면 내 주인공의 성품을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다고 하는 말과 그 이론을 다 제껴 놓고 얘깁니다. 내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바로 인과의 마음이며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외도라고 칭할 수밖에는 없죠. 부처란, 업도 없고 인과도 없는 지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에도 죽어야 하고 두 번째도 죽어야 하고 세 번째도 죽어야 한다 했습니다. 죽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내 현재의 마음이 과거의 성품한테 모든 걸, 주인공 성품한테 다 일임해라. '일임해라' 하는 것은 찰나찰나 날아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찰나찰나 나투면서 없어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임해라, 맡겨라, 놔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생각은 몸통 안에서 그 많은 생명들의 의식이 차곡차곡 입력이 돼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바로 과거 부(父), 주인공의 성품에 모든 거를 맡겨라 이러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인공의 성품이 그 몸속에 있는 의식을, 나의 모든 거를 다스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놨을 때에 비로소 과거의 나와, 즉 말하자면 주인공의 성품을 부(父)라고 한다면, 현재에 사는 나의 마음을 자(子)라고 한답니다. 자와 부가 한데 합쳐졌을 때에 바로 내 정통의 마음은 탄생하는 겁니다. 그거를 견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견성을 했어도 했단 말 하지 말라.' 고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애를 방금 낳은 거와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를 낳은 것을 돈오(頓悟)라고 한다면, 어른이 될 때까지 길러지는 것은 점수(漸修)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길러져서 어른이 된다면 그거는 성불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합류화시켜서 용무를, 작용함이 없이 작용할 줄 알아야만이 또 그것은 구경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 죽어야 하는데, 즉 다 죽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거기까지 당도할 때는 어떤 이름이 붙여지느냐 하면 돈수(頓修)가 붙여집니다. 돈오 · 점수, 그것이 합류화돼서 화했을 때는 바로 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우리가 제껴 놓고 생활하는 데서 얻어라, 생활하는 데서 당신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모든 것이 벌어졌으니 그 벌어진 생활을 하되, 모든 것이 그렇게 바람결처럼 나툰다 이런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해 드리죠. 한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건만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아들도 되고 형도 되고, 동생도 되고 사위도 되고 그런다고요. 바람결같이 그렇게 나투면서 화해서 자꾸자꾸 나투는데 어떤 거를 움죽거린다고 할 수 없고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의정을 내기 이전에 먼저 믿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못났든 잘났든 내가 있으니까 바로 내 성품이 있는 거니깐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꼭 이 물질계에서 정신계로 진출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정신계로 발전이 되고 물리가 터져서 차원이 높아져야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의 섭리도 이 세계와 더불어 같이 실천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느냐고 모르는 분들은 그러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러지마는, 지금부터 그렇게 반야줄을 쥐고서 간다면, 그 반야줄이란 일체가 다 집결돼 있는 반야줄이기 때문에 그 반야줄 자체가 바로 주인공의 성품을 찾는 그 길일 것입니다. 거기에 통신이 된다면 온 우주가 다 통신이 되니깐요.

지금 컴퓨터가 나왔고 최상승의 컴퓨터가 또 나오고 아무리 지금 과학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경지는 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사람의 종이지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첨단으로 화했을 때에, 즉 말하자면은 칠차

☞ 26면으로 계속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불환희

B4양장/247쪽/100,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지난 1986년 전승공예대전에서 「금니金泥 부모은중경」 병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금어의 맥통을 이어 받았음을 입증한 박정자 선생의 사불수행 25년과 신심에서 우러나온 불보살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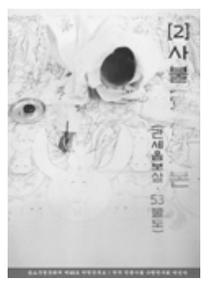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박정자 선생님의 사불교본 시리즈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국내 최대 크기(4절) 사불 안내서

초를 전부 새로 그려 사불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사불교본(1)
탱화정초, 대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도
4절지/249쪽/50,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영산회상도를 시작으로 부모은중경의 내용과 팔상도의 내용을 실었으며 비천도의 내용도 담고 있다.



사불교본(2) 관세음보살, 53불도
4절지/269쪽/55,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수월관음도를 포함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투신 모습과 나무보광불에서 나무일체법상만왕불까지 53불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불교본(3) 만다라
4절지/89쪽/20,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만다라화는 연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상화하여 단청이나 불화에 문양을 넣어서 상서로운 길상의 의미로 사용한다. 약 40종의 만다라화를 담고 있다.



사불교본(4) 삼신불, 팔대보살
4절지/55쪽/15,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비로자나불을 포함한 삼신불과 관세음보살로 시작되는 팔대보살의 모습을 비롯해서 화엄성중과 시왕의 모습을 사불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www.unjusa.com

채찍을 맞으면서 굴러봐야 둥글어집니다

☞ 25면에서 계속

원까지 올랐을 때에 결국에는 칠보가 가득해서 내 한생각이면 우주를 덮고도 두루 들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소립니다.

그건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가 이 물질적인, 50%의 상태로서 사는 차원이라면 앞으로 점점 우린 살 길이 희박한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몸도 수명이 다하면 퇴색해지듯이, 지구나 어떠한 물체도 다 쇠약해지는 겁니다. 에너지도 쇠약해지고 줄어들고, 그런다면 우리 집이 무너지는데 집 속에 있는 우린 무너지지 않을까요? 우리 몸이 쓰러지는데 몸속에 있는 생명들은 쓰러지지 않겠느냐 이 소립니다. 여러분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것들은 놔두고라도'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굴러야…, 금이 그대로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땅 속에서 수분과 지분과 공기력이 있어야, 그것도 금이라는 창조가 돼서 또는 화해서 바뀌지면서 자꾸자꾸…, 그 금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금이 돼서 덩어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금의 값어치를 하지 못합니다. 금을 금대로 깎아 내고 골라 내고 해서 한데 뭉쳐서 빛을 내야 이게 강해지고 영원하고 빛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나가는 게 고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우리들뿐만 아닙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여러분, 텔레비전으로 잘 보시죠? 그렇게 고의 길을 걷는다 하는데, 따지고 보면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렇게 부딪치지 않고 구르지 않고 부대끼지 않고…, 조약돌이 물이 스쳐 나가는 대로 자꾸자꾸 닳아서 반들반들하게 똥그랗게 요만하게 된 거를 많이 주워 봤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그렇게 부대끼지 않는다면 진짜 사람 노릇을 못한다 이겁니다. 금도 금 값어치를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되고 능력이 있을 때에, 바로 금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시는 데에 항상 '아이고, 나는 죄가 얼마나 있기에 이렇게 되나? 팔자 운명이 얼마나 세기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 내 운명이지, 팔자지.' 하고 팔자 한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대끼고 그렇게 아픈 가슴을 달래면서 그렇게 부대끼고 주먹을 쥐고 땅을 치고 울어야만 하는 인생살이를 외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부대끼지 않고, 그렇게 채찍을 맞지 않고, 그렇게 구르지 못한다면은 둥글게 되질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뭐 조금만 외부에서 닥쳐오면은 온통 나 죽는다고, 속으로 말입니다, 그러고 얼굴에 벌써 나타나고 부증이 나고 온통 야단법석이 나죠.

이 세상에 나오면은 한 번 죽기는 일반인데, 뭐이 그렇게 죽는 것이 원통하겠습니까만, 자식들을 낳아 놓고 이거 기르지 못하고 죽을까 봐 겁나는 거죠. 그런데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닌 이상에, 모든 이 마음의 착을 탁 떼어 버리면 외려 우뚝 서요. 아둥바둥하곤 그냥 온통 야단법석을 하니까 잘 우뚝 설 거를 외려 깔아뭉기게끔 되는 거죠, 붙들어서. 자기 자성들은 다 제가끔 있거든요. 자기 뿌리들은 제가끔 있거든요. 자기를 다스리는 선장이 제가끔 있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으로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늘어지면, 늘어진다면 외려 성장을 못하죠. '사랑을 하되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하되 진짜 자비로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놔 줘야 된다. 착을 두지 말라.

부모가 돌아가셔서 울고불고 그러지마는 허, 이 살아계실 때는 속을 있는 대로 썩이고서, 죽었는데 왜 울어요? 이래도 속썩이고 저래도 속썩이고, 간을 찢는 듯이 아프게 만들고 자랐으면서 죽었는데 왜 우느냐고요? 다 자기 때문에 우는 거라고요, 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물론 자기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울어야 마땅하지마는, 진짜 울어야 하는 자비는 그렇게 우는 게 아닙니다. 가슴속에서 동시에 같이 울어야 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 도리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잘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와 우리의 집인 지구와 세계가 우리가 차원이 높아지는 대로 모두 그 수명을 연장하면서 말입니다, 또 이 말 하기 전에 우주는 모든 물질적인 그 모두를 해소시키고 그 근본만 남아서 블랙홀이라는 큰 별이 그것을 생산을 합니다. 새로이 생산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몸뚱이는 없어지고, 도로 지수화풍에서 와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지마는 그 근본 종자만은 남듯이, 남아서 그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다시금 정자 난자를 빌려서 다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차원이 사차원, 오차원, 육차원, 칠차원까지 이렇게 이르러야만이, 이 몸은 가만 놔두고라도 그 마음 자체가 천차만별로 벌어져서, 그 블랙홀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돼야 이 전 세계 컴퓨터의 모든 문제도 더 성장이 되게끔 할 수 있고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고, 허공에 에너지 있는 거를 다 끌어 쓸 수 있는 차원이 돼야만이 우리가 점차적으로 길게 살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진리의 삶이 길게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그만큼 되지 못했는데, 벌써 물질은 다 떨어지고 아니, 에너지라고 합시다.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빈털터리가 되고 집이 무너지고 또 살 수 없다면, 우리 힘이 없으니깐 어디서 어떻게 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게 말입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선반 위에 높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키를 키워야 그걸 꺼내 먹죠. 그렇기 때문에 걸상이라도 갖다 놓고 올라서서 꺼낸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원을 높여야, 걸상을 놓지 않고 높여야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물질이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걸 놓고 올라서서 꺼내지만 이건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보이지 않는 차원이 높아져야 우리가 꺼내 쓸 수가 있단 얘깁니다.

부처님의 그 도리가 그래서 깊고 광대하고 무변하다, 이 마음이라는 근본을 없애고서는 절대 세상이 없다. 세상을 확장시킬 수도 없고 방대한 능력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우리 마음이 말입니다. 내 몸속에서 벗어나야,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야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고 대기권을 벗어나야 모든 각처에 어디든지 투입할 수도 있고, 또는 화해서 응신이 될 수도 있고 군사로 화해서 군사로 대비 대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거든지, 바다에서나 산이라든가 들에서라든가 우주에서라든가 세계의, 지구 모두 어디든지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디에도 높다 얕다 이런 것도 없고, 길다 짧다 이런 것도 없고, 크다 작다 이런 것도 없고, 멀다 가깝다 이런 것도 없고, 그대로 찰나찰나 그렇게 용무를 장하게 할 수 있다, 평등공법(平等空法)을 장하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내가 될 수 있으면 이거를, 말을 '용무'라고 하면은 영어로다가 번역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좀 못 알아 들을까 봐 평등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평등공법'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으니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벗어나야 전체 어디고 내 도량 아닌 데가 없고 내 자리 아닌 데가 없고, 내 거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것도 없어요. 지금 사람은 자기 몸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다도 흙도 돌도 어디고 다 쓸모가 있는 위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체험을 하면서 자꾸자꾸 차원을 올려라. 그래서 고가 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흥겨웁게 웃고 살 수 있다. 고가 아니다.

아무리 집을 쫓겨나게 됐다 할지라도, '흥! 나는 지금 심부름을 하는 입장이고, 또 심부름을 하면서 자기가 넓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인이 알아서 다 하니까, 자기는 걱정 없이 자기 주인이 나앉으라면 나앉고 들어앉으라면 들어앉을 테지.' 그러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길게 있다 죽어도 모두 자기 주인이 할 탓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자기를 닦아나갈 수 있고 차원이 높아질 수 있고, 자기 마음이 보배가 될 수 있고 자기 마음이 보배가 됨으로써 전체의 보배를 자기가 자유자재할 수 있다. 어떠한 극난한 문제도 악이 선을 이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대비 대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복으로 모두 카톨릭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할 거 없이 모두가 기복으로 나가는데 우리라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네들을 다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생각이라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신도가 오늘 같은 날 이사를 간다고 하거나 우리가 설법하는 날이 된다 이런다면은, '아휴, 춥지 않아야지!' 하하하. '춥지 않아야지!' 또 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사람이 그냥 못 견디게, 설법을 못 듣고 마음에다가 지니지 못하게 비가 오게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마음이 아주 장땡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한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온단다." 이럴 때, '우리 이사 갈 동안만 비가 오지 않아야 되겠다.' 지금은 이사 가는데 뭐, 천막을 탁 쳐서 상관이 없겠지마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것 저것 다 싣고, 그냥 극매고 사람도 그 안에 타고 그냥 비 맞은 채 가죠, 덮을 것도 없이. 그거를 난 많이 봤어요. '저거 갈 동안까지 비는 맞지 말아야지. 가뜩이나 가난해서 물건도 물건답지 않은데 비를 맞으면 더할 거 아니야!' 길에 가다가도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이 마음이 부처란 말, 꼭 그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법신이에요. 마음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 부처고 마음을 움죽거렸다 하면은 법신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또 다 같이, 만약에 그렇게 길을 지나가다가도 마음을 냈다 한다면, 그게 바로 한 찰나에 문수가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그냥 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서, 용신(龍神)도 법으로서 '갈 때까지 좀 놔둬라.' 이런다면 비오게 안 하죠. 내 식구, 내 마음, 내 몸, 나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한마음으로서 차원을 높여서 둥글리게 되면은 항상 둥그러진다면, 그렇게 여러분도 그 용무를 자유자재할 수 있으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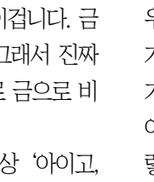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6년 3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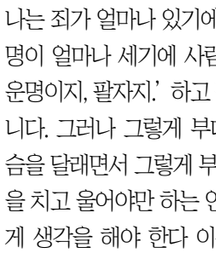
그대로 고정된 게 하나 없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살림살이에
여러분이 쥐고 있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그냥 놓고 가는 생활인데
어째서 그렇게 마음으로 불들고 헤매이십니까!



원통 스님의
예불대참회문 DVD 특가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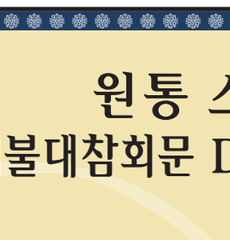
원통스님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 성철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보성 스님을 전계사로 전계하였고, 1997년 정토원을 건립.



예불대참회문
대자비로 중생들을 어여삐보셔
대희대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수승하신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
지심귀명례 금강상사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원통스님 예불대참회문 1 S E T : DVD 26개 52장

원순 스님의 몽산법어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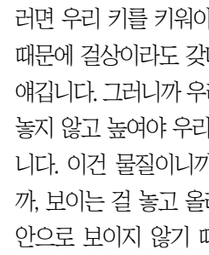


▪원순스님 몽산법어 :
DVD 9장 100,000원

구 입 문의 : 불영TV 김봉환 010-8519-9279
02)2236-7209
http://www.bytv.kr 〈법보시用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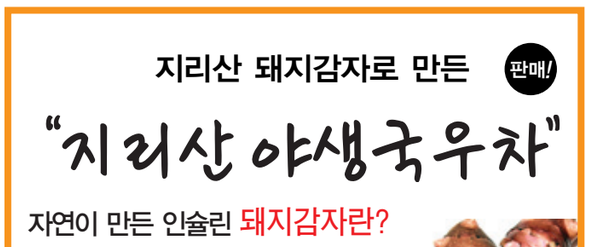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 0502-337-0108/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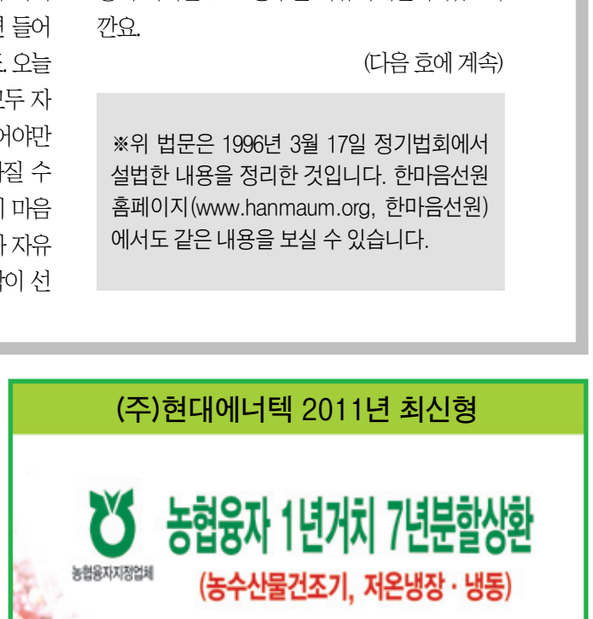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 래 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주)현대에너텍 2011년 최신형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융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불자 세상보기

일본 대지진, 그 후의 장면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나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인연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와 가까운 관계의 누군가가 못된 짓을 저질러서 지탄을 받으면 그 관계가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반대로 훌륭한 일을 해서 만인의 칭찬을 받는다면 내가 그 사람과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광고하고 싶지 않은가 말이다. 심지어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게 아닌데도 고향이 같아서,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같은 동네 사람이라니까, 같은 직업이어서, 나아가 같은 한국인이어서, 또는 심지어 같은 아시아 사람이어서 나까지도 자랑스럽거나 부끄럽게 느낀다. 아주 넓은 범위까지 나가면, 그 사람 덕분에(또는 탓에) 나 또한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거나 민망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연기법(緣起法)을 생래적으로 제법 감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번에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의 참화를 계기로 면식 없는 사람들과 나 사이의 멀지만 가까운 관계를 새삼 느끼게 된다. 생생하게 전해지는 참혹한 현장의 장면들을 볼 때마다 남의 일로만 보이지 않고 내 일인 양 마음이 아프다.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서도 질서정연하게 행동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에 감탄한다. 일본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좀 덜 당한 이들은 물론이고 몸소 혹독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까지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처신하는 것을 전해 듣고 보면서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사람 됨됨이의 진면목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죽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말도 있다. 인격 즉 사람 됨됨이를 가리키는 서양 말 페르소나(persona)라는 개념이 워낙 가면을 뜻하듯이, 별일 없는 평상시에는 적절히 처신하는 점잖은 모습을 지어내며 살아갈 수도 있다. 그다지 절박한 위기라 할 것까지도 아니고 그저 좀 불리하거나 불편한 상황이 닥쳐도 쉽사리 본색을 드러내는 이들도 꽤 있고, 특히 절박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대개가 그렇게 가까스로 지키던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내기 십상이다. 이번 일본 대지진의 참화 속에서도 일본인들이 보여준 질서 있는 처신은 그것이 그저 체면유지 차원이 아니라 그네들의 됨됨이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임을 확인시켜준다.

자신과는 다른 남의 모습을 보고 이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새삼 돌아보는 것은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인류사회와 문화, 문명의 역사를 보면, 크고 중요한 변화의 계기는 대개 다른 사회, 문화, 문명과의 발전적인 만남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내가 갖추지 못한 남의 좋은 모습은 배우고 반대의 경우라면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을 다듬는 것이 바로 발전적인 만남이다.

'헤럴드경제'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1976년 중국 허베이(河北省)성 탕산(唐山)시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시 인구의 20%가 넘는 24만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주중 일본대사가 감탄을 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이런 참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행동할까 걱정했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가 일본인들에게 경탄을 보내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 지는 이번 사태의 와중에서 일본인들이 보여주는 침착하고 질서정연한 처신과 남들과 사회 전체를 위한 배려의 성숙한 태도에 대해 "인류가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까지 극찬했다.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 사람들의 모습이라 은근히 자랑스럽다. 아주 넓게는, 파이낸셜타임즈의 표현처럼 인류 사회의 정신적인 성숙을 실증해주는 사례이기도 해서 자랑스럽다. 우리도 이웃나라,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 자랑스러운 됨됨이를 갖추도록 애써야 하겠다는 생각도 절실해진다. 일본과 참으로 복잡한 관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을 돕고자 하는 정성이 거대한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야말로 정말로 자랑스럽다.

사부대중 칼럼

우리는 얼마나·어떻게 간절한가



가섭 스님
수미산 불국사 주지

봄이 오고 있다. 지난 겨울 유난히 추웠던 날씨만큼 간절(懇切)하게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꽃들의 향기가 이처럼 간절한 것은 변화하는 세상이치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도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한 만큼 각 계절마다 풍경과 느낌들이 각기 다름은 물론 우리들의 기대와 바라는 마음도 제각기 일 것이다. 특히 사계절의 변화는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삶의 굴레와 궤를 같이해 더욱 더 계절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생로병사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동기도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자기질문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문유관(四門遊觀)을 통해 직면한 중생들의 실상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는 물론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중생들의 모습들이 자신에게 투영되어 엄청난 고뇌와 자기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부처님은 중생들이 고뇌하는 원인과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태자의 권력과 부 그리고 수많은 인연을 뒤로하고 출가를 하는 위대한 포기·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출가를 결심한 부처님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나와 중생들이 영원한 해탈과 열반 즉, 행복과 평화를 얻게 할 수 있을까하는 근본 질문을 갖게 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생각들은 중생을 연민하는 자비심으로 그 간절함이 더해져 엄청난 고행과 수행의 길을 걷게 된다. 그것은 바로 중생들을 위한 간절함의 발로이고, 본인에게 가졌던 모든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간절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거의 그 누구도, 미래의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내지 못할 고행과 수행의 길을 걸었던 부처님의 일생은 그야말로 중생들을 위한 간절함으로 인해 이룩된 역사일 것이다.

중생들이 고통의 세계를 끊고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길 바라는 간절함에서 출가에서 열반으로의 삶이 펼쳐진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중생을 위한 간절함은 역사를 더할수록 그 빛이 더해가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중생들의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간절함과 보편타당한 진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간절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나 자신을 위한 간절한 노력과 누군가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해보았는가라는 질문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한 내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간절(懇切)하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 간절한 만큼 이뤄지는 것이 마음의 이치이다. 간절함은 외적인 힘보다는 내적인 강화를 통해 뜻을 이뤄나가는 의미가 더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간절한 마음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주위를 변화로 이끌 수 있는 에너지이다.

간절한 기도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수록 그 힘이 강해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 소원성취를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최선이듯이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 또한 자기 삶에 대한 간절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요즈음은 두 가지의 간절함이 있다. 하나는 일본에서 엄청난 지진과 해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간절함처럼 하루빨리 재난구조와 재건이 이뤄지길 바란다. 순식간에 부모형제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실감을 어찌 대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따뜻하고 간절한 마음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

또 하나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믿지 않아서 그런 재앙이 오는 것이라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잔인한 소리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된 이기적인 간절함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서로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질 수 있다.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편협한 식견과 나쁜 가치가 간절함으로 승화되면 우리들의 착한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좋지 못한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제 자기만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종교만이 최고라고 두 손 모은 이기적인 간절함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간절함이 필요할 때이다.

社說

신심 강요 이전에 비전줘야

불교 중흥의 전제로 불교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언제나 단 한가지로 귀결된다. 인재 불사.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지만 유독 불교계에서 인재 타령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종립교육기관이 이웃종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은 문제이다. 계율·문화재 등 특정 분야에서 양성되는 인재가 부족한 것도 큰일이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종립학교를 나와도, 불교계에서 일하고 싶어도 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불교계에 있다.

주변을 둘러보자. 인과(因果)를 설명하면서 공짜가 없다고 말하면서, 복전(福田)을 닦는 것이니 보수를 바라지 말라고 한다. 혹은 보수가 적어도 감내할 것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

불자수는 2000만에 이른다면서, 정작 불교NGO단체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장기근속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대졸 초임 월90~130만원의 낮은 급여가 문제란다. 실무자의 수명이 짧다보니 업무의 전문성·영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장기적인 비전 없이 불교계의 거의 모든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영리목적의 일반기업은 회사 이익에 준해 임금이 결정된다. 대기업의 임금이 높고, 이들 기업으로 고학력의 인재가 모이는 이유이다.

불교계 단체 대부분은 비영리기관이다.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이 낮다. 역량발휘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출·재가의 벽이 그것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재를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불교계에는 출가자도 있지만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할 재가자가 더 많다. 언제까지 신심에 불교의 미래를 담보할텐가.

'내탓이오'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이 주축이 돼 발족한 시민모임이다. 스님의 열반 후 줄곧 적지 않은 잡음이 들리더니, 열반 1주기를 즈음해서 돌연 이사장 덕현 스님이 잠적했다. 뒤이어 이사진은 사과문과 함께 일괄 사퇴했다.

지난 주, 前 이사 중 한 명이 교계신문에 작심하고 글을 실었다.

글에는 S대 출신 운운하며, 정신분열증 과대망상증 피해망상증으로 덕현 스님을 몰아세웠다. 자신(이사진)들은 무보수로 열심히 일했는데 덕현 스님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는 듯 적었다. 어떤 참담한 결과였는지는 적지 않았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비난이었다.

사과문에서 "불행한 사태에 대해 깊이 참회하며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 것에 엎드려 정중히 사과한다"며 발표를 미루던 입장치고는 넌센스이다.

글이 알려지자, 길상사 신도들이 반발했다. 공개적으로 스님을 정신병자로 모는 글도 문제지만, 떠난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가자의 출가자에 대한 도리를 굳이 운운하지 않아도 글로 표현한 행위가 잘못된 것만은 분명하다.

1990년대 불교계에 '맑고향기롭게'가 있었다면, 가톨릭에는 '내탓이오'가 있었다. 법정 스님께 참회한다며, 상좌를 정신병자로 몰며 모든 책임을 돌린 맑고향기롭게 前 이사에게 빛바랜 '맑고향기롭게' 스티커 대신, '내탓이오' 스티커를 붙여주고 싶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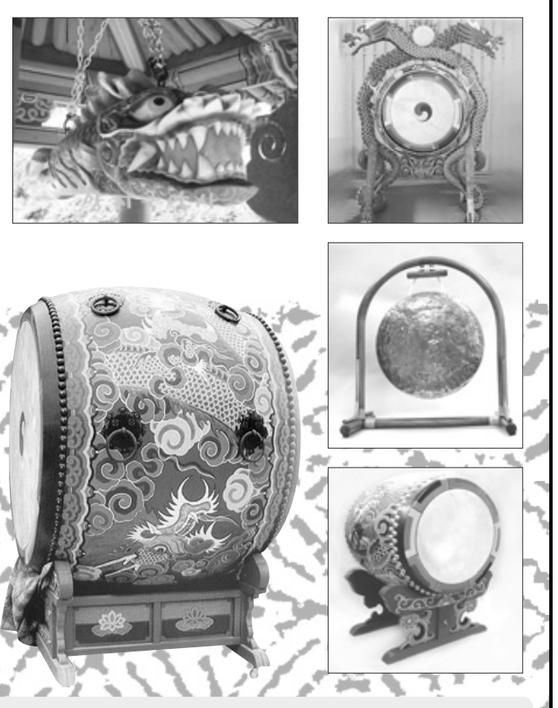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축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 모집

1. 교육과정
(1) 초급과정(3개월)
◆ 조석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청, 각단불공
◆ 시달림
(2) 중급과정(3개월)
◆ 바라춤 : 요잡(막바라), 화의재, 사다라니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시련, 대령, 관욕)
◆ 사물 : 태징,북, 요령, 목탁
(3) 연구과정(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가지게,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다게작법, 법고춤, 운심게작법, 괘불이운. [강주 : 지효스님]
2. 개강일시 : 2011년 3월 21일 개강
3.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 서강빌딩 502호)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 접수기간 : 상시
8. 연 락 처 : 051)442-1818 / Fax 051)442-1817
010-2554-5582 (총무국장)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옻나무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토종참옻은 우리 체질에 잘 맞으며, 뛰어난 효능이 입증되어 아주 오래된 산삼의 효과를 능가한다고 하여 옛부터 한방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옛부터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이라 하였습니다.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길러줘" (상지대 한의대 김명동교수)

수술중 마취에서 생긴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강하게 해 주는데 옻을 사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근육과 뼈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와 체육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체력증진 효과도 경험하였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숙취, 두통, 피로와 설사에 사용하였고,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인한 양기부족에 참옻을 사용하여 발기부전의 치료효과가 매우 좋았다. 또한 30대 후반의 한 남성의 경우 여름에도 난로를 켜고 지내야 될 정도로 무릎이 시렸는데 참옻을 2개월 반정도 복용시키자 회복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임산부의 산후관절 시림증상을 치료하는데 응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본래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을걷이가 끝난 초겨울에 옻닭을 해 먹고 부유한 층에서는 개 또는 흑염소를 넣어서 탕으로 먹었다. 왜냐하면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없애주며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토종참옻을 민간비법으로 활용하여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또한 시장이나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 하시는분들이 겨울에 옻을 복용하면 몸이 따뜻하고 손발이 따뜻하게 되어 내의를 한벌 덧입은 것 같이 몸이 훈훈하여 추위를 타지 않게 되어 한 겨울에도 감기몸살 걱정없이 건강하게 지낼수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嗽(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12월 2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FDA 미국식품안전청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지정상품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품 60봉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인가루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 먹으면서 잠을 잤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후 아침에 숙변이 엄청나게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입맛도 좋아지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내려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20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먹던 수면제도 먹지 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아프던 고기나 인가루 음식을 마음대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얼굴도 확 좋아져 옻이 마치 가버린 것처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너와 좋은 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감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담당의사도 놀란 간경화 수치의 정상화 최○○ 경기도 분당 60세/전직 아나운서

간경화 수치 1280 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개월을 치료하니 간수치가 900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은 정점이 없어 돌팔방 후 2주마다 통원치료를 했지만 간수치 700인 상태에서 더 이상은 정점이 없었습니다. B 원장 TV 방송을 보고 제주까지 선물을 해보지만 항생소자 상회하지 않았지만 선물해 줄 분의 성의로 방문하게 시작한지 10일정도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3개월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담당의사조차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2주마다 가던 병원을 3개월에 1번 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혈색이 좋아졌으며 혈압도 4에서 3.5로 수축됨.
다른이나 상기한 것은 10년동안 치료 복용해 왔던 바른우종이 없지 되었으며 영양제이 약한것에도 감염되었던 대상포진 흔적 사라졌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의대학교에서 아침이 같은 표진대로 옻계의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마시게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배탈설사로서 나쁜것. 1번정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금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통을 안고 지냈습니다. 옻가네 참옻진액을 마시면서 복용이 시작하게 엉치 통고 시작이 아지고 자리고 아래 병원 에가서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아졌습니다.
하체 정맥에 많이 정맥이 터져 나왔고 심한곳이 두군데 있었는데 10일 정도 복용하셨니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좋은제품을 만나게 되어 건강한 모든이에 권장 해주게 드리고 싶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진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며 간편한 포장의 참옻진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3~4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가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